



1천여 동문 한마음으로 힘찬 새해 다짐

庚寅年 신년교례회
롯데호텔서 개최



신년교례회 대성황

본회 林光洙회장은 지난 1월 14일 개최된 신년교례회에서 "서울대인은 이제 더 이상 모래알이 아니라 한마음으로 모교 발전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3면>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

3월 19일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

◆일 시 : 2010년 3월 19일(금) 오후 6시 30분

◆장 소 :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내 용 :

- ① 제12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
- ② 2009년도 결산 및 2010년 사업계획 보고
- ③ 임원 개선
- ④ 기타 안건 심의

◆회 비 : 없음.

※ 한정된 좌석과 식사 준비 관계로 반드시 사전예약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동창회 154차·관악회 109차 상임이사회는 정기총회 전 오후 5시부터 에메랄드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대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관악출추

“보람과 성취의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라는 표제가 걸린 신년교례회는 1천여 명이 넘는 동문들로 대성황을 이뤘다. 林光洙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새해는 장학

빌딩 완공, 개교 원년 찾기, 모교의 법인화 등 뜻 깊은 한 해가 되는데, 이를 위한 동문들의 많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표시하는 등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동문 수 33만 명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필자는 모나코 인구 3.3만명이 떠올라 그 10배나 되는 우리 동창회의 저력에 새삼 놀랐다. 이어서 李長茂총장은 축사에서 서울대가 SCI 논문순위 세계 24위, 국

제 평균 25위, 기업 CEO 배출 5위 등으로 이미 세계 20위권 대학이 됐는데, 10위권 대학 진입을 위한 발전기금 조성, 해외석학 초청 등 이룩한 많은 업적을 소상하게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금년에는 鄭雲燦총리, 鄭正佶대통령실장 등 정부에서도 많이 참석했다.

세계 20위권 대학의 신년교례회

鄭총리는 축사에서 작년 UAE원전 수출, G20 가입과 그 회의 개최 결정,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 등에 동문들의 공헌을 강조하는 등 편안하고 알찬 축사로 많은 찬사를 받았다. 축사에 이어 시루떡 나눔 행사, 서울대 성악과 재학생중창단의 축하, 전임 지부 및 단과대학(원)동창회 회

장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 등의 순서는 모두 SBS 金亨珉보도제작국장의 명사회로 즐겁게 진행됐다.

權勢赫전임 총장은 건강의 상징적인 표현은 ‘웃음’임을 강조하는 등 힘차고 알찬 건배사, 그리고 趙 淳, 李御寧 두 분 스승은 호랑이 해를 맞아 삼십에 사는 호랑이와 초원에 사는 사자의 차이에 관한 의미 있는 덕담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孫一根상임부회장은 林光洙동창회

장이 앞장서서 건설하는 장학빌딩이 금년에 완공된다고 했다. 지상 19층, 지하 6층으로 시가 1천억원이 넘는 세계 최고 동창회관이 될 전망이다.

서울대가 크게 도약하는 새해를 맞아 한 분 한 분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한다. (宋丙洛논설위원)



金信福·孫一根·李御寧·趙 淳·李吉女·鄭元植·鄭正佑·李長茂·林光洙·鄭雲燦·金在淳·孫京植·權彝赫·李基秀·洪性大·鄭東文 등이 시루떡을 나누고 있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길”



林光洙회장·鄭雲燦국무총리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1월 14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각계 동문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본보 金亨珉는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林光洙회장은 행사장을 가득 메운 선후배 동문들에게 “작년에도 1천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는데, 올해는 그 이상이 되어서 신년교례회 가운데 가장 많은 동문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고 전하고, 자리를 빛낸 각계 동문들을 일일이 소개했다.

이어 신년사에서 “堅忍不拔이라는 말처럼 새해에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본에 충실해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꿈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동창회를 운영하면서 수년 전부터 우리 동문들이 동창회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서울대인은 이제 더 이상 모래알이 아니라 한마음으로 모교 발전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학빌딩 현황에 대해 “지난



공로패 수상자와 함께 - 金鍾和·鄭興淑·林光洙·姜寅求·趙東蘭등문

2007년 6월에 공사를 시작한 장학빌딩은 주변 불법건물의 철거가 1년 가까이 지연됐으나 당초 예정대로 올 연말이면 완공하게 돼 100년, 200년이 가도 견재할 자랑스러운 모교 지원센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長茂총장은 격려사에서 “모교는 지난 한 해 세계의 대학으로 발전하며 각종 평가에서 세계 20위권까지 올랐다”며 “2006년 7월 총장에 취임한 후 추진한 발전기금 모금캠페인도 약정을 포함해 총 모금액이 2009년 말 기준 중 약속한 3천억원 모금도 곧 달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학문융합과 국제화 프로그램 추진, 첨단융합연구단지 신설 등 모교의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 명문대 총장들이 깊은 존경을 표했다며 “특히 동경대 하마다 총장개신 모교가 대학의 자유와 도약을 위한 훌륭한 법인화법을 관철시킴으로써 동경대를 추월하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덕담을 했다”고 덧붙였다.

법인화에 대해선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토대로서 법인화는 우리의 이상을 구현하는 효과적 수단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 앞에 놓인 변

鄭雲燦국무총리에 축하패 수여

화와 도전을 맞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서울대다움을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林光洙회장은 지난해 취임한 鄭雲燦국무총리에게 축하패를 수여했다.

모교 총장을 역임한 鄭雲燦국무총리는 인사말에서 “작년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경제적으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으며, 주요 20개국인 G20 멤버로서 올해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 모든 것이 서울대 출신들 덕분”이라고 화답하며 “현안인 세종시 문제를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본회 權彝赫·鄭元植고문, 金在淳명예회장,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李吉女·洪性大·孫京植부회장, 모교 朴奉植·趙完主·鮮于仲皓·李基俊전임 총장, 李長茂총장, 金信福부총장, 趙 淳명예교수, 중앙일보 李御寧상임고문, 鄭正佑대통령



金明道·南正明·李敬俊·李長茂·辛東烈·權寄辰·李鍾洙등문

실장, 鄭雲燦국무총리, 安相洙인천광역시장, 고려대 李基秀총장 등이 새해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기원하며 시루떡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축가로 모교 성악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중창단이 우정을 노래하는 ‘축배의 노래’ 등을 동문들의 박수소리에 맞춰 힘차게 불렀다.

權彝赫고문은 이날 건배사에서 “단상에 올라올 때 건배사를 짧게 해달라고 주의를 단단히 받았는데,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 한 말씀드리겠다”며 웃음을 자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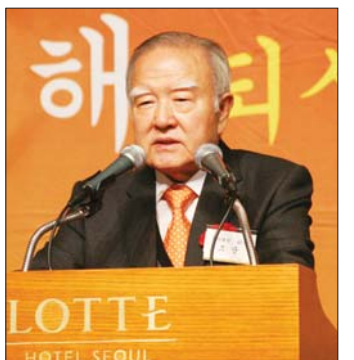
이어 “올해의 화두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선 자립성, 창조성, 도덕성, 건강한 심신, 국제적 감각을 지녀야 되며, 여기에서 시간까지 아낄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뒤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다함께 앞으로 나가자!”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대강합동양조장 趙在九(산림자원 83-90)대표가



權彝赫고문



鄭元植고문



趙 淳동문



역대 신년교례회 가운데 가장 많은 동문이 참석해 모교와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모교와 동창회를 아끼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李御寧동문



李吉女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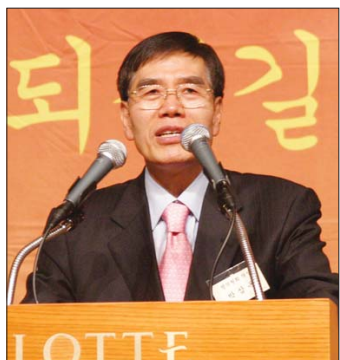
모교 남성중찬단이 축배의 노래를 열창했다.



李基秀동문



孫一根동문



朴杉沃교수

10위권 대학에 걸맞은 校史 바로 찾기도

☑ 협찬한 ‘협쌀누보’ 막걸리를 들며 서로에게 희망찬 한 해를 기원했다.

유공 동문 시상식에서는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직전 단과대학(원) 및 지방지부동창회 회장인 李倫京(간호대)·鄭興淑(생활대)·河權益(의대)·姜寅求(보대원)·姜普英(HPM)·南正明(AMPP)·李敬俊(AIC)·李鍾洙(ACPMP)·金明道(FIP)·辛東烈(GLP)·金亮沃(ALP)·李弘中(대구·경북지부)동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만찬 중에는 본회 鄭元植고문, 李吉女부회장, 모교 趙淳明교수, 평의원회 朴杉沃의장, 중앙일보 李御寧상임고문, 고려대 李基秀총장이 새해 덕담을 했으며, 헌정회 朴衡圭이사가 漢詩를 낭송했다.

李御寧상임고문은 “생태학자 왓슨에 따르면 사자는 배불리 포식하면 나무그늘을 찾아 잠만 자지만, 호랑이는 아무리 배가 불러도 끝없이 새로운 것을 찾기 때문에 사자형 인간을 ‘네오포비아’, 호랑이형 인간을 ‘네오파리아’라고 한다”며 “모교가 그만큼 발전한 것은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호랑이 습성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네오파리아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인 인물로 통하는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대 졸업식에서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말했듯이 배부른 서울대인이 되지 말고 끝없이 배고픈 상태에서 새 것을 추구하는 서울대인이 되자”고 덧붙였다.

鄭元植고문은 우리나라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세계적인 유산이라 할 수 있는 ‘온돌’과 ‘김치’를 예로 들면서 “지식만 풍부한 서울대인이 되지 말고 이와 더불어 사회 곳곳에서 필요로 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정을 나누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려대 李基秀총장은 “저는 타 대학 총장이지만, 모교 법학 석사과정을 졸업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모교에서 학문에 대한 외경심을 배웠기 때문

에 오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林光洙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동문 여러분의 면면을 보면서 서울대 동창회가 모래알 같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며 “서울대를 세계 10위권으로 올리는 초석을 다지신 李長茂총장님, 동창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林光洙회장님, 국정에 헌신하고 계신 鄭雲燦국무총리와 동문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孫一根상임부회장은 “미래학자 톨프 옌첸은 정보사회 다음으로 ‘드림 소사이어티’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동문 여러 분께서도 왕성한 호기심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꿈의 사회’를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회의 역점사업인 모교 개교 원년을 법관양성소 비조인 1895년으로 재설정하는 작업과 연말 완공을 목표로 내부공사가 진행 중인 장학빌딩 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동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행사 후 참석자들은 본회에서 발간한 ‘正統과 正體性’ 단행본과 수건세트를 기념품으로 받았다. (表)

관악언론인회 2010년 정기총회

2월 26일(금)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서울대 언론인 출신 모임인 관악언론인회가 제8회 정기총회 및 제7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동문 언론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10년 2월 26일(금) 오후 7시
- ◆장 소 :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내 용 : ① 의안 상정 및 의결·경과보고
② 제7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시상

관악언론인회 회장 文 昌 克

 누리나무광장

세종시의 장래를 놓고 정치권과 관계 당사자의 눈에 핏발이 가득하고 살기가 등등하다. 피를 보지 않고는 끝나지 않겠다는 살벌한 기세를 조금도 누그러뜨릴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국가 백년대계의 명분과 대국민 약속이라는 신뢰의 주장이 이렇게 무서운 흥기가 될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다. 유행어였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라 하고 싶은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훈수하기가 겁난다. 숫제 입을 다무는 것이 보신의 상책이라 여겨진다.

때 아니게, 그것도 동창회보에 세종시 문제를 끄집어 내느냐고? 세종시의 정치적 인화성이 하도 강해 모교 법인화법이 알게 모르게 그슬리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서울대 법인화의 앞날이 세종시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제자리에서 맴돌 것 같은 불길한 징조가 감지된다. 모진 놈 곁에 있다 정 맛아도 유분수지 이런 사태는 막아야 한다.

애초에 서울대 법인화와 세종시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남이었다. 그러던 것이 세종시 문제가 정치

적 태풍이 되면서 서울대 법인화도 마치 같은 배라도 탄 것 같은 형국이 됐다. 외부에는 서울대의 기능과 시설의 일부를 세종시로 옮기는 대가로 법인화의 특혜라도 한 가마니 받는 것처럼 비쳐지기조차 했다.

국립대란 그 어느 정권에서건 정부 정책의 무풍지대에 머물 수는 없다. 서울대라고 이 운명을 비껴 가는 특권적 존재일 수는 없다. 세종시 문제와 살을 부대끼게 된 것도 어쩔 수 없는 팔자요, 연이라고 본다.

어쩌다 서울대와 세종시가 함께 엮히는 신세가 된 것

법인화와 세종시는 별개인데...

曹 炳 喆
前세계일보 주필
본보 논설위원



은 부인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동일 티켓이거나 패키지 딜이 될 사안은 아니다. 성격자체가 관이하다. 세종시가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면 서울대 법인화법은 어디까지나 교육 문제다.

마침 서울대 법인화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작이 반이라는 계산을 원용하면 반환점을 돌아 종착점을 눈앞에 둔 셈이다. 李長茂총장을 비롯한 전 서울대인의 힘겨운 노력이 느껴진다. 마지막 잔을 흔쾌히 비우기 위하여 서울대인, 동문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본다.

다행이랄까 최후의 칼자루를 전 국회에 서울대인이 과반을 상회하고 있다. 이들이 모교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법인화법의 국회 통과를 팔 한 번 휘젓기만큼 쉬운 일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그런 모양새가 아닌 성 싶다. 세종시법의 수정과 서울대 법인화법이 같은 궤도에 놓여 있다고 오해하는 동문 선량은 없었으면 좋겠다.

국립대 법인화 조치는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 있다. 출발이 늦은 서울대가 예서 더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밤이 길면 꿈도 많다는 데... 아무쪼록 서울대 법인화가 세종시의 유탄에 맞는 횡액은 없어야 한다.

관악시단

어떤 사랑

沈 潤 南(철학82-94)시인

나도 내 앞가림 잘 못하면서
보름달 같은 후배에게
고기 잘 잡으라고
쓸 만한 그물 구해다 준다

코 앞에 있을 듯한 그물
그 그물을 손에 넣기 위해
발이 닳도록 들락거려야 했다

마침내, 그물이 쥐어지는 순간
감격, 감격스러워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이토록 기쁜 것은
그 후배가 걸어온 길이
애뜻하고 울곧기 때문이요
그 녀석 잘 되는 것 너무 좋아서, 꼭

동문칼럼

고등학교 때까지는 위아래 학년들과 동기생들의 얼굴을 대충이라도 알고 지냈습니다. 지금도 이름까지는 아니어도 얼굴들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를 들어오니 단과대학들로 갈라지고 학생수도 많아 동문끼리 알고 지내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대학교가 관악으로 새 건물을 짓고 옮겨갔고 저는 졸업 후에 연건캠퍼스에 남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식을 하면서 처음 만났던 운동장을 빼고는 어쩌다 강의가 있어서 관악캠퍼스에 가더라도 솔직히 감성적으로는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옛 친구처럼 서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즘도 대학로의 옛 자리를 거쳐 점심 먹으러 나갈 때마다 여기저기서 예전 모습을

연구하는 허전합니다.

올해부터 2년간 사단법인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회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의공학회이고 의학과 공학, 공학과 의학이 만나 같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정신과 교수가 회장을 하는 것을 의아해하시는 분들께 저는 제 어머니는 의학, 아버지는 공학을 전공하셨으니 저는 태생이 의공학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수면다원 기록기의 국산화나 지능로봇 연구에도 관여하면서, 전임감사 시절부터 의료기기와 같이 지내왔으니 제가 아주 엉뚱한 곳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鄭 道 彦
(의학70-76)
모교 정신과학교실 교수

어쩐 일인지 국내의 다학제간 연구는 아직 개방성, 솔직성,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자신에게 당장 직접적인 이득이 없어도 모두 개방해서 가르쳐 주는, 제가 경험한 미국 대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을 나누면 더 큰 지식이 된다는 지식 경영의 기본 원칙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

만남, 헤어짐, 기억하기

반추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사람이 된 지 40년이 되었는지 관악이든 연건이든 대학 캠퍼스라는 물리적 공간이 제게는 마치 사람처럼 헤어짐과 만남으로 다가옵니다.

만남과 헤어짐은 학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동숭동에서 보낸 시절에는, 동양사학과나 심리학과 수업도 들으면서 의예과에만 매이지 않고 ‘서울대학교’ 학생의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제 옆에 영문과나 철학과나 역사학과나 미학과가 있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책 읽다가 모르는 것 물어보러 뛰어가기에 관악은 너무 멀지요. 철이 나서 다학제간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 이미 제

상일이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누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집단과 나눌수록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집단간의 경쟁력 차이를 생각하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항상 서울대학교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더 자랑스러운 대학교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도 서울대학교를 아껴 주십시오. 얼굴로는 기억을 못해도 마음으로는 기억하는 사이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으신 동문께서는 대한의용생체공학회에 참여, 후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林 光 洙**
편집인 **孫 一 根**
인쇄인 **朴 薦 壽**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朴世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趙在鏞, 金鎮國, 崔英勳, 李容式,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表智媛, 金南柱, 邊榮顯 광고부장 金千鶴

법과대학동창회

모교 발전기금 모금에 기별회장 적극 동참

법과대학동창회(회장 金正國)는 지난 1월 20일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鮮于宗源·金春鳳원로 동문을 비롯해 3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덕담을 나누고 동문음악회를 관람하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金正國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각종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며 “그 가운데 특히 모교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에 각 동기별 회장을 중심으로 많은 동문들이 적극 동참해 목표 금액을 초과 달성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모교 발전기금 모금에 동문 및 교

직원, 기업이 총 32억9천여 만원을 출연했다. 모금을 시작할 때 책정한 목표 금액은 14억5천만원이었다.

모교 金建植학장은 격려사를 통해 “동문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법과대학이 내용뿐 아니라 시설면에서도 어느 대학 못지 않은 골격을 갖췄다”며 동문들에게 감사했다.

이어 “법관양성소로부터 시작된 서울법대의 지난 과정을 돌아보는 역사관을 마련해 오는 5월 6일 개관 예정”이라는 소식을 함께 전했다.

만찬과 함께 원로 동문들의 덕담 시간에 孫一根고문(본회 상임부회장)이 법관양성



鮮于宗源·金春鳳·金宗鎬·李爽熙·金正國·鄭正佺·金建植·李相赫·孫京植·孫一根·成樂寅동문

소를 효시로 하는 모교 개교 원년 조정 사업에 대한 경과를 간략히 보고한 후 “꿈꾸는 능력, 상상력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새해에도 꿈을 잃지 않고 호기심을 늘 갖고 살자”고 말했다.

여흥시간에는 金尙重동문이 金濬浩동문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가곡을 선사했으

며, 李丞敏·李善龍·李淳雨동문 등이 출연해 노래와 악기 연주 등을 들려주며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金許男·俞 焄·柳順鉉·劉鐘海·孫一根·李海遠·崔斗衡동문 등 많은 동문들이 2천4백만원의 현금과 경품 30점을 협찬했다. (南)



대구·경북지부동창회

부회장·이사진에 위촉장 전달

대구·경북지부동창회(회장 崔敬鎭)는 지난 1월 21일 대구 노보텔엠베서더호텔 버건디볼룸에서 학교법인 영광학원 曹海寧(행정 61-65)이사장, 경북대 盧東一(정치 68-72)총장, 金範鎰(경영 69-73)대구광역시장, 黃永穆(행정 70-74)대구고등법원장, 金洙學(법학 73-77)대구지방법원장 등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제4대 회장에 추대된 崔敬

鎭(의학 68-74 신과부과의원장)회장은 “예년보다 배 이상의 동문들이 참석해 주셔서 벌써 신나고 즐거운 한 해가 될 것 같다”며 “올해에는 10년만에 동창회 명부를 재정비하고, 등반대회와 송년회 등 함께 모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지난 4년간 동창회장으로 헌신한 화성산업 李弘中(토목 67-71)대표와 전임 간사장인 삼익HDS 李載亨(기계설계 76-80)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 신임 부회장과 40~50대 젊은 동문들로 구성된 이사진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에서 진양공업 李澤雨(금속공학 64-69)대표 외 5명의 부회장과 경북대 林賢植(기약 64-68)교수 외 30명의 이사 및 감사에게 위촉장을 전했다.

여흥시간에는 林賢植교수를 비롯한 영남대 李義遠(기약 70-74)교수, 경북대 劉小瑛(성악 84-88)교수가 클래식넷 연주와 축하를 선보였다. 최고령자인 金載珍(경제 44-48)동문의 건배제의에 이어 한국광유 郭惠根(전자공학 66-70)회장이 “앞으로 동문들이 찾아오면 기쁨값을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큰 웃음을 선사했다.

대전·충남지부동창회

朴正九부회장 등 유공 동문 시상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準)는 지난 1월 12일 대전시내 유성호텔 킨홀에서 각계 동문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 겸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吳應準회장 신년사, 이사회 개최, 유공동문 시상, 여흥 순으로 진행됐다.

2009년 동창회 사업결산 보고, 2010년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에 이어 그동안 동창회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헌신한 朴正九(의학 69-75)·金炳克(물리 79-83)부회

장, 주니어 관악회 李奉鎬(치의학 86-90)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金忠鉉(원예 83-87)재무간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가진 여흥시간에는 吳德均(경제 53-57)前충남대 총장, 대전지방검찰청 韓明官(법학 78-82)검사장이 모교 발전과 동문들의 건승을 기원하는 건배를 제의했으며, 축가로 목원대 康樂榮(성악 67-72)교수와 대전대 崔秉煥(사회교육 70-74)교수가 가곡을 선사했다.

춘천지부동창회

음악회 개최 예정

춘천지부동창회(회장 林正根)는 지난 1월 12일 춘천시내 배나무집에서 朴升漢(지리교육 53-57)고문, 강원대 교수모임 李相熙(전기공학 69-74)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 사람씩 돌아가며 덕담과 건배제를 했으며, 2월에 모교를 입학하는 춘천 출신 신입생 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3월에는 동문음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강원대 교수모임과 상·하반기에 대규모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송탄지부동창회

새해 첫 모임 열어

송탄지부동창회(회장 王俊賢)는 지난 1월 6일 평택시내 해운일식집에서 金吉洙(약학 50-56)·尹泰桀(수의학 58-62)·金泰喜(수의학 58-63)·李正勳(수의학 63-67)·宋致龍(수의학 83-89)·沈載勳(수의학 84-91)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모임을 가졌다.

王俊賢회장은 “올해에는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동문들을 파악해 회원 수를 늘리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동창회가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정기모임에 참석해 주시는 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포항지부동창회

裴龍在회장 선출

포항지부동창회(회장 李鍾漢)는 지난 1월 20일 포스텍 포스코국제관 2층에서 정기총회 겸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임 회장에 裴龍在(법학 74-78)변호사(사진)를 선출했으며, 새해 사업으로 70·80·90학번대 모임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동창회는 2월 중 모교 신입생을 위한 기념품 증정식 및 환영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지부동창회

음악회·특강 펼쳐

전북지부동창회(회장 金聖吉)는 지난 1월 11일 전주 시내 중식당 백리향에서 申鐵享(교육행정 57-61)前전북대 총장, 학교법인 상산학원 洪性大(수학 57-63 본회 부회장)이사장, 洪性宙(상학 58-64)전북은행장, 金完柱(정치 66-70)전북도지사 등 동문 및 가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힘찬 새해를 기원하는 음악회에서 전주시립국악단 관소리 수석단원인 김민영 씨가 ‘흥부가’를, 아쟁 수석단원인 최승희 씨가 ‘아쟁산조’를 선보였다.

이어 군산대 해양학과 梁才三(해양학 71-78)교수가 ‘남극 세종기지에서의 생활’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불어교육과동창회

신년회서 장학금 지급

불어교육과동창회(회장 徐形來)는 지난 1월 11일 서울 역삼동 LIG타워 지하 ‘르 그랑 뷔프’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 徐形來회장, 郭光秀명예교수를 비롯해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덕담을 나누고 재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동창회는 올해도 매월 등산대회, 사은행사, 흠커데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表)



농생대동창회

‘상록문화재단’ 설립 축하모임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韓仁圭)는 지난 1월 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2010년 제1회 임원회의 겸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졸업 50주년을 맞은 56학번 동기회(대표 俞東濬) 주관으로 열린 이날 모임에는 尹勤煥 명예회장, 韓仁圭 회장, 모교 朴憲雨 학장을 비롯해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임원회의에서 지난해 결산보고 및 올해 사업계획 보고가 있었으며 오는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8대 동창회장으로 일

성화학 鄭潤煥(임학56-62)대표를 선출했다.

회의 후 이어진 신년교례회에서 상록문화재단(이사장 韓仁圭) 설립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창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우리나라 농업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학술지원 및 발간사업을 목적으로 상록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이를 위해 鄭潤煥 차기 회장이 1억원을 출연했다. 재단의 기본 재산은 5억원, 보통 재산은 1억여 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모교 재학생 26명에게 장학금 3천 6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간호대학동창회

李倫京·洪京子 동문 부조 제막



金貞姬·朴貞浩·洪京子·李倫京·宋美順·金花中 동문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洪京子)는 지난 1월 6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강당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俞淑子·李倫京 전임 회장, 洪京子 회장, 모교 宋美順 학장, 朴貞浩 명예교수, 金花中 前여성단체협의회장, 李愛珠 국회의원을 비롯해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눴다.

이어 간호대학 본관 로비에서 李倫京 전임 회장과 洪京子 회장의 부조제막식을 거행했다. 부조는 동창회나 모교에 1억원 이상 출연한 동문들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됐다. 洪京子 회장은 최근 모교 발전기금에 후학 양성을 위해 1억원을 기탁했으며 李倫京 동문은 회장 재임시 동창회와 모교에 1억원 이상을 출연한 바 있다.

동창회는 올해 장학사업으로 재

학생 23명에게 1천7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학동문회

申益鉉 동문 모교 지원

임학동문회(회장 鄭潤煥)는 지난 1월 13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鄭潤煥 회장, 모교 辛東韶 명예교수를 비롯해 4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덕담을 나눴으며, 지난 2년간 사무총장으로 봉사한 鄭秀峰(임학60-65) 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지난 12월 21일 뉴질랜드에서 원목수출회사를 운영 중인 申益鉉(임학79-87) 동문이 산림환경학전공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해 달라고 모교에 5천만원을 출연한 바 있다.

상과대학동창회

鄭雲燦 총리 등 세 동문에 ‘빛내자상’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洪龍濤)는 지난 1월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3백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개최했다.

洪龍濤 회장은 인사말에서 “상대인들을 주축으로 한 경제인들이

기업과 정부를 훌륭하게 이끈 공이 지대하다고 생각한다”며 “2천년대 두 번째 decade를 맞이한 올해에도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상대인들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와 사회를 올바르게 선도하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 한국물류협회 安台鎬(경제45-53) 명예회장, 한국은행 李成太(경영64-68) 총재, 鄭雲燦(경제66-70) 국무총리에게 자랑스러운 동문상인 ‘빛내자상’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池昌壽·朴榮大·曹甲周·金一燮·金東寧·朴哲遠·沈載煥·李錫采·李成太 동문 등이 금품을 협찬했다.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金美惠 作



‘Aria Dolce’, Acrylic on Canvas, 100×80cm, 2009.

〈작가약력〉

- ▲78~82년 모교 회화와 졸업
- ▲개인전 및 단체전 외 다수
- ▲09년 혼올회 한·중남미전
- ▲현재 혼올회 회원, 미대동창회 부사무국장



신임 회원과 함께 : 좌로부터 네 번째 李仁碩·金永煥 동문, 아홉 번째 李尙錫·吳炳權 동문

수리과학부동창회

李尙錫 회장 선출

수리과학부동창회(회장 金永煥)는 지난 1월 29일 모교 관악캠퍼스 상산수리과학관 4층 홀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모임에는 학교법인 상산학원 洪性大 이사장(본회 부회장), 아주대 金夏鎭 명예교수, 모교 金成基 명예교수를 비롯해 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金永煥 회장의 인사에 이어 모교 李仁碩 학부장은 관악캠퍼스 이전 후 35년만에 자연과학대학 27동 건물에 리모델링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전했다.

정기총회를 겸한 이날 임원 개선에서 신임 회장으로 송실대 수학과 李尙錫(수학68-72)교수를

선출했다.

신임 李尙錫 회장은 “洪性大 선배님이 회장으로 계시 때 총무를 했었는데 그때 문리대부터 자연대 졸업생을 아우르는 동문 앨범을 제작한 기억이 있다”며 “그렇게 큰 일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명부라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IC동창회

정책포럼 고문 위촉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世漢)는 지난 1월 1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오키드룸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文憲一·朴室相 고문, 李敬俊 명예회장, 李世漢 회장, 모교 金信福 부총장, 행정대학원

崔鍾元 원장, 행정안전부 李達坤 장관을 비롯해 2백여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동창회는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尹東潤(법학57-61) 이사장과 21세기방송통신연구소 康容植(행정58-63) 이사장을 동창회 산하 사단법인 정보통신정책포럼의 고문으로 위촉했다.

한편 崔鍾元 원장의 요청에 따라 올해 준공하는 새 행정대학원 정보통신 자료실에 컴퓨터 80대를 AIC동문들이 기증하기로 했다.

물리천문학부동창회

金聖中 회장 추대

물리천문학부동창회(회장 鄭明世)는 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자연과학대학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국제종합물류 金聖中(물리61-65) 대표(사진)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동창회는 현재 2천여 명의 동문이 회원으로 있으며 매년 등산, 바둑, 골프, 낚시 모임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南〉



미술대학동창회

정기총회 겸 신년모임 가져

미술대학동창회(회장 金鳳九)는 지난 1월 28일 서울 잠원 한강 지구 리버시티에서 정기총회 겸 임원 신년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특별히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洪性大·鄭八道부회장이 참석해 동창회 임원들을 격려했다.

金鳳九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많은 임원들께서 동문미술전 등 여러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는데 커피 한 잔 대접하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모임 취지를 설명한 뒤 “올해 말 총동창회 장학발당이 준공되면 하버드대, 예일대 동창회관에도 없는 아트갤러리가 개설될 것”이라며 큰 기대를 나타냈다.

모교 章洙弘학장은 축사를 통해 “연초에 국회로부터 건물 신축 기금 50억원 출연을 약속 받아 6백 60명 학생과 34명 교수의 갈망이었던 공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학교 소식을 전했다.

林光洙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모



교 법인화에 대한 동문들의 지원을 부탁하고 모교 개교 원년 바로 찾기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正統과 正體性’ 책을 동문들에게 배포했다.

이날 동창회는 대한민국예술원회장과 한국미술협회 수석부이사장으로 취임한 權純亨(응용미술

49-55)·金春玉(회화64-68)동문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으며, 지난해 사업보고 후 宋光子(응용미술62-66 효성그룹 趙錫來회장 부인)·李明姬(회화68-72 한진그룹 趙亮鎬회장 부인)부회장, 金惠元(조소80-84)·徐元永(조소85-92)간사를 선임했다.



安國正·金宣利·李濟薰·朴容玉·林光洙·孫一根동문

사학과동문회

자랑스런 사학인 시상

사학과동문회(회장 李濟薰)는 지난 1월 7일 서울 소공동 프레지던트호텔 수베르드홀에서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제1회 ‘자랑스러운 사학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孔大植부회장, 安國正·徐玉植노설위원, 사학과동문회 李濟薰회장을 비롯한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자랑스러운 사학인에 선정된 3·1여성동지회 朴容玉(사학55-59)회장, 한국국학

진흥원 金炳日(사학64입)원장, 메가스터디 孫主恩(서양사학81-87)대표를 축하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동서양의 역사를 아우르며 우리나라 국사학계를 이끌어 오신 동문 여러분이야말로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지닌 엘리트 중의 엘리트”라며 “앞으로도 계속 모교와 국가 발전의 주역으로서 더욱 열심히 모이고 나눈의 정신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李濟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년 사업으로 각 학과(동양사, 서양사, 국사)동문회 임원들의 협조를 받아 새 명부 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金振珪(左)·朴炳善(右) 동문

견때 지난 1월 7일 암 제거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동문은 직장심체요절이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앞선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임을 입증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주인공이다. 또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한 외규장각 의궤를 목록화해 국내외에 외규장각 도서관의 존재를 알리는 등 의궤 반환운동에 불을 붙여 2007년 정부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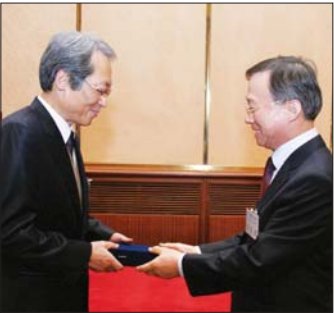
기계동문회

1백여명 새해 인사

기계동문회(회장 金東晉)는 지난 1월 8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孔大植부회장, 관악회 明泰鉉이사, 공대동창회 許鎭奎회장, 기계동문회 崔昇喆·李俸柱전임 회장, 한일MEC 崔相弘회장, 농심 孫郁회장을 비롯해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며 친목을 도모했다.

金東晉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한 해도 소통을 기반으로 결속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동창회 사업



金東晉(右) 회장이 李俸柱전임 회장에게 감사패 전달

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장학발당 건립현황을 설명했으며, 모교 법인화에 대한 동문들의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했다.

이날 金東晉회장은 동문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李俸柱전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치·외교학과동창회

모교 학부승격 축하모임 열어



金相廈·洪聖穆·崔時仲·洪思德·嚴俊傑·李圭煌·李東官동문

정치·외교학과동창회(회장 洪聖穆)는 지난 1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승격 축하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洪聖穆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창회의 노력으로 정치학과와 외교학과의 통합학부 및 학생·교수 증원을 이뤄냈다”며 이를 위해 애써준 모교 李長茂총장과 학부승격추진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동창회는 지난해 1월 총회에서 ‘정치학과, 외교학과 통합 및 증원 결의안’을 채택, 대학본부에

전달했다. 이어 崔時仲·洪思德동문을 통합추진위원회 공동회장으로, 金炯昨동문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수차례의 모임과 교육과학기술부 및 모교 관계자 면담을 시도했다.

洪聖穆회장은 “지나해 모교 李長茂총장과 의 면담을 통해 학생 정원 20명 증원, 교수 4명 증원을 약속 받았다”며 “2011학년부터는 정치외교학부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기총회를 겸한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李圭煌(정치66-70)상근부회장을 선출했다.

2·3월 행사 캘린더

2월 23일(화) 정오 12시

전북지부 신입생 환영회

전북 전주시 백리향

(문의 : 063-250-2018)

2월 23일(화) 오후 7시

치대동창회 정기총회

모교 연건캠퍼스 치과대학

(문의 : 742-7082)

2월 25일(목) 오후 7시

약대동창회 정기총회

서울 태평로 서울프라자호텔

(문의 : 701-3456)

3월 3일(수) 오전 11시

상대동창회 장학금수여식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문의 : 761-2278)

3월 8일(월) 오후 6시30분

ROTC동창회 정기총회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겐지

(문의 : 871-0522)

3월 12일(금) 오후 6시30분

동승클럽 정기총회

서울 삼성동 현죽빌딩 6층

(문의 : 총무 011-412-0757)

전자동문회

자랑스런 동문상 수여

전자동문회(회장 李潤雨)는 최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다수참석기수상을 받은 26회·35회·37회 동기를 비롯해 2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동문회 활성화와 모교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키아티앰씨 李梓旭(전자공학61-65) 명예회장에 전자동문 대상을 수여했으며, 2009년 자랑스런 전자동문으로 모교 全國鎭(전자공학73-77)교수, 서강대 洪大亨(전자공학73-77)교수, 티엘아이 金達洙(전자공학79-83)대표, 서울시립대 安度烈(전자공학79-83)교수를 선정해 시상했다. 또 지난해 전자동문회 간사장으로 수고한 모교 盧宗善(전자공학77-81)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南〉

보건대학원동창회 金旻永회장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해 12월 보건대학원동창회 새 회장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金旻永(보대원72-74)원장이 선출됐다. 지난해 동창회는 설립 50주년을 맞이했다. 올 3월에는 보건대학원이 관악캠퍼스로 이전한다. 새로운 반세기를 열어가길 金旻永회장에게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21일 과천 주암동 보건환경연구원에서 金 회장을 만났다.

— 중요한 시기에 선출됐는데.

“어깨가 무겁습니다.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요. 보대원이 이전함에 따라 발전기금 등 동문들의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새로운 반세기의 첫 단추를 잘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동창회 소개를.

“지난 1959년에 설립됐으며 우리나라

보건 분야를 선도해가는 5천여 명의 인재들이 모인 곳입니다. 동창회는 그동안 유대강화를 위해 매년 정기모임을 갖고 있으며 골프·등산 등의 동호회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장학사업, 강연회·연구발표회 지원, 회보 발간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 신진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 사업 등도 새롭게 해보려고요. 회원명부 업데이트, 회보 발간 사업도 이어가야겠죠. 회원수가 어느 정도 된 만큼 회관 건립에 대한 논의도 시작돼야 하지 않나 싶어요.”

— 동문들에게 한 말씀.

“모교가 보건학의

“발전기금 모금에 박차 가하겠다”

— 활성화 계획은.

“조직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고, 관악캠퍼스 이전을 기념해 발전기금을 모으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또 재학생 해외연수

명실상부한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만의 이익이 아닌 더 큰 ‘우리’를 위한 일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 보건 분야 발전을 위

한 기금 형성, 공익을 위한 무료특강 인재풀 구성, 보건 분야 인재육성 재단설립도 구상 중이니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金旻永회장은 모교에서 서울시 대기 중 금속 농도 관련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후 단국대에서 수은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대기전문가이다. 1971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입사해 지난 2005년 11대 원장에 취임했다. 서울시 공무원 중에는 이례적으로 정년퇴임 후 다시 12대 원장으로 선임됐다. 대외적으로 한국 대기환경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환경보건학회 회장, 대한보건협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그동안 SCI급 논문 25편을 발표하는 등 과학자로도 뛰어난 성과를 보여 2002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부인과 사이에 1남2녀를 두었으며 명상, 정원 가꾸기 등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FIP동창회 咸光鮮회장
(RSI테크놀로지 대표)

미래정보기술융합과정 (FIP)동창회는 지난해 12월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RSI테크놀로지 咸光鮮(전문75-79·5기)대표를 선출했다. 동창회장 선거에서는 이례적으로 3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여 85%의 지지를 받은 咸光鮮대표가 당선됐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咸 회장을 만나 소감 및 계획을 들어봤다.

— 투표로 선출돼 의미가 남다를 텐데.

“친목단체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투표를 하게 됐어요. 1기, 4기 선배님 그리고 제가 후보로 나와 투표를 하게 됐죠. 수석부회장이란 타이틀이 있어서인지 많은 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셨어



야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분들의 열정이겠죠. 이를 영어 약자로 표현해 봤는데 F(fun), I(interest), P(passion)로 과정이름과 똑같죠. 동창회의 기본 덕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 마지막으로 동문들에게.

“나 가면 뭘 하나’하고 귀찮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시면 재미있고 뜻깊은 만



해양정책과정 (AMPP)동창회는 지난해 12월 총회에서 제6대 회장으로 KDA 鄭鍾守(5기)한국지사장을 선출했다. 7년만에 새롭게 뽑힌 회장이라 회원들의 기대가 크다. 서울시청 인근 효덕빌딩 11층 사무실에서 鄭 회장을 만나 포부를 들어봤다.

— 7년만의 교체인데.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AMPP동창회 鄭鍾守회장
(KDA 한국지사장)

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골프, 등산 동호회 등을 조직해 운동을 통한 친목 모임을 활성화해 나가려고요. 또 몇몇 친해진 기수들을 독려해 모임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겠죠. 미래의 회원이 될 과정생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 입학식, 수료식, 졸업여행 등의 주요행사에는 임원 모두가 참석하도록 할 생각이고요.”

— 임원진 구성은 됐는지.

“사무총장은 박도욱(9기)원우, 수석부회장은 지난해까지 사무총장으로 수고한 신희백(5기)원우를 선임했습니다. 감사는 김종화(10기)원우가 수고해 주기로 했고요. 수석부회장 등과 일을 분담해서 회장이 공식 시에도 사업이 무리 없이 진

“재미와 열정을 기본 덕목으로”

요. 동창회 명칭이 iIP에서 FIP로 변경되기까지 오랜 휴지기가 있어 결속력이 약했는데 iIP로 수료한 1~4기 선배님들과 FIP로 수료한 5, 6기 회원들의 고른 지지를 받았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어요.”

— 활성화 계획은.

“우선 1~6기까지 조직 구성을 다져야 할 것 같아요. 각 기수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돼야 전체 모임도 원활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FIP와 iIP가 하나라는, 정체성 확립이 중요할 것 같아요. 모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고요. 회원 가운데 지식 욕구가 강한 분들이 많아요. 다양한 분야의 모교 교수님들을 초청해 세미나, 워크숍 등을 자주 가질 계획입니다.”

— 친목단체에서 중요한 덕목이라면.

“우선 모임이 재미가 있어야 해요. 또 서로의 관심을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이 돼

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동창회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문 자신도 많은 혜택을 받을 거라 믿습니다.”

1957년 서울 출생인 咸光鮮회장은 경기고와 모교 천문학과 졸업 후 한국 IBM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IBM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마케팅담당 이사, LG CNS에서 영업본부장을 거쳐 국내 최초 사이버교육시스템 회사인 미래넷을 창업하며 경영 일선에 뛰어들었다. 이후 콘텐츠 관리회사인 유니온앤씨에도 설립했으며(현대주주), 지난해 3월부터는 금융관련 소프트웨어 회사인 RSI테크놀로지를 세워 대표로 활동 중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외이사를 역임했고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기획단 위원을 맡고 있다. 서강대 MBA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부인과 사이에 유학 중인 두 아들을 두었다.

“동호회 통한 화합·친목 독려”

“그동안 南正明(1기)회장께서 고생이 많으셨어요. 계속 맡는 것은 동문들 보기에 좋지 않다며 2기에서 회장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치셨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요. 2기 회장이었던 제가 맡기로 했죠. 어떻게 하면 원우들과 친교를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입니다.”

— 동창회 소개를.

“2002년 1월 창립해 현재 10기까지 2백4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해군 장성급, 국토해양부 고위직 인사, 수산업 및 일반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해양 관련 최고위과정이라 회원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높아요. 전체 동창회 차원에서는 자주 모이지 못하지만 기별 모임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친목단체는 자주 만나야 발전이 있습

행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 동문들에게 한 말씀.

“평소 지론이 ‘남한테 욕을 들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회장을 하면서도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없도록 겸손하게 그러나 열정을 갖고 해나갈 생각입니다. 모임 있을 때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950년 경남 고성 출생인 鄭鍾守회장은 부산 동아고 졸업 후 해군사관학교 27기로 입학해 30년간 군 생활을 하며 지난 1999년 해군 통신감(대령)으로 예편했다. 현재 한국지사장을 맡고 있는 KDA(KONGSBERG DEFENCE&AEROSPACE)는 노르웨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방산 업체이다. 鄭회장은 우리나라 및 동남아 국가에 군함, 잠수함 등에 사용되는 전투시스템, 무기 등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부인과 사이에 남매를 두고 있으며 취미로 골프를 즐긴다. (南)

과학기술계 다양한 목소리 전달하는 코디네이터

등분을 찾아서

李賢九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李賢九(화학공학58-62) 원장을 지난 1월 20일 저 멀리 청와대가 내다보이는 한국언론재단 한국기자클럽에서 만났다.

지난 12월 27일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UAE(아랍에미리트)에 총 4백억 달러(47조원) 규모의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4개 건설·운영사업을 수주하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李원장의 행보 역시 빨라졌다. 대통령에게 수시로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빠짐없이 전달해야되기 때문이다.

대담 : 李容式논설위원(문화일보 논설위원)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과 과학기술특별보좌관 일을 동시에 하시느라 바쁘시겠어요.

“한림원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보좌관 일은 대통령께 건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이라서 요즘에는 청와대로 매일 출근해 업무량을 소화하느라 조금 바쁩니다(웃음).”

－ 2007년부터 한림원 원장을 맡고 계신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1994년 설립된 국가 최고 과학기술인들이 모인 민간 학술단체입니다. 이학, 공학, 농수산학부, 의학학부, 정책학부로 나뉘서 약 5백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부문별 전문성을 활용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연구와 자문사업을 비롯해 기초과학진흥사업, 국제교류증진사업,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사업, 젊은과학자상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상을 시상하는 일을 하고 있죠.”

－ 1월 28일부터 스웨덴왕립과학한림원과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스웨덴한림원에서 물리·화학·경제학 노벨상을, 생리의학상은 스웨덴의 카롤린의학연구소에서 심사하고 있어 이를 염두에 두고 일년에 한 번씩 교대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경과학을 주제로 카롤린의학연구소에서 교수 3명, 우리나라에선 KIST 申喜燮신경과학센터장, 모교 약리학교실 徐維憲교수 등 9명이 참석합니다. 미국 과학한림원과의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구요.”

－ 젊은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많이 진출하기 위한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학술진흥 사업으로 노벨상 수상자를 초청해 강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원 중 외국인을 1백명까지 모실 수 있는데, 현재 66명이 계십니다. 이 중에 37명이 노벨상 수상자들입니다. 이런 석학들의 강의를 듣기 위해 과학고 학생과 일반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또 준회원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40대의 젊은 학자들이 주로 건의하는 게 한림원 각 분야간에 보이지 않

는 벽이 있어서 교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를 허물기 위해 모든 분야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자주 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특보로서 하는 일을 설명해주신다면.

“과학기술 전 분야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건의를 통해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현안들이 과학기술과 관련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해야합니다. 또 과학기술계 인사들과 기관 단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대통령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에요. 이때가 가장 좋은 기회죠. 대통령께서 현장에 나가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자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요즘 과학기술계 분들의 가장 큰 불만은 무엇입니까.

“대덕연구단지나 서울의 KIST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들의 불만이 가장 크죠. 90년대 이후 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제도(Project Based-System)가 도입되면서 연구원이라 할지라도 외부에서 연구과제를 받아서 연구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급여의 많은 부분이 연구과제비에서 나옵니다. 또 하나는 대학교수의 정년이 65세인데 반

과학기술특보로 대통령 자문역할 겸해

“원자력 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력 쌓아”

께 전달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 중 하나죠.”

－ 통합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 분야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도 있었는데, 요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교육부의 초·중·고등학교는 각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입시부분은 대학교육협의회가 담당하게 되면 과학기술부가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실제로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교육사안은 거의 매일 일어나는 반면 과학기술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밀리는 경향이 있죠. 원점으로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어 과거 과학기술부가 총괄하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체제를 바꾸고 행정조직을 갖춰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은 자주 뵈나요.

“청와대에서 직접 찾아보는 건 어렵고요. 주로 지방에 행사가 있을 때 KTX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열차 안에서 한 두 시간

해 연구원은 61세까지입니다. 게다가 연금도 못 받아요. 이러한 여건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연구소로 오지 않고 대학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초기에는 출연연과 기업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져 산업기술이 크게 발달했는데 최근 들어 침체분위기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투자대비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조조정이 다, 조직을 개편한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에 좋은 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보는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 일까요.

“무엇보다 우리의 고유한 원천기술을 많이 개발해야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초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 기초연구도 정부지원이 필요하겠죠.

“盧武鉉정부 때부터 연구비가 굉장히 늘

어났습니다. 현 정부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2012년까지 GDP의 5%를 기초연구 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중 절반을 원천기술 개발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구비가 5천억원에서 올해 6천5백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예산을 30% 인상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죠. 앞으로 신진학자와 여성과학자들도 많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 중점적으로 키워나가야 할 과학기술 분야를 말씀해 주신다면.

“70년대 중화학 공업시대를 거치면서 포스코 같은 재료산업이 크게 성장했고 뒤이어 기계 및 조선공업이 발달했습니다. 90년대부터 IT강국으로 성장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됐는데, 그 발판을 마련해준 것이 제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앞으로도 절대 포기하면 안되는 분야입니다. 또 전기자동차산업에서 LG화학과 삼성SDI가 2차전지 시장을 세계에서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하고요.

반면에 우리가 약한 분야는 소재산업입니다. 2차전지 기술은 세계최고인데 재료의 상당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소재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또 한국위성인 나로호가 1차 궤도진입에는 실패했지만 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줬고,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주항공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원자력 분야는 어떻습니까.

“이 분야에서 우리는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뛰어난 안정성을 바탕으로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연구한 결과 사상 최대의 해외수주인 UAE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엔 요르단과 수출협약을 맺은 연구용 원자로를 우리고유의 모듈로 개발했습니다. 또 송배전이 어려운 사막지대의 나라에 적합한 해수담수화가 가능한 중소형 원전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관련학과에 대한 특성화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자체 처리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미국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선진국 진입을 위해 국민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과학기술은 이미 선진국 수준인데 과학의 생활화, 국민의 과학화가 아직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원에서 일반인도 세계 석학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개인, 조직, 대학간 소통이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분야와의 소통 없이는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소통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도층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국민의 의식이 근본적으로 바뀌



“원천기술 많이 개발하고 기초교육 강화해야”

☑ 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위만 쳐다보며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하향식 마인드로 살아오지 않았나 싶어요. 연구개발 정책도 정부가 다 결정해서 아래로 전달되는 식으로 이뤄지잖아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줄 테니 참여하라는 것보다는 예산을 줄 테니 좋은 프로젝트를 한 번 만들어보라고 해야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기부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자연스럽게 기부문화가 싹터야 하는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미국은 민간이 주도하는 싱크탱크를 통해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게 너무 약해요. KDI와 KIST가 있지만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원래 가지고 있는 역량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향식이 아닌 아래에서부터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개발해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민주사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 이공계 졸업자들이 대기업 다니다가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복안이 있을까요.

“현재 4년제 대학이 2백 개나 되고, 전문대도 1백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교 졸업생 중 85%가 대학에 진학한다고 하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진학률을 가진 나라입니다. 문제는 졸업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이미 포화상태인데다 일반적으로 지방이나 중소기업에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올해부터 인문계 졸업생이 일정기간 기술교육을 받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일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의 연구요원을 채용하면 3년간 정부가 인건비의 70%를 대주고 기업이 30% 내도록 해서 연구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중국, 일본에서는 후진타오 주석, 하토야마 총리 등 국가 최고지도자를 비롯해 많은 정부 요직에 과학기술을 전공한 분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이과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대통령도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활동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기후변화, 녹색성장이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일본의 이공계 출신 지도자들의 경력을 보면 대학졸업 후 사회 여러 분야에서 실무적인 경험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공계 졸업생들은 대부분 그 분야에서만 활동하잖아요. 다양한 경력을 갖춰야 이공계 인력이 폭넓은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세종시에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도시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생기면 많은 석학들과 포스닥 학생들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도시들도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어서 국가발전에 큰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소통을 잘해야 융합도 잘할 수 있어요”

모교서 31년 재직·최장수 보직 맡기도

— 개인적인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모교 명예교수이신데, 행정업무도 오래 하신 것으로 압니다. 보람됐던 일을 소개해 주신다면.

“저는 교수의 직무는 첫째 교육, 그 다음에 연구, 마지막으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꿈이 학자가 되는 것이었고, 미국유학시절에도 교수님들의 강의와 학덕에 감동 받아 모교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70년대 초반에 와서 참 정열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4과목을 가르치면서도 힘든 줄 몰랐거든요. 특히 대학원에 수학강의를 개설해 여러 학과의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교수가 된 제자들이 찾아오면 그때 제 강의내용을 지금도 참고해서 가르친다고 말해요. 굉장한 보람을 느끼죠.

연구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론적인 응용수학 분야를 연구했는데 국내에 와보니 그런 것만 가르쳐서는 학생들의 진로에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화학산업에 중요한 촉매 분야를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중반쯤 고분자 분야가 보편화되면서 좋은 품질을 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좋은 품질을 내기 위해선 고분자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아주 엄밀한

제어를 해줘야 하는데 이 역시 생소한 분야라서 열심히 연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 프로세스 공정 제어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좋은 논문을 많이 낼 수 있었습니다. 봉사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교수 가운데 교무처 행정업무를 가장 오래한 사람일 겁니다. 6년8개월을 했으니까요. 그때 졸업 정원제라고 입학정원의 130%를 뽑아서 2년 내에 30%를 내보내야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교무처장 시절에 한창 시행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난리도 아니었죠. 다행히 교수와 학생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서 슬기롭게 해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무처장이 되니깐 이번엔 민주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대학을 나갔던 학생들이 복학하게

“현실적응을 잘했다고 할까요? 군 생활도 사병으로 열심히 복무했고, 어느 곳에 가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 후학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자기계발을 해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한 분야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두루두루 소양을 기르고 글로벌시대에 필요한 국제 감각을 익혀야 됩니다.

제가 국제회의에 참석해 보면 한국사람들은 발표는 잘하는데 사람들과 대화할 때 화젯거리가 궁색해요. 외국인과 섞이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몰려다니죠. 그렇게 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기 힘들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문화생활도 충분히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자로서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과학기술 하면 R&D인데, 인재양성과 연구개발이 접목되면 엄청난 상승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교인 서울대가 앞장서서 그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말로는 융합이다, 통섭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지 않잖아요. 전기자동차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기계공학 분야가 주도했지만 지금은 IT와 화학이 접목되고 고객만족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원전사업도 소재, 전기, 핵연료, 공급처리 분야를 복합적으로 다루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다 수출까지 하게 되면 외교 안보문제도 고려돼야 하고요.

진정한 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범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소통을 잘 하면 융합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재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소통을 잘 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교가 나서서 이에 대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와 재학생들의 의지 그리고 동문들의 지원이 하나로 모인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 李賢九원장은

62년 모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해 68년 미네소타대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73년부터 2004년까지 모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로 봉직했다. 지난 8월 31일부터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는李원장은 한국과학재단 우수연구센터 평가단 화학·화공분과위원장,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운영위원장, 제어·자동차·시스템공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민국학술원상,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덕명공학상, 한국화학공학회 학술상 및 공로상 등을 수상했으며, 국민훈장 석류장과 옥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정리= 表智媛기자·사진= 金南柱기자)

됐는데, 성적이 안 좋아서 나갔다가 들어온 학생과 형무소에 들어갔다 나온 학생도 포함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경청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교육과 연구, 봉사를 균형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건강은 어떻게 유지하세요.

“특별히 하는 운동은 없고, 교수시절 동료 교수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에 산행을 다녔는데 지금까지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되도록 많이 걷고 뜰 때마다 맨손체조를 합니다. 무엇보다 규칙적이고 절제 있는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 가운데 동문이 여럿 있으시죠.

“저희가 6형제인데 5명이 서울대를 졸업했고, 사촌과 조카들 중에서도 모교 출신이 4~5명됩니다. 딸 宗胤(경영93-97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이와 사위 宋昌炫(사법88-93 변호사)도 동문이고요.”

— 좋은 말씀만 해주셨는데, 인생에서 힘들었던 적은 없으세요.

“글쎄요, 특별히 힘들었던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 굉장히 낙천적으로 사신 것 같습니다.

가입 60주년 맞아 세계적 행사 유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이하 유네스코 한위)를 이끌고 있는 田宅秀(사회교육71-78)사무총장은 요즘 ‘눈 코 뜰새 없이’ 바쁘다. 우리나라가 유네스코(UNESCO: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 가입한 지 60주년 되는 해라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다. 기념행사를 비롯해 제2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5월 25~28일 서울 코엑스), 유네스코 아태지역 총회(5월 21~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를 개최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서울시와 인천시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팔만대장경 1천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아프리카 청년 전문가 양성사업, 지속가능발전교육 사업, 동아시아 역사화해 포럼 등 신경써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이 가운데 田동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은 아프리카 청년 전문가 양성사업이다. 이 일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삼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장기 미션이다. 사업 목적은 아프리카의 문맹률을 낮추고 아프리카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

아프리카 문맹퇴치에 앞장서

낙후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문맹 퇴치다. 해방 후 문맹률이 80% 달했던 우리나라가 지난해 1.7%로 떨어졌다. 이렇게 급속도로 문맹률이 떨어진 데는 대학생들의 야학, 농촌 봉사활동 등의 역할이 컸다.

이런 체험을 아프리카 대학생들에게 전수하자는 것이다. 올 하반기부터 40명의 대학생들을 선발해 4개 나라에 10명씩 보낼 계획이다. 이들은 현지 대학생들과 협력을 통해 2년간 문맹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2년은 그 지역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이 사업이 정착되면 숫자를 4백명 규모로 늘릴 생각이다.

田동문은 “이 일이야말로 유네스코의 교육 문화를 통한 인류 평화 증진이라는 기본 이념을 가장 잘 구현하는 사업”이라며 큰 기대를 걸고있다.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할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앞으로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점차 커질 텐데 그 때 우리가 키운 지역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가교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지원하는 청년들도 단순히 봉사했다는 경험만 얻는 게 아니라 지역전문가로 성장하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관심 갖자”

田동문이 두 번째로 관심을 쏟는 분야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하 ESD). 후손에게 깨끗한 지구를 넘겨주기 위해 우리는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하는가. 이 일은 유네스코 본부가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해 집중하고 있는 분야다. 2002년 제5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지속가능발전 10개년 계획(2005~2014년)’을 지정하고 ESD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와 회원국 정부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이 틀 안에서 선진국들은 교육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렇다할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산발적으로 언론 매체를 통한 캠페인만 진행되는 상황이다.

“선진국은 ESD위원회를 대통령, 수상 산하에 두고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급한 대로 우리가 각 분야의 전문가 15명을 위촉해 ‘유네스코 ESD한국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후반기 전략 로드맵을 도출하고 유엔에 제출할 제2차 국



가별 이행 현황 보고를 위해 국내 ESD 기초 현황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독일의 제도를 참조해 국내 우수기관을 인증·지원하는 제도 신설을 검토 중입니다.”

田동문이 유네스코 한위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08년 12월. 사회교육을 전공하고 문화경제학자였던 그에게 ‘딱’인 자리였다.

유네스코 한위에 들어온 지 1년3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열정과 애정은 최고다.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이나 지정하는 곳인 정도로만 인식했던 그가 지금은 “앞으로는 유네스코가 유엔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강한 자부심을 나타냈다.

“유엔은 정치·경제·군사면에서의 갈등을 줄여 평화를 달성하지만 유네스코는 그 밖에 문화적인 영역의 교류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는 역할을 하죠. 이게 결국은 21세기 지향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는 교육·문화·과학·정보통신 등이 선진국으로

가는 데 중요한 팩트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田동문은 오는 5월 열리는 제2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번 대회에서 ‘서울선언문’을 마련해 21세기에 걸맞은 획기적 예술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이다. 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성이 전 분야에 접목되면 엄청난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창의성입니다. 21세기는 자본, 기술보다 사람의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박물관, 전시관의 예술작품 등을 접하고 생기는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공학, 문학, 인문학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접목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발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한위의 이런 활동이 궁극적으로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田동문은 1971년 용산고를 졸업하고 모교 사대 사회교육과에 입학했다. 군 제대 후 경제학에 흥미를 느껴 모교 대학원에서 경제학(금융정책)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뉴욕주립대에서 동양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부산수산대를 거쳐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로 부임했다.

문화경제 관련 논문 다수 펴내

한국경제교육학회 및 한국문화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문화재단 이사로 활동 중이다. 지식정보사회와 과학기술의 발전, 청년실업 해소와 교육문화의 역할, 문화의 세기, 한국의 문화정책 등 다수의 논문과 책을 집필했다.

유네스코 한위는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회원국 가입 4년 뒤인 1954년 1월 30일 모교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발족했다. 냉전체제 하에서 유엔에 가입할 수 없었던 당시 유일하게 국제사회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했으며 교과서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 현재 서울 명동 한복판에 건물이 있으며 직원은 80여 명. 이 가운데 20% 정도가 동문이다. (南)

인천 청라에 복합연구단지 조성

KAIST와 공동으로 추진

모교 소식

모교(총장 李長茂)는 한국과학

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복합연구단지인 ‘국제 BIT Port’ 조성사업(기획단장 朱鍾南)을 추진한다. 이번 조성사업은 BT·IT의 융합

연구 분야와 차세대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사업비 3천억원, 39만㎡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2006년 9월부터 계획된 이번 사업은 지난 2009년 12월 국회 예산 통과로 공식적인 추진기반이 확고해졌다.

2014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연구단지는 인체와 과학기술이 하나

가 돼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장애극복 바이오 헬스칩, 로봇, 지능형 생체소재 등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연구소에는 10여 개의 BT·IT 분야 연구개발센터와 전문대학원 교육과정도 설치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인천광역시 등과 협조해 추진을 시작하는 연구단지에는 연구 개발성

과를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국제산업화시설도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기초과학기술 연구는 모교와 KAIST 본교에서, 응용기술연구와 산업화는 ‘국제 BIT Port’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모교는 이번 연구단지 건립을 통해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학생 3명 중 1명은 자원봉사

교육·의료·집짓기 활동 등 다양

모교가 지난 2009년 자원봉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재학생 3명 중 1명은 한 가지 이상의 자원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현황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조사결과 학부생(1만5천9백86명)의 35.5%인 5천6백86명이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의 수혜자는 1만3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자원봉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교육’으로 3천6백80명이 저소득층 자녀나 오지 등 소외지역의 초·중·고교생을 찾아 학습 지도를 했다. (사진)

저소득층이나 노약자, 농민 등을 상대로 한 의료봉사에는 5백52

명, 장애인시설 봉사활동에는 3백49명이 참여했으며 외국인근로자·결혼 이주여성 등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봉사에도 1백74명이 동참했다.

이밖에 강원 태백의 무주택 시민을 위한 집짓기 활동과 노인 요양시설 봉사활동, 농활 등에도 상당수가 손을 보았다.

張在盛학생처장은 “서울대생은 이기적이라는 편견과 달리 요즘 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 열기는 놀라울 정도”라며 “학생들이 봉사와 사랑, 나눔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삶의 목표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교 학생처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정리해 3월쯤 ‘서울대생 봉사활동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업체와 협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 崔陽熙 이하 융기원)은 지난 1월 7일 경기도 수원 융기원 16층 대회의실에서 국내를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센트랄(대표 姜泰龍)과 In-Wheel 구동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崔陽熙원장, 田憲秀부원장을 비롯해 양측 주요 임원과 연구진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융기원과 센트랄은 향후 친환경 전기자동차용 ‘Multi-speed In-Wheel’ 구동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세계 자동차업체의 최대 관심사항인 In-Wheel 구동 시스템은 전기 모터가 차륜의 휠 안쪽에 장착돼 구동력을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미래 자동차산업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崔陽熙원장은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30년 넘게 자동차 핵심보안 부품을 제작해 온 센트랄과 협력 관계를 맺어 기쁘다”며 “앞으로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적극 협조해 공동연구를 위한 인프라를 더욱 확대하는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융기원은 지난 2008년 3월 모교가 경기도와 함께 미래 산업 수요에 대한 우리나라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설립됐다.

의대 徐維憲교수팀

치매 유발 유전자 발견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徐維憲(의학67-73)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치매를 유발하는 새로운 유전자를 발견했다.



이번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安秉萬 행정60-64)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朴贊謨 화학공학54-58)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치매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열었다.

연구팀은 치매가 생기도록 형질 조작한 실험용 생쥐의 뇌 조직에서 비정상적으로 S100a9 유전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 유전자가 치매 환자의 뇌에서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때 S100a9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SiRNA를 처치하면 치매 발병 가능성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徐교수는 “S100a9 억제 물질이 치매 발병을 저해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이를 응용한 새로운 치매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열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공대 朴炳國교수팀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朴炳國(전자공학82졸) 교수(사진) 연구팀이 휴대



전화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반도체(플래시 메모리) 원천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연구팀은 테라급 나노소자개발사업단(단장 李兆遠)의 지원을 받아 노어(NOR) 플래시 메모리의 단점인 집적도와 용량·정보기록 효율성을 높인 ‘원뿔구조 NOR 플래시 소자’ 개발에 성공했다.

회로를 세로로 세우면서 전자의 이동도 빨라져 반응 속도 또한 10배 이상 향상됐다. 전화번호 저장량이 6배나 늘어날 뿐 아니라, 번호 검색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朴교수는 “새로운 기능을 기존 반도체 공정에 적용시키는 과제가 남았다”며 “5년 정도면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辛鉉雄이사장·李長茂총장·洪俊基대표

‘웅진 글로벌 장학기금’ 조성

저개발국 우수 유학생 지원

모교는 지난 1월 26일 관악캠퍼스 본관 총장실에서 웅진재단(이사장 辛鉉雄 본회 부회장)·웅진코웨이(대표 洪俊基)와 ‘서울대학교 웅진 글로벌 다문화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기금은 모교에 아시아 우수 학생 유치와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공 분야의 뛰어난 학생들에게 모교에서의 유학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웅진 글로벌 다문화 장학기금은 매년 1억원씩 향후 5년간 총 5억원이 지원되며 모교 교환학생으로 오는 아시아 우수 대학 출신의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웅진코웨이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임사지원 시 특전을 부여해 해외 우수인재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洪俊基대표는 “경제적으로 한 국유학이 어려운 우수한 인재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학금 지원을 결정했다”며 “당사의 해외사업이 본격화된 만큼 해외 우수인력 확보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교는 해외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이번에 시작하는 ‘웅진 글로벌 다문화 장학기금’을 비롯해 실크로드 인접 개도국 출신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실크로드 장학기금’, OECD 후원국 출신 학부생을 지원하는 ‘Glo-Harmony Scholarship’ 등 다양한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과대학

미래 컴퓨터 꿈나무 캠프 개최

공과대학(학장 姜泰晉)은 지난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2010 미래 컴퓨터 꿈나무 캠프’를 개최했다.

겨울방학을 맞아 중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는 컴퓨터공학부가 주최했으며 신공학과 컴퓨터공학부 실습실에서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이론 강의를 비롯해 대학원생 자원봉사자와 함께 로봇 프로그래밍 조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습 위주의

교육을 받았다.

이밖에도 컴퓨터공학부 교수의 특별강연, 시설투어, 연구실 탐방 등 다양한 시간을 통해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고 컴퓨터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과대학은 방학 중에 중·고등 학생들이 과학연구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여름에는 국제 청소년 과학캠프를 개최할 예정이다. (榮)

장학생 멘토링 봉사사업 위해 발전기금 사회봉사센터 설립

모교 발전기금(이사장 李長茂)은 오는 1학기부터 본부 직속기구인 사회봉사센터를 설립한다.

이번에 새롭게 진행되는 장학생 멘토링 봉사사업을 위해 설립된 사회봉사센터는 기존 장학생들에게 봉사 멘토링 장학생을 모집하는 메일을 발송해 5백여 명의 재학생들을 선발했다.

그동안 모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고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SNU 멘토링, 새싹 멘토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3월부터 장학생 멘토링 봉사를 추가로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최첨단 멀티미디어 플레이어(PMP) 시스템을 도입해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어려운 가정형편에 있는 멘티 중·고등학생들을 상담해 주고 학업지도도 병행해 준다는 점이다.

사회봉사센터는 2천여 명의 중·고등학생을 멘티로 선발하고 첨단기기 및 교육방송 등에 필요

한 학습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멘토로 선발된 재학생들은 멘토링 횟수와 멘티 수에 따라 기본 등록금으로 책정된 장학금에 추가로 1백50만원에서 3백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사업을 유지하고 멘토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금은 미래새싹재단 金鮮東(화학공학59-63)이사장이 출연한 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발전기금은 초기비용은 金鮮東 이사장의 개인기부로 마련했으나 사회봉사센터가 보다 지속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동문들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南益鉉발전기금 상임이사는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올바르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선사하는 좋은 사업을 뒷받침해줄 동문과 개인 기부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며 “발전기금으로 연락을 주시면 사업 소개와 기부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재학생의 소리



베토벤 소나타 23번의 부제인 Appassionata는 ‘열정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사에 열정을 담고자 노력하는 서울대 피아노 동아리 SNUPIA의 5대 회장입니다.

제가 Appassionata라는 단어에 각별한 애착을 가지는 이유는 작게는 제가 베토벤 소나타 23번 열정 3악장을 들고 SNUPIA의 정기연주회 무대에 올랐기 때문이고, 크게는 저를 구성하는 많은 부분에 열정이라는 단어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SNUPIA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SNUPIA는 SNU + Piano의 약자로 서울대 피아노 동아리를 뜻합니다.

SNUPIA에서는 매년 3월, 9월에 정기연주회를 문화관 중강당에서 개최하며 아마추어로서 프로 못지 않은 열정을 뽐냅니다. 또한 동아리 내부 행사로서, 홀을 대관해 테마가 있는 소연주회(4hands 연주회 등)를

“피아노동아리에 관심 보내주세요”

가집니다. 평소에는 매주 주제를 잡아 음악공부도 할 겸 감상모임을 진행합니다. 또한 피아노가 있는 펜션으로 MT를 가고 피아노가 있는 이색 일일호프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회원 5백12명에 정회



원 1백50명의 거대한 중앙동아리의 회장직을 감히 맡으며 저는 지난날의 막연하고 치기어린 열정을 조금 더 성숙시킬 수 있었습니다. 임원진을 구성해서 일을 조직하고 실현시키는 것, 동아리방(SNUPIA는 그 규모와 위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아리방이 없습니다)을 얻기 위해 공간조정회의와 동아리연합회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 단체와 단체의 일을 조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선배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주시는 서울대동창회보에 SNUPIA를 알릴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러나 SNUPIA뿐만 아니라 여러 공연

朴俊厚

(외교08입) SNUPIA 회장

예술동아리들은 아무래도 학생 자치 문화활동인 만큼 그 규모와 문화적 역량에 비해 금전, 설비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SNUPIA로서는 연습공간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자치 문화활동을 꽃피울 수 있도록 선배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을 보내주신다면 더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모교 첫 전속변호사에 羅智元동문

모교는 최근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모교 전속변호사에 羅智元변호사(사진)를 임명했다.

羅변호사는 모교 사회복지학과에 1993년 입학해 1998년 졸업, 2005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모교는 학내에 법률 서비스가 증가하고 관련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법학연구소 법률자문실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기획처 산하에 법무팀을 신설했다.

羅변호사는 임기 2년으로 대학 운영·관리와 연관된 각종 법규의 해석과 지문, 모교와 관련된 소송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榮〉

50억 이상 출연자에게 거주형 캠퍼스 헌정합니다

모교 발전기금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집중 캠페인 ‘VISION202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핵심 모금 사업’에 50억 이상을 출연한 기부자 7명을 선정해 7월 완공 예정인 신축형 기숙사 7개동에 각각 기부자 명의로 기숙사 1개동을 명명해 드립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헌정대상** : 2010년 6월까지 ‘핵심 모금 사업’ 50억원 이상 출연자
- ◆**헌정내용** : 기부자의 아호 또는 희망명칭으로 기숙사 1개동에 명명 (ex. ○○○홀)

- 해당 동 1층 로비에 기부자 부조와 공적 기록물 설치
- 2010년 캠퍼스 개관식과 함께 헌정식 거행

◆**관련문의** : 02)871-1620

※ 본 헌정 캠페인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 李長茂

공트 릴레이

뚝떨어지는 엉터리 계산*

朴正愛(신문학89-93)

강원대 스토리텔링학과 교수·소설가



권훈순은 공립중학교 수학교사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뚝떨어지는 수학의 세계를 좋아했다. 同性 친구들이 주워섬기는 아이돌그룹, 패션, 메이크업, 밀고 당기는 연애놀음에는 관심도 없었고 소질도 없었다.

부모가 공들여 주선한 몇 번의 맞선 자리에서는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변호사, 의사, 고급공무원 등 잘 나가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1+1=2’ 이외의 세계를 믿지 않는 담백한 성품의 그녀보다, 내숭 9단에 변덕이 죽 끓듯 하는 여자들을 더 좋아했다.

결국 지금의 남편 이두한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났다. 두한은 첫 만남에서부터 훈순의 호봉을 묻더니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는 훈순이 정년까지 벌어들일 수입의 총

해결하는 라이프스타일에 푹 젖어 있던 훈순은 매번 두한에게 혼이 났다.

“당신, 수학선생 맞아? 수학문제, 대충 대충 풀면 답이 나오나? 당신이 귀찮다고 이 쇼핑몰에서 대충 다 해결했을 경우, 총 2,785,210원이 들어. 하지만 그릇세트는 A타운에서, 주방가전세트는 B인터넷쇼핑몰에서, 냄비세트는 C상가에서 살 경우 총 2,456,970원밖에 안 들어. 차액이 328,240원이지. 하루 종일 땀을 과 봐. 328,240원이 나오나.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훈순의 결혼생활은 자기발견의 연속이었다. 훈순은 자신이 수학의 세계를 좋아하지만 타산적 사고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두한의 계산이 엉터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이를 위해,

“
훈순은 자신이
수학의 세계를 좋아하지만
타산적 사고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두한의 계산이
엉터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이를 위해,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쪽을 택했다.



일러스트레이션 金多海(서양화02-07) 동문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쪽을 택했다. 이를테면 두한은 가사를 거의 분담하지 않았다.

“어차피 당신이 당신 먹고 주형이 먹이기 위해서 밥하고 반찬 만들잖아. 거기다 밥한 공기만 더 퍼 놓아주면 돼. 그게 뭐가 어렵나? 내가 밖에서 사 먹어봐. 한 끼에 5,000원씩만 계산해도 하루에 15,000원, 한 달에 450,000원, 일년에 5,400,000원 이야. 당신이 당신하고 주형이 먹는 밥상에 밥 한 공기 더 퍼 놓는데 얼마 들까? 500원이라고 치자고. 하루에 1,500원, 한 달에 45,000원, 일 년에 540,000원이지. 차액이 무려 4,860,000원 이야. 당신은 당신하고 주형이 먹는 밥상에 밥 한 공기를 더 퍼 놓는 간단한 노동으로 일 년에 무려 4,860,000원을 저축하는 거라고. 대단하지 않아요?”

‘왜 나는 집에서 밥하고 당신은 밖에서 사먹는다고 전제하는 거지? 그게 증명할 필요도 없는 定理인가? 웃기지 마셔. 당신 계산은 전제가 틀려먹었거든.’ 하고, 훈순은 화장실에서 중얼거렸다.

두한은 청소와 다림질에도 마찬가지로 계산

법을 들이댔다. 육아에는 조금 다른 논리를 갖다 붙이긴 했다.

“비교우위라는 거 있지? 아이 키우기는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진 일 이야. 내가 주형이를 키우는 데 써야 하는 에너지의 절반만 쓰고도 당신은 주형이를 잘 돌볼 수 있어. 육아 스트레스?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두 배 많은 에너지를 쓰는 동시에 두 배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남자가 아이를 키운다는 건 결국 여자가 아이를 키울 때보다 네 배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당신이 주형이를 키우는 게 내가 주형이를 키우는 것보다 네 배 효율적이라는 말씀!”

훈순은 또한 자기가 왜 수학을 좋아했는지 알게 됐다. 그녀는 어려운 수학문제에 집중했을 때 두뇌가 느끼는 寂寥를 사랑했다. 두한은 수다쟁이는 아니었지만 말발로 누군가에게 지는 것을 참지 못했다. 그는 아내가 한 마디를 하면 두 마디를 하고 아내가 두 마디를 하면 네 마디를 하고 아내가 세 마디를 하면 아홉 마디를 했다. 훈순은 남편의 언어가 제 두뇌에 일으키는 소란스러움이 극도로 싫었다. 그래서 연쟁의 기미만 보여도 항복하고 말았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늘 먼저 항복한 결과, 훈순은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하면서 제 월급으로 살림을 꾸렸다. 온 가족의 보험료를 제 돈으로 내고 남편이 다니는 신용금고에 적금도 부었다. 남편 월급은 ‘당연히’ 남편

천 마리 벌떼가 웅웅거렸다. 훈순은 두 손을 들었다.

“알았어, 알았어. 안 같게. 안 같 테니까, 제발 좀 그만해.”

아들아이 주형은 훈순에게 自明하기 그지 없는, 자명하여 그 자체로 發光하는 公理였다. 주형이 잠든 모습을 바라볼 때, 훈순은 수학적 적오의 황홀감을 느끼곤 했다.

주형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부터 입만 열면 공부, 공부를 강조하던 두한은, 주형이 4학년으로 진급하자 ‘하교 후 매일 일곱 시간 공부 계획표’와 계산기를 주형이 턱 밑에 들이밀었다.

“초등 4학년 성적이 평생 성적을 결정한대. 지금 1시간 공부하면 나중에 10시간을 벌 수 있어. 오늘 7시간을 공부하면 나중에 70시간을 더 쓸 수 있는 거야. 1년은 365일이지만 명절이나 생일이니 해서 5일 정도는 빠질 테니까 360일로 치고 7시간 곱하기 360일은 2,520시간, 2,520시간 곱하기 10은 25,200시간이지. 너는 결국 올 1년 동안 매일 7시간씩 공부하는 것으로 나중에 커서 네 맘대로 쓸 수 있는 25,200시간을 저축하는 거야.”

주형의 두 눈이 화등잔처럼 둥그레졌다. “3시나 4시에 학교 마치고 집에 와서 7시간 공부하면 10시나 11시가 되겠네요. 저녁밥 먹는 시간 30분을 포함하면 10시 반이나 11시 반이 되고요. 그럼 놀 시간은 10분도 없는 건가요?”

두한이 테이블을 쿵, 내리쳤다. 주형이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이 녀석아. 지금 네가 10분 놀면 나중에 100분을 갚아야 해. 1년은 365일, 360일은 10분씩 늘렸지만 명절이나 생일에는 10시간, 즉 600분을 늘렸지. 고로 하루에 10분씩 360일이면 3,600분, 나머지 5일 곱하기 600분은 3,000분, 합해서 6,600분. 그 10배를 갚아야 하니까 66,000분. 66,000분은 1,100시간. 1,100을 24로 나누면 45.833333으로 뚝떨어지지 않으므로 반올림 하면 46일. 46일이면 대략 1달 반. 그러니까 너는 고작 10분 논 대가로 나중에 1달 반을 노예처럼 일해야 하는 거야.”

주형이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뚝, 뚝, 흘렸다. 남편이 훈순을 불렀다.

“당신, 이리 좀 와봐. 아이는 99% 엄마가 가르치는 거야. 당신이 지금 아이 수학을 하루 2시간 봐주면, 1년 중 360일을 공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훈순의 머리는 소란스럽다 못해 빠개지기 일보직전이었다. 훈순은 손짓으로 주형을 자기 방으로 돌려보내고는 이를 악물고 나지막이 으르렁거렸다.

“그 따위 엉터리 계산, 당장 집어치우지 못해?”

훈순이 안방으로 들어가자, 두한이 따라 들어왔다.

“엉터리? 남편이 지식 잘 가르치자고 하는 말을 두고 감히 엉터리? 좇도 모르는 게 까부는 거야, 지금?”

아내의 반항에 당황한 남편이 욕설 비슷한 음절을 뱉어냈다.

“모르면 뭐 어때서? 좇같은 거 알고 싶지도 않거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훈순의 뿌연 머릿속에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까맣게 잊고 있던 공식이 떠올랐을 때처럼.

* 미하엘 엔데의 소설 ‘모모’ 중에서 소재목 하나를 빌려온 것임을 밝힌다.

동 정

수 상

▲李在昌(법학56-60 前환경처 장관·새마을운동 중앙회장)= 지난 1월 15일 경북고동창회로부터 제19회 경북 동문대상 수상.

▲金裕恒(화학공학62-66 인하대 교수)= 지난 1월 18일 국내 화학 공학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고동창회로부터 자랑스러운 서울인상 수상.

▲孫 郁(기계공학63-67 농심 회장)= 지난 1월 25일 한국공학한림원 제6회 일진상(공학한림원 발전부문) 수상.

▲諸葛政雄(상학65-72 前대림학원 이사장·대림대 총장)= 최근 한국언론재단에서 올해의 자랑스러운 밑알인상 수상.

▲徐東喜(응용미술66-70 건국대 교수)= 지난 12월 12일 한국디자인협회의 전국대학생디자인 공모전에서 지도교수상 수상.

▲崔禎鎰(외교69-73 주독일 대사)= 지난 1월 21일 독일 대통령령에서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으로부터 대십자 공로훈장 수훈.

▲金斗熙(토목공학76-83 동아사이언스 대표)= 지난 1월 25일 한국공학한림원 제5회 해동상(공학기술문화확산부문) 수상.

▲諸成鎬(법학77-81 중앙대 교수·인권대사)= 지난 12월 29일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朴圭煥(물리78-82 고려대 교수)= 지난 1월 21일 한국광학회 총회에서 '올해의 성도 광과학상' 수상.

▲金重謙(AMP 64기 현대건설 사장)= 최근 한경비즈니스가 선정한 '2009 올해의 CEO' 비제조업 부문 대상 수상.

▲薛都元(SGS 21기 삼성테스코 홀플러스 전무)= 지난 1월 21일 제11회 자랑스런 연세 MBA인상 수상.

▲安承準(ALP 3기 삼성전자 전무)= 지난 1월 25일 한국공학한림원 제5회 해동상(공학교육혁신부문) 수상.

▲柳俊馨(법학51-66 前함경남도지사)= 지난 1월 15일 임기 4년의 제2대 誠齋 李東輝선생 기념사업회장에 취임.

▲金永烈(지질과학56-60 前한국일보 부사장·前서울경제신문 사장)= 최근 법률방송(COURT TV)

회장을 맡아 국민의 법질서 의식 향상과 법률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安武赫(대학원62졸 前국회의원·한국발전연구원 이사장)= 지난 1월 25일 제40대 황해도 중앙도민회장에 취임.

▲羅鍾一(정치59-63 우석대 총장)=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위원장에 위촉.

▲李千洙(법학61-65 前교육부 차관·대진대 총장)= 지난 1월 23일 임기 4년의 대진대 제6대 총장에 재선임.

▲朴聖炫(화학공학64-68 모교 통계학과 교수)= 지난 1월 1일 임기 2년의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에 선임.

▲崔明愛(간호66-70 모교 간호학과 교수·의학한림원 정회원)= 지난 1월 21일 한국간호과학회 총회에서 제22대 회장에 선임.

▲姜智遠(정치68-72 변호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지역분과위원장에 위촉.

▲洪性濟(전자공학69-73 포스텍

교수)= 지난 1월 1일 임기 2년의 한국연구재단 전자정보단장에 선임.

▲吳柱源(농업교육69-74 한남대 교수·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설계자문위원)= 지난 1월 26일 한남대 부총장에 선임.

▲李基秀(대학원70-72 고려대 총장·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지난 1월 27일 임기 2년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에 선출.

▲朴珍雨(산업공학70-74 모교 산업공학과 교수)= 지난 1월 8일 임기 2년의 한국경영과학회 제22대 회장에 선임.

▲具寬書(사회교육70-77 前EBS 사장)= 지난 1월 14일 임기 4년의 대구산업정보대 제12대 총장에 취임.

▲李源德(경영70-75 前한국노동연구원장·경원대 석좌 교수)=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계층분과위원장에 위촉.

▲鄭雲午(무역72-76 모교 경영학과 교수)= 지난 1월 16일 한국세무학회 총회에서 임기 1년의 회장에 선출.

▲鄭鎭星(사회72-76 모교 사회학과 교수)=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세대분과위원장에 위촉.

▲金聖在(경영72-76 한국외국어대 교수)= 지난 1월 25일 한국외국어대 서울캠퍼스 부총장에 선임.

▲許日燮(경영73-77 녹십자 회장)= 지난 1월 20일 재단법인 목암생명공학연구소 제2대 이사에 선임.

▲鄭寅億(경제73-77 前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원장)=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재선임.

또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

▲金富燦(법학74-78 제주대 교수·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 지난 1월 7일 대한국제법학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

▲李是衡(외교75-79 前외교통상부 본부대사)= 지난 1월 26일 대통령 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행사기획단장에 임명.

▲黃源春(경영75-79 산업은행 국제금융실장)= 지난 1월 15일 산업은행 국제금융본부장(부행장)에 선임.

▲盧承政(원자핵공학75-79 단국대 교수)= 지난 1월 1일 한국연구재단 학융합단장에 선임.

▲琴明子(간호76-80 대구대 심리학과 교수)= 지난 1월 20일 전국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협의회 제26대 회장에 선출.



▲金命振(조경78-84 국립환경과학원 생태평가과장)=최근 임기 2년의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회장에 선임.

▲李元基(경영79-83 前KB자산운용 사장)=지난 1월 21일 PCA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權文成(건축79-83 성균관대 교수)=오는 8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제12회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커미셔너에 선정.

▲李寬榮(화학공학79-83 고려대 교수)=지난 1월 1일 한국연구재단 화학화공소재단장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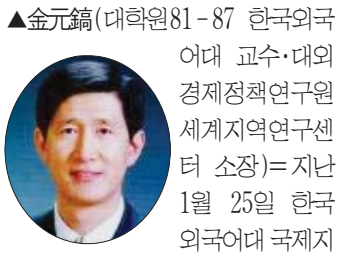


▲朴樂永(법학80-86 前아이스티 투자 대표·前한국개발리스 기획팀장)=지난 1월 20일 한국토지신탁대표이사 취임.

▲康元澤(지리81-85 송실대 교수)=지난 1월 28일 경희대에서 열린 한국정당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회장에 취임.



▲宋錫斗(영문81-87 前대전시기획관리실장)=지난 1월 26일 대통령 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운영총괄국장에 임명.



▲金元鎬(대학원81-87 한국외국어대 교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지난 1월 25일 한국외국어대 국제지

역대학원장에 선임.

▲朴大洙(계산통계83-87 KT사업협력팀장)=지난 1월 19일 KT 대전법인영업단장(상무)으로 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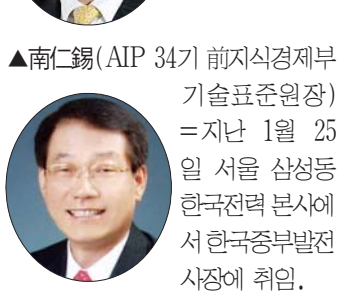
▲金允經(경제84-88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지난 1월 26일 대통령 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대변인에 임명.



▲鄭勝允(공법87-92 부산대 교수)=지난 1월 4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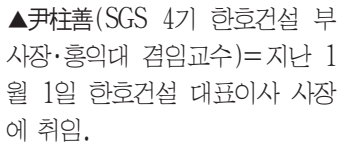
▲奇沃(AMP 40기 금호석유화학 사장)=지난 1월 12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락경영본부 사장에 선임.



▲南仁錫(AIP 34기 전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지난 1월 25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한국중부발전 사장에 취임.



▲邊俊淵(AIP 39기 한국전력 해외사업본부장)=지난 1월 22일 한국전력 아랍에미리트 사업총괄 부사장에 임명.



▲尹柱善(SGS 4기 한호건설 부사장·홍익대 겸임교수)=지난 1월 1일 한호건설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

▲김상백(HPM 11기 한국정신문화복지재단 이사장)=최근 임기 4년의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종무

조정실장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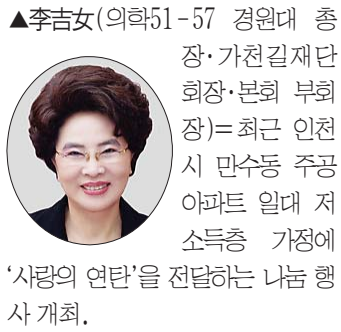
▲崔同珠(AFP 4기 현대아이파크물 사장)=지난 1월 19일 현대산업개발 사장에 선임.



▲尹廣林(ASP 10기 前제주은행장)=지난 1월 14일 미래II저축은행장 겸 미래금융그룹 부회장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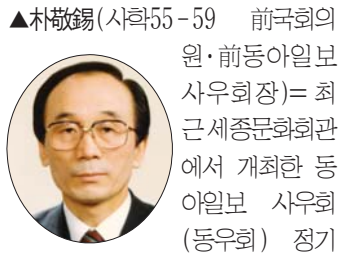
▲임경택(ASP 16기 산업은행 KDB컨설팅 실장)=지난 1월 15일 산업은행 자본시장본부장(부행장)에 선임.

행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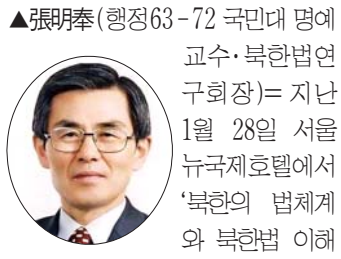
▲李吉女(의학51-57 경원대 총장·가천길재단 회장·분회 부회장)=최근 인천시 민수동 주공아파트 일대 저소득층 가정에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 개최.

▲柳鍾玄(불문53-57 前세네갈 대사·한아프리카교류증진협회장)=지난 1월 25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협회 창립기념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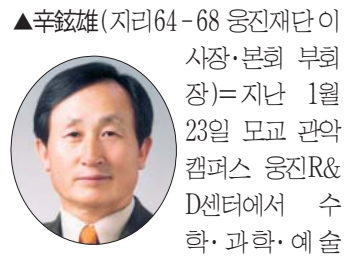
▲朴敬錫(사학55-59 前국회의원·前동아일보 사우회장)=최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동아일보 사우회(동우회) 정기

총회에서 동우 몽도상 시상.



▲張明奉(행정63-72 국민대 명예교수·북한법연구회장)=지난 1월 28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북한의 법체계와 북한법 이해

의 방법’이란 주제로 발표회 개최.
▲金勳東(농학63-69 수원예총 회장)=지난 1월 19일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잡지창간호 9천4백여 권을 수원시박물관에 기증.



▲辛鉉雄(지리64-68 웅진재단 이사장·분회 부회장)=지난 1월 23일 모교 관악캠퍼스 웅진R&D센터에서 수학·과학·예술

영재 장학생 89명에게 장학금 3억원을 전달하고 멘토링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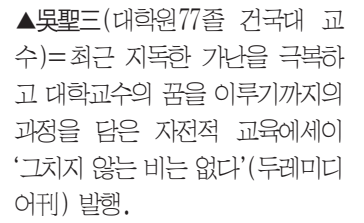
▲金晔中(중문65-69 前통일부장관·前주중국 대사)=최근 신앙체험을 기록한 ‘하나님의 대사’(규장판) 출간.

▲安炳燦(신대원75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월 28일 서울 인사동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회관에서 제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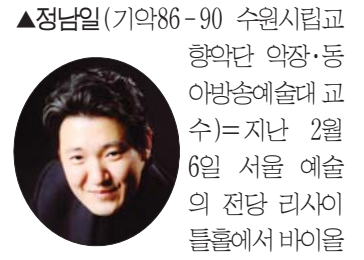


차 정기총회 및 제8회 언론인권상 시상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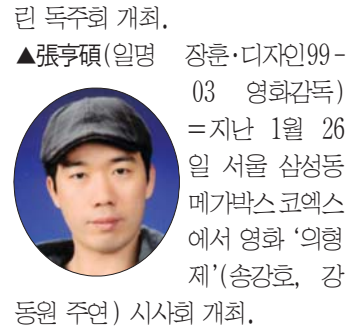
▲吳聖三(대학원77졸 건국대 교수)=최근 지독한 가난을 극복하고 대학교수의 꿈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자전적 교육에세이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두레미디어) 발행.



▲정남일(기약86-90 수원시립교향악단 악장·동아방송예술대 교수)=지난 2월 6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張亨碩(일명 장훈·디자인99-03 영화감독)=지난 1월 26일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영화 ‘의형제’(송강호, 강



동원 주연) 시사회 개최.
▲金基星(ACAD 52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지난 1월 26일 서울 미아동 우이빌딩 5층에서 사무실 개소식 개최.

이 명복을 빕니다

(괄호안은 향년 표시)

- ▲李惠求(경성제대31졸 모교 국악과 명예교수)=1월 30일 별세(101세)
- ▲咸宗圭(교육46-50 성일장학재단 이사장)=1월 14일 별세(84세)
- ▲朴恩會(작곡49입 前대한재보험 사장)=1월 13일 별세(80세)
- ▲元主鎬(정치50-54 前은행감독원 감사역)=1월 20일 별세(79세)
- ▲金正萬(수의54-58 前서울대공원 동물부장)=1월 21일 별세(76세)
- ▲南基豪(상학56-62 前건설실업 동경지점장)=1월 26일 별세(75세)
- ▲朴慶麟(전자공학61-65 중앙의숙 이사장)=1월 21일 별세(67세)
- ▲張丞玟(상학66-70 前해양수산부 장관)=1월 15일 별세(62세)
- ▲權鍾洛(외교68-72 前외교통상부 제1차관)=1월 28일 별세(61세)
- ▲李元成(전자공학77-81 삼성전자 부사장)=1월 26일 별세(51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219호
- e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naver.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신 간

■ 주검이 말해주는 죽음 — 文國鎮 지음



법의학자, 의사평론가로 활동 중인 고려대 文國鎮(의 학 49-55) 명예교수가 영생과 부활의 상징인 고대 이집트 미라에서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존엄사까지 죽음에 대해 의학적, 철학적, 문화학적으로 고찰한 책.

이 책은 인생의 노년기에 이른 文동문이 죽음이란 무엇이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왔으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죽음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성찰한다. 또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오픈하우스刊·값15,000원〉

■ 신작 시나리오 및 당선 희곡집 — 朴升圭 지음



호남대 교수로 지낸 朴升圭(朴雲遠 국문 53-57) 동문이 창작 시나리오 2편과 희곡 5편을 모아 일곱 번째 작품집을 펴냈다.

범죄극영화 시나리오 ‘부처님과 은행강도’와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인 ‘복사꽃 사랑’을 비롯해 1978년 대하극단 창립기념 당선작인 희곡 ‘갈원의 노래’, 1985년 제6회 전국연극제 광주시립극단 시민 선정작인 ‘아틀리에의 삶인’, 2002년 가톨릭 대구대교구 올해박해 순교사극 현상공모 당선작인 ‘殉教’ 등을 담았다. 〈연희사刊·비매품〉

■ 이토히로부미, 안중근을 쏜다 — 李泰鎮·趙東成·김성민 공저



역사학과 경영학계의 두 거장이 쓴 단편 역사소설.

모교 국사학과 李泰鎮(사 학 61-65) 명예교수와 安重根의 어머니 조마리아의 후손인 모교 경영학과

趙東成(경영67-71)교수가 원작을 쓰고, 여기에 그들의 제자인 아이웰콘텐츠 김성민(경영00-07) 대표가 살을 붙였다.

1909년 10월 26일 安重根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다. 그리고 1939년 10월 16일 安重根의 아들 安俊生은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 이토 히로쿠니에게 사죄한다. 사람들은 그에게 나라를 팔고 아비를 판 더러운 자식, 친일파, 변절자라고 손가락질했다.

이 소설은 영웅의 아들이었던 安俊生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한다. 영웅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그 어떤 평화와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평생을 일본의 탄압과 감시 속에 함겹게 살아야 했던 평범했던 아들의 슬픈 이야기가 펼쳐진다. 〈IWELL刊·값5,000원〉

■ WHY INDUSTRIAL HEGEMONY SHIFTS — 金寅鎬 지음



한양대 金寅鎬(상 학 61-65) 명예교수가 영어 버전의 경영 전략 전문도서를 펴냈다. 金 동 문 은

‘니즈진화에 적응하는 혁신경영’을 Dynamic Management로 정의하고 그 이론적 틀을 통해 왜 지난 30여 년 사이에 세계 산업주도권이 미국에서 동북아지역으로 바뀌어 왔는가를 실증해 보였다. 산업진화는 니즈진화에 좌우되며, 니즈진화에 적응하는 혁신기업만이 살아남아 번성한다는 강한 전략메시지를 전한다. 또 고객니즈에 기반한 profit-seeking formula와 사업전략 수립 및 실행도구를 개발해 Dynamic Management의 실용성을 높임과 더불어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을 밝히고 그 극복논리까지도 제시해 주고 있다. 〈LAMBERT Academic Publishing刊·값119달러〉

■ 시장발전과 경제개발 — 李承勳 지음



모교 경제학부 李承勳(전 자 공 학 63-70)교수가 한국과 멕시코의 사례를 분석해 개도국 경제발전과 시장의 관계에 대해 심층 분석했다.

제1장에서 시장과 경제개발에 대해 개괄적으로 다룬 후에, 2장에서는 시장이 국가 경제의 사회

적 분업을 어떻게 이끌고 사회적 분업의 발달이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 설명했다. 3장에서는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시장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했다. 4장에서는 1999년대 초까지 한국의 경제개발정책과 시장, 5장에서는 멕시코의 경제개발정책과 시장을 다뤘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8,000원〉

■ 탈북민의 가족 해체와 재구성 — 李順炯·金昌大 외 지음



모교 소비자 아동학부 李順炯(가정 관리 74졸)·陳美靜(가정 관리 87-91)교수, 교육학과 金昌大

(교육79-83)교수 등이 탈북민 가족의 구조와 관계가 매우 복잡하며, 그것은 우리 사회의 가족제도 자체에 영향을 미칠 만큼 비중이 큰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 책에서는 탈북에 따른 가족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북한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로부터 출발해 가족 해체와 재구성이 이뤄지는 방식과 유형, 그리고 가족 해체와 재구성을 유발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또 탈북민을 직접 만나 조사한 생생한 증언을 중심으로 탈북 과정에서 가족이 해체되고 중국과 남한에 정착하면서 재구성이 이뤄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심리·사회적 문제와 대응책을 정리했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13,000원〉

■ 고려국가와 집단의식 — 盧明鎬 지음



한국역사학회장을 맡고 있는 모교 국사학과 盧明鎬(국사 71-75)교수가 고려시대의 집단의식을

연구하며 고려의 황제국 제도의 배경 등을 밝혀냈다.

이 책은 한국을 비롯한 현대 동북아 국가들의 역사인식에서 국민·국가적 통념에 의해 왜곡되고 간과된 역사적 사실, 10~14세기의 고려 국가 내부와 민주 그리고 동북아의 국제관계의 알려지지 않은 측면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해동천자의 천하, 삼한일통, 삼국유민, 자위공동체, 이 네 가지 집단과 그와 관련된 집단의식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이 소개되고 있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15,000원〉

공연

■ 金琉璃 첼로독주회

— 2월 22일 예술의 전당



독일 오스나브뤼크 교향악단 부수석인 金琉璃(기악93-97) 동문(사진)이 2월 22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에서 첼로 독주회를 갖는다. 친동생인 피아니스트 김현재(모교 감사)씨와 함께 메시앙, 베토벤, 브람스, 브루흐 등의 작

■ 한국근현대문학의

프랑스문학수용

— 李建雨 외 지음



모교 불어 불문학과 李建雨(불문 73-77)교수, 李珪鉉(불문 75-79)강사, 金庸基(불문 79-83)언어교육원 프랑스어연구원, 국어국문학과 朴性昌(불문 81-85)교수, 세종대 金鍾郁(국문 84-88)교수, 아주대 文惠園(국문 84-88)교수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한국 근·현대 문학의 프랑스 문학 수용에 관한 연구서.

이 책은 한국의 근·현대 문학이 원본을 모방한 사본에 지나지 않거나 프랑스 문학에 비해 열등했다는 시각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자민족중심주의적 허위의식도 경계하면서, 객관적인 차이에 주목하고 단순한 비교를 넘어 한국 근·현대 문학의 동향을 조건지었던 자기 정체성의 토대를 밝히고 있다.

특히 해방 이후의 실존주의, 주제비평, 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 프랑스 문예이론의 수용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라고 할 만하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45,000원〉

■ 미국의 힘, 예일 로스쿨 — 奉旭 지음

대검찰청 공간기획관인 奉旭(사법84-88)동문이 집필한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예일 로스쿨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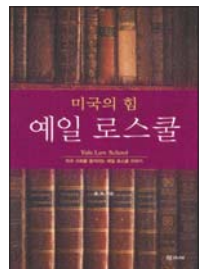
2007년 한미 FTA 체결로 우리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비롯한

품을 공연한다. 〈공연문의:예인예술기획 586-0945〉

■ 이태정 바이올린독주회 — 2월 24일 예술의 전당



이니스양상블 리더, 밀레니엄 심포니에타 단원으로 활동 중인 이태정(기악93-97)동문(사진)이 2월 24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흐, 베토벤, 윤이상, 브람스 등의 작품으로 바이올린 독주회를 갖는다. 〈공연문의:예인예술기획 586-0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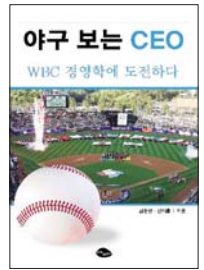
사법제도 전반의 뿌리가 뒤흔들렸다. 그 변화의 한 가운데 서 있는 현직검사인 奉동문은 예일 로스쿨

에서 체험했던 자신의 경험을 살려 로스쿨을 상세하고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다.

당시 예일 로스쿨 高洪株학장을 비롯해 고경은, 최해원 교수 등 ‘예일이 자랑하는 한국인 교수’들과 여러 명의 졸업생들을 인터뷰하고, 예일 로스쿨의 다양한 면모를 생생히 전한다. 〈학교재刊·값13,800원〉

■ 야구 보는 CEO

— 金容萬·申在焄 공저



金容萬(종교84-88 미우커뮤니케이션스 대표)·申在焄(경영84-89 삼성SDS 마케팅팀장)동문이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경기에서 영광의 준우승을 거둔 한국 대표팀의 사례를 바탕으로 야구와 경영을 접목시킨 책.

야구와 기업의 경영은 조직의 근간이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다. 이 책은 신경영과 김야구라는 두 사람이 캐스터와 해설자의 대화 형식으로 야구중계를 풀어나간다. 중요한 경영지식은 본문 중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정리해준다. 〈바보새刊·값18,000원〉

장학빌딩 건립기금 모금은 계속됩니다

〈참여 기회 놓치지 말고 서두릅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 관악회]



목표액 : 300억원

- ◆50억원
△임광수(기계공학48-52)
- ◆15억원
△故박관호(화학교육51줄)
·신명규(생물교육48-54)
- ◆10억원
△강신호(의학46-52)
△곽영필(토목공학56-60)
△구평희(정치학47-51)
△김상하(정치학45-49)
△김은중(경제학59-63)
△김정식(전자공학48-56)
△김중섭(사회사업66-70)
△김형주(토목공학46-50)
△박호전(경영학62-66)
·김영희(작곡62-66)
△신창재(의학72-78)
△오동영(조선항공54입)
·김찬숙(치의학56-60)
△윤세영(행정학56-61)
△이준용(경제학56-60)
△정계영(상학61-66)
·이자혜
△홍성대(수학57-63)
- ◆5억원
△김주진(법학54입)
△조기호(화학교육54-58)
·이영자(생물교육56-60)
- ◆3억원
△김병순(AMP 4기)
·이지호(의학77-83)
△이길여(의학51-57)
△정석규(화학공학48-52)
△허남각(경제학56-60)
- ◆2억원
△남정현(건축학57-61)
△손경식(법학57-61)
△이종기(경영학69-73)
△이준해(섬유공학48-54)
△장용택(약학55-61)
△장학순(토목공학46-50)
△조필재(조선항공46-50)
- ◆1억5천만원
△故김도창(법학43-47)
·목춘5부자
- ◆1억2천만원
△엄병윤(외교학60-64)
- ◆1억1천1백20만원
△미술대학동창회
- ◆1억1천만원
△성백전(토목공학52-56)
·김안순(화학공학54-58)
△수학과동창회
- ◆1억30만원
△박성훈(기계공학58-63)

- ◆1억원
△강순걸(법학54-58)
△곽동현(법학61-65)
△김두희(물리학52입)
△김문현(상학58-64)
△故김영경(기계공학52-56)
△김정철(건축학52-56)
·김정식(건축학54-58)
△김창식(전기공학53-57)
△나공목(상학56-61)
△남상용(건축학52-57)
△노인환(경제학54-58)
·故한명화(가정교육60줄)
△류중희(기계공학53-57)
△명태현(기계공학46-50)
△박실상(AIC 9기)
△박희백(의학51-57)
△변주선(영어교육60-64)
△서정화(법학51-55)
△故손치무(대학원70줄)
△안성철(행정학58-63)
·손윤숙
△故양은숙(간호학51-54)
△故오은현(섬유공67-71)
·추경옥
△오홍조(치의학61-61)
△우인성(기계공학58-62)
△유상부(토목공학60-64)
△이금기(약학55-59)
△이상범(법학53-57)
△이수범(행정학56-60)
△이예식(약학46-49)
△이정상(상학59-65)
△이지호(의학77-83)
△이해원(행정학51-55)
△장세일(전기공학59-63)
△장중환(의학69-76)
△전동용(수의학52-56)
△정윤환(임학56-62)
△정충시(화학공학72-76)
△조경일(약학64-68)
△조병우(섬유공학59-64)
△지원철(축산학73-77)
△최두형(행정학51-55)
△최상홍(기계공학54-58)
△최희장(섬유공학58-64)
△홍상욱(원예학83-87)
△보건대학원동창회
- ◆6천만원
△김윤택(경대원68-70)
△화학과동창회
- ◆5천2백만원
△이현조(철학52-57)
- ◆5천50만원
△하상완(치의학64-70)
- ◆5천30만원
△이종현(경제학59-65)
·신갑순
- ◆5천10만원

- △박남식(SCS 2기)
- ◆5천만원
△강인규(수의학59-64)
△공대식(기계공학56-60)
△김정희(약학57-61)
△김중기(생물교육51-55)
△김중서(경제학58-63)
△김중현(경제학55-59)
△류재명(AMP 34기)
△마국철(공업교육68-72)
△박명윤(보대원74-76)
△박주탁(무역학69-74)
△손일근(법학51-64)
△안 훈(수의학53-57)
△오인석(행정학58-62)
△유중해(법학50-54)
△이도경(농학56-63)
·이찬진(기계공학84-89)
△이순석(약학61-65)
△이승준(섬유공학56-60)
·이청원(자원공학67줄)
△이운주(의학81-87)
·오지은(인류학83-87)
△이원규(농생물학58-63)
△이재원(상학55-59)
△이중대(천문기상학69줄)
△이형도(화학공학61-67)
·박호순(영어교육66-70)
△정대영(경제학51-55)
△정재봉(사회사업60-64)
△지창수(상학55-59)
△하권익(의학57-63)
△하부열(경영학74-78)
△허병하(상학58-62)
△홍예표(치의학65-71)
△황해근(토목공학54-60)
·故이금옥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농대 그린장학회
△농대 일산회
△한우리SJM
- ◆3천60만원
△원정수(건축학53-57)
·지 수(건축학54-58)
- ◆3천만원
△강신혁(문리66-73)
△고원호(기계공학48줄)
△박종일(영어교육60-64)
△송명호(자원공학59-65)
△심형윤(토목공학52-56)
△유석홍(무역학61-65)
·박영희(기약70줄)
△이경택(섬유공학57-61)
△이광식(약학66-70)
- ◆2천만원
△강학순(기계공학64-69)
△김원일(건축학61-65)
·최미혜(성악66-70)
△김재백(약학52-56)

- △서병륜(농공학69-73)
△윤세극(경제학45-51)
△조갑주(경제학58-63)
·정정영(불어불문62-66)
△최정길(금속공학52-56)
- ◆1천5백만원
△김철순(조경학76-83)
△한규택(원자핵공73-77)
△치불희
- ◆1천2백만원
△강응선(치의학78-84)
△심영보(의학55-61)
△안동일(법학59-63)
△오상호(전기공학48-55)
△이내원(화학교육58-62)
△이재철(법학70-77)
- ◆1천1백50만원
△천남중(자원공학65-69)
- ◆1천1백30만원
△신면우(의학50줄)
- ◆1천1백10만원
△이홍중(역사교육54-58)
- ◆1천1백만원
△김상복(종교학57-63)
△김상수(자원공학73-77)
·김태훈(건축학02-07)
△정해남(법학72-76)
- ◆1천80만원
△서병태(의학54-60)
△조내규(약학58-62)
- ◆1천70만원
△김정범(치의학60-66)
- ◆1천60만원
△박준옥(약학55-59)
- ◆1천30만원
△박만호(행정학57-62)
△심이택(화학공학57-63)
△이영필(항공공학66-71)
△이형하(법학74-78)
△지현택(치의학43-47)
△허성길(경제학60-64)
- ◆1천만원
△강신주(사회교육51-55)
△강용현(법학71-78)
△강행언(토목공학61-65)
△고광우(행정학53-58)
△권동은(FIP 4기)
△권혁웅(불어불문59-63)
△금진호(법학50-58)
△김 철(기계공학64-68)
△김기춘(법학58-62)
△김두만(상학59-63)
△김미령(약학74줄)
△김백준(수학62-66)
△김병린(토목공학55-59)
△김상호(법학72-76)
△김선양(중어중문84-88)
△김연호(화학공학71-75)
△김영갑(법학74-78)

- △김영석(경제학60-66)
△김영재(공업화학77-81)
△김원배(동물학55-60)
△김윤중(약학64-71)
△김은식(국사학73-80)
·윤영옥(생물교육72-76)
△김일섭(경영학64-69)
△김재범(산업공학74-78)
△김재호(생물교육53-57)
△김주환(토목공학57-61)
△김진규(기계공학61-66)
△김찬욱(기계공학55-59)
△김철수(법학52-56)
△김평우(법학63-67)
△노병수(공법학83-87)
△류태환(상학48-54)
△문규철(응용화학69-73)
△문대원(경영학71-75)
△문명국(기계공학73-75)
△문성훈(식품공학86-92)
△박덕철(기계공학57-61)
△박명학(영어교육61-65)
△박영준(상학60-66)
△박종국(농화학57-63)
△박준우(의학75-81)
△박진희(무역학76-80)
△박창우(경제학80-84)
△배명인(법학52-56)
△백사익(채광학40-42)
△변상현(의학51-57)
△서계숙(기약56-60)
△석학진(상학58-64)
△설동섭(축산학53-57)
△신방호(경제학67-71)
△신윤식(사학55-59)
△신혜순(가정교육47-51)
△안경상(행정학57줄)
·김정애(가정교육54-58)
△양배덕(전기공학57-61)
△양성철(정치학58-64)
△엄기영(사회학70-74)
△오병제(AMP 21기)
△오용섭(임학60-66)

- △유홍수(법학58-65)
△유희춘(상학49-55)
△윤영석(경제학58-64)
△윤희진(축산학63-67)
△이강수(상학51-55)
△이경호(행정학61-65)
△이계우(행정학58-63)
△이동철(토목공학78-82)
△이병재(경대원69줄)
△이병형(화학67-71)
△이상현(정치학64-68)
△이석윤(영어영문50줄)
△이송은(상학53-57)
△이인기(지질과학62-66)
△이재후(법학58-62)
△이전구(임학60-64)
△이종웅(기계공학65-69)
△이진규(치의학78-84)
△이창기(약학55-59)
△이창원(법학55-60)
△장무환(경제학45-51)
△장세권(농공학70-76)
△장익용(기계공학54-58)
△장지준(의학70-77)
△장휴동(농경제학59-63)
△조길웅(HPM 14기)
△조정훈(자원공학75-81)
△최남해(상학52-56)
△최선집(사회교육75-79)
△최승철(기계공학66-70)
△최준기(조선항공57-61)
△추재욱(의학63줄)
△표상기(원자력공61-65)
△하영기(정치학44-48)
△한창섭(정치학57-62)
△故함인영(기계공학48줄)
△함정호(행정학53-57)
△허 선(정치학64-68)
△홍순자(독어교육61-65)
△황경로(AMP 11기)
△황남주(물리학87-92)
△전북지방동창회
△간호대학동창회

◆9백만원
△김현산(법학54- 58)
◆7백만원
△정경모(행대원65- 67)
◆6백만원
△오창석(전기공학46- 50)
△이재식(교육학75- 79)
◆5백만원
△김영수(법학60- 64)
·원종순(국어국문64- 68)
△박수복(농생물학56- 61)
△서립규(토목공학57- 61)
△송진해(공업교육63- 72)
△신박일(약학60- 64)
△윤성근(공업교육74- 78)
△윤순녕(간호학69- 73)
△윤익석(축산학49- 53)
△이기수(대학원70- 72)
△이윤경(간호학65- 69)
△이현구(AMP 52기)
△정주석(법학61- 65)
△조상근(행정학69- 73)
△조원환(AMPP 6기)
△법대37회 동기회
△오사카지부동창회
△AMPFRI동창회
△FIP동창회(김명도)
◆4백30만원
△강충원(전기공학59- 65)
◆3백90만원
△이정식(지구과학72- 76)
◆3백50만원
△임장주(SPARC 11기)
◆3백30만원
△김석만(화학57졸)
△이종복(응용미술62- 66)
◆3백10만원
△인효석(농공학80- 87)
△최병호(화학교육57- 61)
△한규범(AMP 42기)
◆3백만원
△강영현(농경제학69- 76)
△권숙일(물리학54- 58)
△권혁창(지구과학69- 76)
△김인규(정치학69- 73)
△김재율(경성법전39졸)
△김형기(불어교육72- 76)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을!!
일반회원 10만원 · 이사 30만원 이상

△박금식(화학54- 58)
△안재동(상학60- 67)
△이동수(건축학61- 66)
△이성기(행대원63- 65)
△임채주(경제학55- 59)
△정영채(수의학56- 60)
△하재규(농학53- 57)
△황선용(사회교육57- 61)
◆2백50만원
△홍순명(축산학68- 72)
◆2백30만원
△신성우(AMP 32기)
△이준형(GLP 11기)
◆2백만원
△김혜경(생물교육70- 74)
△나정우(농공학72- 77)
△문창국(정치학68- 72)
△박태원(정치학46- 50)
△성기학(무역학66- 70)
△심상우(축산학57- 61)
△오복동(법학57- 63)
△유지열(외교학84- 88)
△윤정일(교육학62- 66)
△이경렬(응용미술69- 73)
△이원태(농경제학64- 68)
△이종순(법학57- 61)
△이홍구(법학53입)
△이희호(교육학46- 50)
△임규운(행정학53- 57)
△정낙찬(서양사학9- 73)
△정용인(법학60- 64)
△최창식(의학54- 60)
△한영국(경제학50- 54)
△허영호(전자공학71- 75)
△홍석준(사회학73- 77)
△황선태(법학66- 70)
△황의인(법학74- 78)
◆1백80만원
△노 영(의학70- 77)

◆1백73만원
△최인갑(금속공학57- 62)
◆1백50만원
△곽 승(화학공학59- 63)
△김건호(수의학70- 74)
△윤옥영(수학58- 61)
△이기남(수학67- 71)
△이진호(화학공학85- 89)
△정성진(법학58- 63)
△조귀장(사법학86- 90)
·김주영(지리학92- 97)
△조현래(대학원75입)
△채규대(경제학56- 60)
◆1백30만원
△김영균(법학57- 59)
△김종철(치의학71- 77)
△김진익(법학55- 60)
△문일환(치의학65- 71)
△양동관(법학67- 71)
△이몽우(공업교육64- 68)
△이태형(상학59- 63)
△임한조(물리학67- 71)
△정취위(법학62- 66)
△조병철(섬유공학59- 65)
△최동식(법학76- 80)
△최명재(상학48입)
△추호석(경영학69- 73)
△현전욱(법학72- 76)
◆1백23만4천5백67원
△김성수(농업교육63- 67)
◆1백23만원
△홍정식(사회교육52- 56)
◆1백21만원
△박정식(약학57- 61)
◆1백20만원
△강효식(치의학57- 61)
△김영도(축산학68- 75)
△김용술(경제학56- 62)
△김주현(의학65- 71)

△김진원(건축학68- 72)
△나명훈(의학76- 83)
△부창렬(건축학77- 81)
△송창기(중어중문57- 62)
△이갑노(의학65- 71)
△이계홍(농공학56- 62)
△이상건(섬유공학74- 78)
△이정우(AMPFRI 17기)
△이창건(전기공학49- 54)
△조용국(사회학66- 70)
△차왕보(의학53- 59)
◆1백15만원
△이원영(ACAD 11기)
◆1백14만원
△남기호(상학56- 62)
◆1백13만원
△홍성욱(GLP 3기)
◆1백12만원
△이상훈(법학60- 64)
◆1백10만원
△김 현(법학76- 80)
△김금림(약학62- 66)
△김기섭(정치학69- 73)
△김기영(ACAD 49기)
△김도현(대학원74- 76)
△김동만(GLP 15기)
△김선복(건축학62- 66)
△김지호(화학공학55- 59)
△명동근(경제학45- 52)
△민미란(국악73- 77)
△박영원(지리학74졸)
△박창순(기계공학64- 68)
△백 철(상학56- 61)
△백낙운(독어독문56- 60)
△변재용(토목공학75- 81)
△송경희(국악59- 63)
△신동승(법학79- 83)
△원우현(행정학61- 65)
△유종일(신대원72- 74)

△유해덕(법학53- 57)
△이경보(토목공학46- 50)
△이규대(AIP 36기)
△이근남(불어불문68- 72)
△이두현(행대원74졸)
△이명훈(농경제학69- 73)
△이정자(국어국문50졸)
△이종팔(경영학76- 80)
△전계묵(금속공학56- 61)
△전영철(미학53입)
△조준래(AMPFRI 12기)
△지근진(농공학58- 64)
△최연근(중어중문67- 71)
△허신행(농경제학62- 66)
△홍성완(토목공학62- 66)
◆1백5만원
△장경만(의학80- 87)
◆1백만원
△강구선(광산학63- 67)
△강규석(물리교육58- 62)
△강덕수(GLP 8기)
△강성수(섬유공학57- 61)
△강성현(치의학69- 75)
△강영복(상학51- 55)
△강원일(행정학59- 63)
△강정일(농경제학64- 68)
△강종표(외교학76- 83)
△강홍섭(화학공학59- 63)
△고 건(정치학56- 60)
△고병우(경제학52- 56)
△고의식(수의학56- 60)
△고재선(섬유공학52졸)
△고호곤(AMP 58기)
△구재철(의학78- 84)
△권광중(법학61- 65)
△권순철(전자공학83- 85)
△권이혁(의학41- 47)
△김경동(사회학55- 59)
△김교성(전기공학51- 55)

△김국일(토목공학63- 68)
△김규복(법학69- 73)
△김규형(약학53- 57)
△김기수(행정학47- 51)
△김노수(섬유공학45- 52)
△김달식(법학53- 57)
△김덕영(토목공학45- 47)
△김덕원(수의학50- 54)
△김덕중(외교학71- 75)
△김도연(행정학58- 63)
△김동찬(생물교육51- 55)
△김명자(화학62- 66)
△김방연(상학52- 56)
△김상원(농경제학52- 56)
△김석건(농경제학50- 55)
△김석기(행정학64- 68)
△김석준(기계공학72- 76)
△김승권(기계공학68- 72)
△김연호(영어교육67- 75)
△김영기(법학54- 58)
△김영배(농공학78- 85)
△김영수(경제학58- 62)
△김영일(법학60- 64)
△김영재(법학57- 62)
△김용식(건축학70- 74)
△김용운(치의학62- 68)
△김용찬(농화학57- 61)
△김우동(계산통계72- 79)
△김유경(SPARC 2기)
△김윤재(상학54- 58)
△김익모(AIP 23기)
△김인중(법학56- 60)
△김일환(천문기상64- 72)
△김재락(법학78- 82)
△김정일(금속공학58- 64)
△김종국(농화학63- 70)
△김종욱(경제학58- 62)
△김주용(전기공학58- 63)
△김준말(영어교육55- 59)
△김중기(경제학54- 58)
△김진세(법학61- 69)
△김진우(약학54- 58)
△김진호(법학57- 61)
△김창국(법학56- 60)
△김창순(경성여사범43입)
△김철빈(토목공학67- 71)
△김태현(제약학71- 75)

△김태흥(화학교육71- 79)
△김풍오(원자력공68- 72)
△김학균(약학51- 55)
△김학원(법학66- 70)
△김현채(법학56- 61)
△김형욱(AIP 37기)
△김형진(기계공학51- 55)
△김혜성(식품영양70- 74)
△김호룡(법학48- 52)
△김홍석(물리학70- 74)
△김홍중(수학74- 78)
△김화중(간호학63- 67)
△김현수(법학52- 56)
△김효중(법학61- 65)
△김후란(가정교육53집)
△나도선(약학67- 71)
△나종택(기계공학53- 57)
△노승형(법학58- 63)
△노정익(섬유공학46- 50)
△류종묵(상학59- 65)
△류철호(토목공학67- 71)
△마인경(지리교육56- 60)
△문광순(광산학60- 64)
△박국양(의학75- 81)
△박석흥(불어불문63- 67)
△박성숙(의학65- 71)
△박성철(법학75- 79)
△박성태(의학58- 64)
△박순억(치의학66- 72)
△박순호(AMP 43기)
△박승균(조선항공63- 67)
△박승용(영어교육76- 80)
△박양수(영어교육55- 59)
△박영숙(CHCN 3기)
△박영철(AMP 40기)
△박인원(의학76- 83)
△박재형(의학66- 72)
△박종찬(공업교육71- 76)
△박종철(물리학61- 66)
△박준서(법학58- 64)
△박해룡(상학58- 63)
△박향숙(응용미술58- 62)
△박흥일(영어교육60- 64)
△배기선(AIP 25기)
△배상경(경제학56- 61)
△배승환(기계공학58집)
△배영한(상학49- 58)

△배인준(철학70- 74)
△백형배(화학공학47- 53)
△변영삼(금속공학77- 81)
△변영진(토목공학67- 71)
△변종문(공업교육72- 76)
△서광벽(재료공학73- 77)
△석준형(물리학67- 71)
△설흥기(대학원07- 09)
△설희순(기계공학62- 66)
△손두식(임학57- 63)
△손완주(화학공학55- 59)
△손환기(농업교육64- 68)
△송병락(경제학59- 63)
△송사일(농공학80- 84)
△송언기(AMP 28기)
△송인상(경성고상35집)
△송종환(외교학64- 68)
△송호룡(AIC 19기)
△신명중(법학80집)
△신수정(기약59- 63)
△신용삼(경영학73- 77)
△신원식(행정학57- 61)
△신정균(농경제학54- 58)
△신필재(약학55- 59)
△신현걸(응용물리65- 69)
△신희명(물리교육49- 54)
△신희섭(의학68- 74)
△심장수(법학70- 74)
△심재갑(행정학52- 56)
△심한배(공업화학71- 76)
△안상돈(행정학59- 63)
△故안재환(공예92- 04)
△안치득(전자공학76- 80)
△안취준(고고인류61- 67)
△양해준(식품공학82- 86)
△양호석(농화학57- 63)
△엄영섭(화학66- 70)
△엄준호(기계항공95- 99)
△여운관(금속공학53- 57)
△오경화(의류학81- 85)
△오세종(경제학61- 65)
△오윤덕(행정학61- 65)
△오인석(전자공학57- 62)
△오진환(법학75- 79)
△오태환(법학53- 57)
△우병규(정치학51- 55)
△우세홍(생물교육60- 65)

△우완식(경제학57- 61)
△우종호(중어중문60- 64)
△우효섭(토목공학72- 76)
△유가영(기약86- 90)
△유위중(농경제학72- 80)
△유제운(조선항공51집)
△유진무(상학62- 66)
△유필상(전기공학66- 73)
△윤근환(농학50- 54)
△윤용철(경영학83- 88)
△윤용혁(독어교육60- 64)
△윤원진(HPM 6기)
△윤재석(화학교육71- 75)
△윤정철(의학59- 65)
△윤정혜(화학교육59- 63)
△윤충섭(농공학55- 61)
△윤홍식(물리교육56- 60)
△이경재(화학59- 63)
△이계관(약학70집)
△이광진(법학77- 81)
△이국진(경영학77- 81)
△이규호(약학60- 65)
△이근수(신대원69집)
△이기봉(교육심리54- 58)
△이기준(경제학55- 59)
△이기준(가정교육61- 65)
△이돈구(임학65- 69)
△이동규(전문기상65- 74)
△이동녕(금속공학57- 61)
△이미현(법학79- 83)
△이병목(의학54- 60)
△이병일(농학57- 63)
△이병주(의학61- 67)
△이삼취(농화학66- 70)
△이상욱(경영학86- 90)
△이상필(치의학70- 76)
△이석원(AIP 36기)
△이성호(농공학71- 75)
△이수웅(전기공학88- 92)
△이순형(의학56- 62)
△이승관(금속공학64- 71)
△이승구(계산통계75- 79)
△이승립(국어교육66- 70)
△이신자(응용미술50- 55)
△이영상(상학51- 55)
△이영상(상학59- 64)
△이용희(간호학75집)

△이우연(정치학45- 49)
△이우진(농화학64- 68)
△이의갑(영어교육70- 75)
△이인혁(섬유공학54- 58)
△이일훈(상학55- 60)
△이장무(기계공학63- 67)
△이재원(기약53- 57)
△이재원(법학77- 81)
△이정국(토목공학62- 66)
△이정숙(응용미술65- 69)
△이정우(독어교육64- 71)
△이정인(광산학59- 63)
△이종욱(의학57- 63)
△이주환(역사교육53- 57)
△이중환(의학51- 57)
△이진방(경영학67- 71)
△이창호(기계공학55- 61)
△이철영(상학63- 68)
△이철주(상학59- 65)
△이충웅(통신공학54- 58)
△이학숙(회화54- 58)
△이현식(화학73- 78)
△이현재(경제학48- 53)
△이형균(정치학59- 64)
△이형우(수리학51- 55)
△이호인(응용화학66- 70)
△이희숙(영어교육61- 65)
△임광환(농경제학55- 59)
△임미영(회화77- 81)
△임승빈(건축학67- 71)
△임이균(약학61- 65)
△장권봉(응용미술56- 62)
△장삼진(화학공학51- 55)
△장성원(영어교육57- 61)
△장원갑(기계공학63- 67)
△장윤석(법학68- 72)
△장은식(치의학89- 93)
△장찬기(HPM 8기)
△장철식(섬유공학49- 55)
△장해창(법학74- 78)
△장해실(성악69- 73)
△전병일(영어교육66- 73)
△전정구(경제학51- 56)
△전종갑(전문기상64- 68)
△전준수(토목공학61- 65)
△전팔근(영어교육47- 52)
△정광섭(상학66- 74)

△정광현(독어교육71- 78)
△정근화(물리교육63- 70)
△정명희(의학65- 71)
△정민섭(임학59- 63)
△정병일(독어독문78집)
△정병해(정치학49- 53)
△정상조(행정학57- 62)
△정소성(불어불문64- 69)
△정완호(생물교육58- 63)
△정우식(항공공학80- 84)
△정웅진(상학63- 67)
△정원식(교육학48- 54)
△정은구(법학58- 64)
△정정길(행정학61- 65)
△정효섭(사회학59- 65)
△정흥숙(가정교육59- 63)
△정희준(법학57- 61)
△조규광(정치학48집)
△조대연(법학69- 73)
△조동진(행정학63- 67)
△조무제(사대원65- 67)
△조상래(수리학71- 75)
△조성근(행대원61집)
△조영찬(중어중문74- 78)
△조완규(생물학48- 52)
△조장환(농학53- 60)
△조한래(사회사업73- 77)
△조근원(경성제대43집)
△주남철(대학원69- 77)
△주정엽(경영학95- 02)
△지상구(약학54- 58)
△지철근(전기공학45- 51)
△진성박(치의학75- 81)
△진영춘(토목공학67- 74)
△진홍일(외교학62- 66)
△차원갑(화학공학48- 53)
△최 연(섬유공학68- 72)
△최광현(무역학62- 67)
△최병순(화학교육69- 74)
△최병주(생물교육56- 60)
△최영룡(법학78- 82)
△최우철(의학82- 88)
△최종덕(물리학52- 56)
△최종운(의학77- 83)
△최종태(행대원66- 68)
△최창신(약학61- 65)
△최항순(조선공학65- 70)

△최효열(기약69- 73)
△탁미선희(치의학76- 82)
△하두봉(대학원56- 58)
△한 영(치의학79- 85)
△한정섭(건축학48- 52)
△한철주(의학78- 84)
△함종한(농업교육63- 70)
△허정국(치의학55- 59)
△현덕성(약학66- 70)
△현임중(상학56- 60)
△홍동선(임학56- 61)
△홍상희(응용물리65- 72)
△홍성오(생물교육50- 54)
△홍순겸(AIP 5기)
△황병선(외교학64- 71)
△황성재(법학72- 76)
△황승기(지구과학69- 76)

◆90만원
△김승환(상학67- 71)
〈이상 2005년 10월 1일
부터 2010년 1월 25일까지
출연해 주신 분〉

◆30만원
△김학기(농생물학65- 70)
△문병원(잡사학55- 60)
△전현찬(AMP 44기)

◆11만원
△최완규(비동문)

◆10만원
△강민구(의학02- 06)
△김우진(국약77집)
△박두희(화학53- 57)
△서명우(치의학83- 89)
△이기덕(의학92- 96)
△이기선(전기공학94- 98)
△이기홍(치의학90- 94)
△이장원(수학교육96- 00)
△이종각(교육학68- 72)
△조한형(ACAD 35기)
△지규억(기계공학58- 62)
△하영주(농화학83- 87)
△홍혜숙(불어불문68- 72)
〈이상 2009년 1월 29일
부터 2010년 1월 25일까지
출연해 주신 분〉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 회비 : 2009년 11·12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09. 11. 24~12. 27)·일반(09. 11. 24~12. 23)
원내 숫자 : 입학년도(미학인시 졸업년도)－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부회장 尹勤煥= 50만원
△부회장 徐廷和= 1백만원
△부회장 裴命仁= 1백만원
△부회장 李世中= 50만원
△부회장 李相赫= 1백만원
△부회장 崔相弘= 1백만원
△부회장 金宗鎬= 50만원
△부회장 李相禹= 50만원
△부회장 南正鉉= 1백만원
△부회장 吳仁錫= 1백만원
△부회장 金殷宗= 1백만원
△부회장 趙炳祐= 1백만원
△부회장 愼昌宰= 1백만원

관 악 회

△이 사 金炯珠= 30만원
△이 사 明泰鉉= 30만원
△이 사 朴浩田= 30만원

상임이사

△洪京子 간호대동창회장= 20만원
△韓仁圭 농생대동창회장= 20만원
△金正國 법대동창회장= 20만원
△卞柱仙 사대동창회장= 20만원
△朴容喆 의대동창회장= 20만원
△洪禮杓 치대동창회장= 20만원
△金英大 경대원동창회장= 20만원
△李鍾大 GLP동창회장= 20만원
△嚴玉鳳 ANMP동창회장= 20만원
△洪起南 SPARC동창회장= 20만원

평생회비

〈이사〉 △강응선 치대78
△강한철 사대73 △김경호 AIP23
△김경환 의대86 △김남철 사대72
△김성대 공대73 △김영남 공대61
△김영훈 공대78 △김웅서 사대77
△김종남 인문74 △김형오 문리67
△남혜경 간호79 △류경희 치대69
△류용호 공대73 △서희진 사대85
△신종현大院91 △안국신 상대65
△안성훈 치대75 △유승렬 HPM7
△윤의준 공대79 △이경운 공대57
△이구범 사대69 △이근관 법대82
△이남우 사회82 △이의종 공대74
△이재서 의대82 △이충국 공대79
△이효진 생활80 △임재용 공대80
△임중연 공대83 △장용현 AIP13
△정기성大院80 △정윤계 AIP31
△조병구 사회75 △조현오 의대64
△진경년 인문76 △최이기 AMPP4
△최종찬 상대68 △황익남 공대64

〈일반〉 △강 관 공대60
△강석희 음대76 △강주석 상대61
△강형곤 SPAR15 △고경일 ABP11
△고방자 법대56 △곽정욱 HPM24
△구본순 AIP39 △권상원 농대59
△권승일 사회70 △권영환 공대72
△권정선 HPM21 △금장태 문리62
△김경해 문리59 △김계종 치대60
△김교준 AMP67 △김기원 AIP38
△김동광 AMP67 △김명수 공대73
△김문숙 인문83 △김병철 ACAD45
△김병철 GLP17 △김성근 약대55

△김소연 미대06 △김애라 공대85
△김연식 經院70 △김영문 SPAR15
△김영화 AIP41 △김용균 AMP67
△김용빈 법대79 △김유정 SPAR15
△김인숙 SPAR15 △김재형 치대71
△김정기 경영83 △김정원 법대83
△김종흥 ACPM4 △김진택 수의91
△김진홍 농대97 △김태휘 농대03
△김학문 AIP3 △김학수 의대81
△김현란 ACPM4 △김현수 공대06
△김현철 사대79 △김혜선 SPAR15
△김혜진 자연01 △김효선 ACAD61
△나영봉 사대79 △남궁욱 자연72
△목정균 新院75 △문병국 자연79
△민일영 법대74 △박광식 치대76
△박노현 SPAR15 △박동규 공대72
△박승철 사대57 △박우상 공대54
△박정호 AMP49 △박종학 농대98
△박준하 공대98 △박태원 경영90
△박혁목 법대84 △박현민 의대85
△박희웅 공대89 △배진규 상대53
△백광균 법대01 △백여현 SPAR15
△사공필 의대06 △설흥기大院07
△성태훈 경영86 △성현우 인문99
△소현영 사대70 △손정리 미대60
△손정우 SPAR15 △손태영 수의49
△송길선 AMP12 △송현석 농대06
△신 건 법대59 △신동만 ACAD11
△신세용 SPAR15 △신승엽 사회02
△신우성 공대76 △안상희 SPAR15
△안성희 SPAR15 △안예호 미대59
△안원모 법대73 △양승한 공대82
△양정우 공대03 △양태석 공대90
△엄낙용 법대67 △엄상현 사대75
△엄오섭 SPAR15 △엄태운 약대59
△여상원 법대77 △연갑수 인문80
△오숙례 미대74 △오지연 사대87

△오하나 생활05 △오현진 법대59
△유방환 의대55 △유영진 의대54
△유재형 농대84 △유철준 AFP2
△유환익 AMP44 △윤영희 SPAR15
△윤호수 사대72 △이각수 SPAR15
△이경숙 SPAR15 △이경창 법대79
△이기영 농대82 △이나라 약대02
△이대영 AMP67 △이동명 사대04
△이상조 ASP11 △이상준 공대78
△이상철 AFP4 △이상현 ACAD62
△이석만 약대58 △이석희 AIP41
△이수원 SPAR15 △이숙향 사대76
△이승호 농대03 △이승훈 인문82
△이영만 AMP54 △이영학 사회82
△이용길 의대60 △이우인 농대78
△이우출 ACPM5 △이장원 사대96
△이장호 문리55 △이재식 사대75
△이재환 SPAR15 △이재희 공대04
△이정은 경영90 △이정철 치대06
△이종욱 경영72 △이준상 법대43
△이진원 ACAD29 △이철신 법대59
△이현렬 상대59 △이형기 인문91
△이훈상 사대65 △임동환 環院85
△장경영 사회92 △정경호 법대94
△정낙균 SPAR15 △정두영 AIP32
△정민정 법대94 △정영권 SPAR15
△정의상 의대88 △정준식 공대56
△정중석 SPAR15 △정찬욱 環院90
△정호민 AFB7 △정희경 사대51
△조광원 문리60 △조병대 법대88
△조완석大院80 △조용호 약대64
△조인흠 약대45 △조형국 SPAR15
△주순욱 ASP12 △차기원 사대66
△차문현 AMP67 △채수인 GLP11
△최 호 ACAD68 △최동규 법대82
△최명배 공대71 △최윤경 음대91
△최정욱 GLP11 △최정임 사대85

이 사

◆인문대 △안형환82
◆사회대 △강창재74 △박경재74
△박천옥72 △유성록82 △유성엽80
△황정욱85
◆자연대 △김철호74 △최진혁71
◆간호대 △김영숙55 △김장언79
◆경영대 △권기출72 △박종완71
◆공대 △권수웅57 △김명린61
△김장연76 △김풍오68 △김호수63
△나재심76 △문영기69 △민재홍74
△박재룡68 △방수일64 △변창훈70
△부창렬77 △서동원70 △오세기64
△오창석52 △원윤상76 △윤정호69
△이용경60 △이준의58 △이필한66
△이흥원66 △전효택67 △홍 경67
△황인석68
◆농대 △구현수67 △김정규65
△박준걸71 △성수일66 △신한풍59
△유부열66 △이병목64 △이우진64
△임열재64 △조국광75 △현의송61
◆문리대 △김 승61 △김광수64
△김동진63 △김수진57 △김영철67
△김재봉64 △김하진58 △문희수60
△박무중66 △박윤경56 △양철주59
△오종발68 △원용대48 △유덕상68
△이철배59 △정만조65 △하영기44
△홍영남60 △홍원희65 △홍종호62
◆미대 △고승혜66 △김제응60
△이명기76 △최동신60 △한근석81
△한진성77
◆법대 △강용석88 △권순일77
△김 신76 △김기현78 △김수남78
△김영선81 △김진우52 △김철수52
△김흥면72 △박인제71 △박현문71

△손수일74 △송재웅61 △신기남70
△안영도65 △안종택73 △오영진65
△윤태방59 △이법래78 △이상래82
△이성로64 △이영주58 △이회창53
△장상익72 △최상태58 △홍병의60
◆사대 △김병식70 △김성열75
△김수신60 △김종필46 △김학천59
△민무일65 △박영태67 △박태섭76
△안준천48 △원혜영71 △이양자59
△이종완72 △이진수63 △이흥탁59
△장종택55
◆상대 △권태인46 △김기현61
△남상덕69 △박병준51 △이홍주60
△장인주69 △장종익58
◆수의대 △박영수68 △이충범65
△정원광50 △최홍렬66
◆약대 △강창율73 △권현욱79
△반성호65 △손영준61 △유충규70
△이강현75 △이용연72 △이주형67
△정연진69 △조용한73 △황봉자61
◆음대 △김중석67 △윤혜원81
△이신화61
◆의대 △방재승93 △안병현67
△윤용범66 △정종환56
◆치대 △박종만60 △박형기55
△방승웅64 △변석두53 △이영대70
△이재성58 △조달문68
◆대학원 △김흥렬81 △조태현79
◆경대원 △장만기66
◆행대원 △곽대훈78 △김영화68
△반금현70 △최순현73
◆AMP △김세래46 △이주현45
△정석현44 △하정길6
◆AIP △김서곤11 △박한창17
△이호재21 △임종한15 △주영현12
◆ACAD △이철우60 △주영순54
◆ABP △안우진8 △정시택23
◆SGS △김성수2 △이용일3
◆AMPP △김임권6
◆AIC △이정재2
◆AFB △문제민4
◆GLP △유시현7 △윤석호7

일 반

◆인문대 △강지연03 △김다은03

△김동욱85 △김향숙82 △서선령87
△윤다윤03 △이동림88 △채려목04
△황영준00
◆사회대 △김용호75 △김정환90
△김현민01 △백승훈80 △성낙제86
△윤소영93 △이강국89 △이상웅98
△장병언75 △정현우01 △정혜령01
△조태형88 △최완근81 △최원석84
◆자연대 △강성구82 △김병준06
△김상보82 △김호신78 △성하운74
△이승구79 △이응규83 △전동오84
△정성훈04 △홍혜영05
◆간호대 △김선희83 △김순겸57
△손승희88 △유은경77 △유주연98
△이상미74 △이숙경84 △이효원86
◆경영대 △노중영00 △류승철89
△문성형82 △박상건85 △박훈기81
△방영민69 △서학수82 △안효민94
△장기룡77 △전상훈04 △전영조91
△정기철97 △조규근70 △조승호81
◆공대 △강상구95 △강철우03
△권혁중88 △김 영53 △김광명58
△김두현72 △김명호69 △김민철97
△김병만83 △김영길60 △김영조58
△김용혁75 △김천근75 △김천주57
△김충은99 △김해전52 △남창우05
△류세열86 △문성환90 △문정수05
△박동환67 △박상신83 △박영춘62
△박용진51 △박원형00 △박정수82
△박종철46 △박한희56 △변수근57
△변정규51 △서무석00 △서병은58
△서영석84 △서인원52 △송미화02
△신경식49 △안종찬69 △안창범79
△양대준92 △양준모85 △유성훈07
△유완상63 △윤경원92 △윤여경48
△윤영찬67 △윤준식01 △이병수57
△이상권66 △이상언81 △이선행57
△이성범93 △이승호86 △이정하69
△이종수82 △이창섭70 △이현석99
△이호원97 △장지훈03 △정상오00
△정우상49 △정재윤79 △주광정76
△주효원02 △지선호86 △최호진78
△하경수91 △하태흠75 △한동수78
◆농대 △강병석70 △강용찬65
△강인섭73 △곽유신82 △김 현58
△김동수74 △김동윤48 △김영철56
△김인철01 △김장섭84 △김주태54

△김한호79 △김희창61 △노재후60
△박경호84 △박창서63 △박태식68
△손동하88 △송기종54 △안정준85
△여규동66 △유근학55 △윤여성76
△이국찬94 △이다람03 △이상목56
△이상인63 △이세연79 △이승진97
△이영치61 △이장환58 △이종화51
△이주한92 △이중훈48 △이해수59
△임성만84 △장세영57 △조재구83
△황호열88
◆문리대 △강신표55 △고문종70
△김근수65 △김기중59 △김남진59
△김봉영58 △김영석66 △김용태53
△남성우59 △문무흥67 △박부서67
△배우근59 △송태남62 △신재하53
△윤영탁60 △이규호72 △이양길60
△이재승59 △이택휘57 △이현기54
△임 흥68 △장종학59 △전광현57
△조희근71 △주혜경68 △최충경64
△홍영백56
◆미대 △김병화71 △김지열56
△김충길66 △박소영97 △박은경89
△손원갑65 △오성진83 △이인수97
△정탁영56 △조 윤63 △전진희76
△황명옥73
◆법대 △김성훈62 △김양일61
△김영선55 △김영철77 △김윤택58
△김진석84 △김해영83 △노인수76
△문해성58 △박규태56 △박재원55
△박정식51 △서현진57 △송창현69
△오형환65 △유창배72 △윤인성87
△이상호85 △이석봉49 △이수기79
△이수모61 △이승철81 △이재웅89
△이진우56 △이춘식52 △임상현59
△장재윤82 △전지원87 △정성현87
△정진용88 △정현국56 △조영길84
△차원태70 △황종우86
◆사대 △강순규76 △강신희55
△곽도현61 △권나영03 △김석훈75
△김용길54 △김재철71 △김주현57
△김현영84 △목영부54 △박기석65
△박대규57 △박옥주50 △성시연01
△신용환59 △신행범73 △양흥룡71
△예원혜61 △유경목84 △유남두57
△이상연50 △이윤하63 △임길선83
△임해규79 △장영호77 △정광수80
△정근훈49 △조낙현57 △최신자61

△함희동46 △홍성자62 △홍학순53
◆상대 △권태명58 △김경원58
△김성열57 △김정태66 △김태환70
△박용희53 △백치곤49 △엄치섭53
△윤대희69 △윤영원55 △이규종65
△지영식57 △표학길66 △한정복66
△황정길62
◆생활대 △권덕윤84 △김순오55
△김영혜63 △박명희71 △손희준77
△안윤진89 △조혜경70
◆수의대 △김민영50 △홍성우53
△김호훈60 △남기환86 △박수원83
△이병익70 △이영득63 △이형석00
△최지희97 △한인식64
◆약대 △권성배67 △김영수72
△김원동00 △문경호73 △양승국53
△우제남69 △유용근54 △이성우67
△이인순70 △장동필66 △정근배61
△정왕윤54 △주승재86
◆음대 △김금수76 △김난아91
△김병곤00 △김영식70 △김주현04
△배성연84 △서운진94 △이상미84
△임정원83 △장희순89 △정은자83
△최승용78 △홍명숙74
◆의대 △김수진80 △김연수95
△김중희00 △라운찬01 △박윤상73
△양솔몬00 △이승철68 △이정빈66
△함정옥89
◆치대 △고영식68 △김광빈59
△김능원63 △김정태66 △박기욱49
△박재용98 △송채현75 △오윤배69
△이 승82 △이규철58 △이병윤51
△정철표74 △정평구58 △천세환05
△최남섭73 △최병식58 △최상윤80
◆대학원 △김동식85 △백진호96
△손정락82 △최신권95
◆보대원 △문성환95 △신기준66
△이귀녕70 △정춘영66 △차이나97
△한순혁89
◆행대원 △김원영70 △송병희88
△신현재07 △이해재62 △임옥기84
△최재열80
◆환대원 △고성하77 △박춘배77
△이정미01
◆AMP △고순동66 △고시목8
△금승호58 △남기욱32 △박창현51
△양진석59 △오정근40 △왕기철42

△이규식54 △이영운67 △장명웅40
△장성훈67 △조두희29 △황규홍57
◆AIP △김재웅41 △김주평28
△류복석22 △성필선36 △염석훈7
△이상호8 △이주연19 △이충근27
△최길순21 △최배진15 △최태순33
△허 엽41 △황수천9
◆ACAD △권도중49 △김길제49
△김철규59 △김춘식41 △배선준68
△윤석준33 △이경영7 △이창길58
△이희수21 △장호경27 △최봉인31
◆ABP △강정규34 △김영민34
△김학진34 △박충호30 △임경상9
△허 영14
◆SGS △김능기5 △박래훈20
△손영채5 △이종웅4
◆CHCN △이춘제5
◆APC △강대가4 △김동섭9
△박기정3
◆HPM △김민규23 △김성민12
△한성길16
◆AIC △김동현25 △김종결10
◆AMPFRI △손상원20 △여정목11
△이하나23 △정영목5 △조기조4
◆ACMP △조태성5
◆FIP △박찬중4 △이부일2
◆GLP △곽창근3 △송영록19
△신근식15 △유영은19 △이태형13
◆ALP △고형봉10
◆SPARC △김용수2
◆AFP △유석성1
◆ASP △민병렬13 △윤태순3
△이두호4 △이옥동17

분 담 금

◆인도네시아지부 1천달러
◆필리핀지부 50만원
◆태국지부 50만원

11·12월계 : 83,813,594원
평생회비 : 73,800,000원
입 회 비 : 700,000원
총 계 : 1,299,688,370원



제5회 서울대 동문 골프대회



동문 골프대회서 齒大 단체 우승

모교에 발전기금 1억6백만원 전달 / 메달리스트에 韓榮熙·權富玉동문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9월 7일 경기도 여주군 렉스필드CC에서 제5회 서울대 동문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각 단과대학(원)과 특별과정, 직능 및 지방지부동창회에서 참가한 동문 1백57명이 샷건방식으로 18홀씩 Mountain·Lake·Valley코스를 돌았다. 순위를 가리는 대표팀 단체전과 개인전은 스트로크방식, 남·여 친선팀은 신페리오방식으로 진행됐다.

林光洙회장은 대회사에서 “금년에도 대회 집행위원회 임원들께서 선두에 서서 모교에 대한 발전기금 모금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사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한 뒤 “처음엔 걱정도 됐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대회가 본연의 취지인 각 단과대학과 지방지부 임원들의 마음에 애교심을 불러일으켜 이후 많은 동문들께서 모교 지원에 동참하고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또 “모교와 동창회가 서로 이끌어 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에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되고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동문들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평생의 동반자로서 모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교 金信福부총장은 학교 근황을 소개하면서 “현재 모든 서울대인의 초미의 관심사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9월 2

일에 입법예고돼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보완한 후 11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교는 국가기관으로선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보호막과 안정된 공무원 신분을 포기하고 법인체제로 전환해 혁신과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하며, 앞으로 재정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에도 총동창회와 동문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상식에 앞서 가진 모교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본회 李吉女부회장이 대회 집행위원회 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출연한 기금 1억6백만원을 모교 金信福부총장에게 전달했다.

朴榮敏경기위원장의 보고에 이어진 본상 시상에서 작년 대회에서 준우승에 머물렀던 치과대학동창회팀이 함께 2백31타로 대표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해 우승기와 기념품을 받았다.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AIC)동창회팀이 2백33타로 준우승, 작년 대회 우승팀인 법과대학동창회팀은 2백34타로 3위를 기록했다.

남녀 메달리스트에 70타를 기록한 韓榮熙(HPM 22기)동문과 77타를 친 權富玉(HPM 1기)동문이 선정됐다.

대표팀 개인전 우승은 73타를 기록한 丁光榮(AIC 18기)동문이 차지했으며, 남녀 친선팀에선 朴相昱(경

영82-86)동문과 成善玉(AIP 28기)동문이 각각 1위에 올랐다.

林鍾昊(치의학82-88)동문이 2백58야드, 李珍姬(식품영양83-87)동문이 2백야드를 쳐 남녀 롱게스트를 차지했다. 남자 니어리스트상은 1.2m를 기록한 金峻鎬(GLP 6기)동문, 여자 니어리스트상은 金讚淑(치의학56-60)동문에게 돌아갔다.

남녀 감투상은 姜信浩(의학46-52)동문과 徐桂淑(기약56-60)동문, 남녀 행운상은 姜熙昌(기계설계83-87)동문과 李成恩(간호73-77)동문이 차지했다.

한편 이날 여러 홀에서 이글이 나왔으며 개인전 3위를 기록한 郭基馨(GLP 17기)동문이 알바트로스를 기록해 林光洙회장으로부터 기념품을 받았다.

이날 Mountain 7번홀과 Lake 3번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할 경우 프라이머모터스에서 부상으로 승용차 택서스(ES350) 1대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행운의 홀인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참가자들은 발전기금에서 제공한 즉석 기념 사진을 받았으며 건강 검진권, 공기청정기, 디지털 카메라, 골프용품, 호텔 식사권, 건강식품 등 푸짐한 경품을 받았다. 삼익약기 金鍾燮(사회사업66-70)회장이 제공한 디지털피아노는 朴炯烈(요업공학74-78)동문이 당첨됐다.

제5회 서울대 동문 골프대회

각 부문별 수상자
▲ 대표팀 단체전 △ 우승 : 치과대학동창회 羅炳宣(치의학69-76)·姜泰聲(치의학71-77)·鄭炯泰(치의학74-80)·林鍾昊(치의학82-88)동문. △ 2위 :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동창회 崔首賢(AIC 97기)·丁光榮(AIC 187기)·金容三(AIC 127기)·李海東(AIC 207기)동문. △ 3위 : 법과대학동창회 禹泳華(법학62-66)·金鉉翼(법학73-80)·河光龍(법학76-80)·李丞淵(사법83-87)동문.
▲ 대표팀 개인전 △우승 : 丁光榮(AIC 187기) △ 2 위 : 姜泰聲(치의학71-77) △ 3 위 : 郭基馨(GLP 177기) △ 4 위 : 河光龍(법학76-80) △ 5 위 : 尹鉞鎬(FIP 47기)동문.
▲ 친선팀 △우승 : 朴相昱(경영82-86)·成善玉(AIP 287기) △ 2 위 : 李東鶴(FIP 67기)·金孝永(AIP 297기) △ 3 위 : 劉載天(AMP 317기)·李吉女(의학51-57) △ 4 위 : 鄭喜鎔(AIP 277기)·崔스미(간호76-80) △ 5 위 : 曹佐鎭(GLP 177기)·李承炫(국약87-91)동문.
▲ 메달리스트 : 韓榮熙(HPM 227기)·權富玉(HPM 17기)동문. ▲ 통게스트 : 林鍾昊(치의학82-88)·李珍姬(식품영양83-87)동문. ▲ 니어리스트 : 金峻鎬(GLP 67기)·金讚淑(치의학56-60)동문. ▲ 감투상 : 姜信浩(의학46-52)·徐桂淑(기약56-60)동문. ▲ 행운상 : 姜熙昌(기계설계83-87)·李成恩(간호73-77)동문.

협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林光洙(기계공학48-52)본회 회장 : 일금 5백만원 · 徐廷和(법학51-55)본회 부회장 : 일금 5백만원 · 李吉女(의학51-57)본회 부회장 : 일금 5백만원 · 건강검진권 5매 · 金鎮炫(사회54-58)세계평화포럼 이사장 : 일금 5백만원 · 孫京植(법학57-61)본회 부회장 : 일금 5백만원 · 스팅 선물세트 10개 · 朴容 (의학62-68)의대동창회장 : 일금 5백만원 · 申榮均(치의학48-55)신영예술문화재단 이사장 : 일금 4백만원 · 李海遠(행정51-55)본회 부회장 : 일금 4백만원 · 徐桂淑(기약56-60)음대동창회장 : 일금 4백만원 · 洪性大(수학57-63)본회 부회장 겸 관악회 상임이사 : 일금 4백만원 · 金鮮東(화학공학59-63)미래국제재단 이사장 : 일금 4백만원 · 尹東宣(GLP 177기)디엠티엔피비 사장 : 3백만원 · 李金器(약학55-59)본회 부회장 : 일금 2백만원 · 케어쓰리 유제품 3백개 · 李竣鎔(경제56-60)본회 부회장 : 일금 2백만원 · 金讚淑(치의학56-60)본회 부회장 : 일금 2백만원 · 孔大植(기계공학56-60)본회 부회장 : 일금 2백만원 · 安秉勳(행정57-61)본회 부회장 : 일금 2백만원 · 李世榮(약학57-61)약대동창회장 : 일금 2백만원 · 金鳳九(조소58-63)미대동창회장 : 일금 2백만원 · 許鎮奎(금속공학59-63)본회 부회장 : 일금 2백만원 · 趙炳祐(섬유공학59-64)본회 부회장 : 일금 2백만원 · 卞柱仙(영어교육60-64)사대동창회장 : 일금 2백만원 · 鄭啓泳(상학61-66)관악회 이사 : 일금 2백만원 · 朴浩田(경영62-66)관악회 이사 : 일금 2백만원 · 金一燮(경영64-69)관악회 감사 : 일금 2백만원 · 李角模(수의학64-69)수의대동창회장 : 일금 2백만원 · 洪禮杓(치의학65-71)치대 · 치의대학원동창회장 : 일금 2백만원 · 金鍾燮(사회사업66-70)본회 부회장 : 일금 2백만원 · 삼익악기 디지털피아노 1대 · 尹汝斗(농공학67-71)동양물산기업 부회장 : 일금 2백만원 · 수저세트 57개 · 鄭八道(AIP 17기)본회 부회장 : 일금 2백만원 · 姜錫大(AIP 157기)우양기건 대표 : 일금 2백만원 · 鄭喜鎔(AIP 277기)AIP동창회장 : 일금 2백만원 · 申一汕(AMPFRI 147기)AMPFRI동창회장 : 일금 2백만원 · 카보나 슛구이판 10개 · 辛東烈(GLP 37기)성문전자 회장 : 일금 2백만원 · 姜德壽(GLP 87기)STX그룹 회장 : 일금 2백만원 · 李鍾大(GLP 167기)GLP동창회장 : 일금 2백만원 · 洪起南(SPARC 57기)SPARC동창회장 : 일금 2백만원 · 李載厚(법학58-62)김&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일금 1백만원 · 洪龍潔(경제64-72)상대동창회장 : 일금 1백만원 · 金貳煥(신대원72-75)언대원동창회장 : 일금 1백만원 · 姜信浩(의학46-52)본회 고문 : Nature's Secret 음료수 5백개 · 孫吉丞(상학59-63)본회 부회장 : 워커히호텔 식사권 10매 · 辛鉉雄(지리64-68)본회 부회장 : 웅진 발효홍삼원세트 7개 · 李潤雨(전자공학65-69)삼성전자 부회장 : 삼성디지털카메라 5대 · 尹錫金(AMP 277기)웅진그룹 회장 : 웅진 공기청정기 2대 · 金光石(AMP 387기)AMP동창회장 : 참존 화장품세트 10개 · 金有煥(AMP 547기)한미스포츠 대표 : 골프장갑 4백80개 · 모자 2백40개 · 양말 7백20 컬레 · 홀주머니 2백40개 · 우산 2백40개 · 權五榮(AMP 647기)아일랜드 회장 : 대부도 포도 2백 상자 · 姜普英(HPM 17기)의료법인 안동병원 이사장 : 건강검진권 5매



林光洙 회장 인사



대표팀 단체전 우승 치대동창회



대표팀 개인우승 丁光榮 동문



친선팀 여자우승 成善玉 동문

제5회 서울대 동문 골프대회



친선팀 남자우승 朴相昱 동문



남자 롱게스트 林鍾昊 동문



남자 메달리스트 韓榮熙 동문



여자 롱게스트 李珍姬 동문



여자 메달리스트 權富玉 동문



남자 니어리스트 金峻鎬 동문



알바트로스 기록한 郭基馨 동문



여자 니어리스트 金讚淑 동문

■ 골프한마당

〈기사제공 : 골프저널〉

타법의 즐거움

연장 타를 하며 시작하는 초보 때부터 날씨 탓, 몸 컨디션 탓 등 핑계를 반복하는 골퍼들이 경지에 도달할 때쯤이면 말수가 적어진다. 어쨌든 이것은 고수들이 스윙에 둔감해진 것이 아니라 스윙의 미스를 보완해 나가는 적응능력과 스윙에서의 경험과 노련함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과거 자신의 핑계가 다른 골퍼의 입에서 나올 때는 입가의 씩씩한 미소까지 나온다. 이렇듯 골퍼에게 테크닉과 경험이 더해지면 핑계가 수그러지는데 이것은 고수들의 공통점이다.



베토벤 타법

오래 전에 필자는 다리를 다친 적이 있었다. 목발을 짚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의 상태로 있을 때의 일이다. 당시 골프에 푹 빠져 있을 때여서 골프의 한계점을 체험해 보고 싶은 심정인지, 아니면 오기인지 그때 베토벤(Beethoven)과 같은 불굴의 정신으로 골프를 한 적이 있다.

절룩이는 다리를 끌고 18홀을 도는데, 체력이 불고 떨어짐을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치는 골퍼여서 여러 가지 스윙 방법을 동원했다. 체력이 불고 떨어짐을 적응해 나가기 위해 날아가는 구질을 보고 스윙을 바꾸어 나갔다.

첫 번째 홀에서부터 18홀까지 한 번도 같은 스윙을 할 수 없었다. 이미 정상이 아닌 몸에서 적응해나가는 스윙이니만큼 체력이 불고 떨어짐이 정상인의 몇 배여서 한 홀도 같은 스윙을 해 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체력의 불고 떨어짐에 따라 잘 적응해 쳤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달을 공을 쳤는데 어느 날은 체력이 너무 떨어져 그와 같은 몸 컨디션에 적응할 스윙 방법이 없어 스윙을 포기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체력이 유지해나가는 힘이 강해지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스윙을 바꾸어줄 필요가 없었다.

나중에는 전·후반 다르게 치던 샷이 18홀, 36홀까지도 스윙을 바꾸지 않고 치는 것이 가능해질 때도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었지만 나의 다친 다리가 왼쪽 다리로는 힘을 지탱해 주는 파워(power)다리라고 한다. 스윙에 있어서는 하체 힘을 지탱해주는 왼쪽 다리와 하체 힘을 실어 주는 오른쪽 다리가 있다.

이러한 하체의 부상은 스윙의 지속도 힘들지만 상·하체 밸런스를 무너

뜨려 자기의 정상적인 스윙을 가져가기 힘들다. 이러한 몸의 컨디션에서 골프를 잘 하려면, 베토벤과 같이 불굴의 정신으로 임하는 의미의 베토벤 타법을 적용해야 한다.

낙시 근육

언젠가 연습장에서 공을 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오늘은 낙시근육이 잡혀서 안 된다.’고 했다. 생전 들어보지도 이해도 안 가는 말이었지만, 필자의 머리 속에 스쳐가는 옛 생각이 있어 입가에 미소를 띠었다. 필자는 낙시를 좋아한다. 언젠가 낙시를 좋아하는 미국인 친구를 따라 낙시배에 올랐다.

바다낙시의 경우, 일단 배에 타면 배 주인의 말이 법이다. 초저녁에 나간 배는 밤새도록 낙시를 한다. 집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보온병에 가득 찬 커피를 따라 마시며 밤 새워 낙시를 해야 한다. 배는 비좁아 움직일 공간조차 없어 밤새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만 한다. 이런 다음날 골프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찾아오는 것이 흑불이다. 하체 힘이 떨어진 것이다. 비단 낙시뿐만이 아닐 것이다.

긴 여행을 할 때에 몸을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도 하체 힘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 골프를 하게 되면, 하체의 힘이 떨어져 자신의 생각대로 스윙이 되지 않는다. 본래 자신의 스윙 실력으로 되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스윙에 임해야 한다. 하체 힘의 둔화뿐만 아니라, 스윙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초보자일 경우에는 연습부족으로 인한 상체 힘이 굳어져 빠른 스윙을 못해줄 때 문에 슬라이스 볼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몸 컨디션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에는 꼭 자신의 베스트 샷을 생각하지 말고 골프에 임

해야 한다. 라운드 도중 한두 차례 구질이 바뀌면서 자신의 본래 컨디션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샷을 구사하면 어느 정도의 미스 샷은 커버해 나갈 수 있다.

몸의 변화에서 오는 이러한 샷은 하체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연습부족으로, 상체의 움직임에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각자의 능력과 생체리듬에 순응해야 한다.

조금만 비굴해도 본전은 찾는다

조금은 비굴해야 본전을 찾을 수 있는 샷이 있다. 어프로치 클럽의 한 각도 차이는 사용방법과 용도가 크게 다르다. 각 클럽의 스윙 크기를 달리 해 주고 공을 치는 스윙은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같은 스윙 크기로 라이가 틀린 불규칙 샷으로서의 숏 게임은 방향뿐만 아니라 비거리 차이가 많이 난다.

점수를 줄일 수 있는 그린 주위에서의 어프로치는 거리와 방향을 요구한다. 이러한 샷의 정교함을 요하면 숏 게임에서의 테크닉이 필요하다. 테크닉의 한계점과 상황에 따른 효율성을 살리려면 조금은 비굴해질 필요가 있다. 숏 게임에서의 양보는 클럽각도를 조금 작은 클럽으로 스윙 크기를 작게 하는 방법이다.

맨땅 또는 러프의 난이도가 심한 up hill의 경우 꼭 공을 띄울 필요가 없는 상황에는 굳이 클럽각도가 큰 클럽으로 할 필요가 없다. 한 클럽의 각도가 작은 클럽으로 조금만 스윙 크기를 작게 해주면 아주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어프로치를 해줄 수 있다.

나이트 골퍼의 경우 이러한 로프트가 작은 클럽을 사용해서 숏 게임을 많이 하는 것을 보는데 이는 비거리가 작게 나가는, 하체가 약한 골퍼의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손쉬운 방법에 의존하다 보면 정확히 공을 띄워야 할 상황에 손해를 보고 장래성이 있는 골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은 비굴해야 본전을 찾을 수 있는 샷이 있다.

반칙왕

공이 잔디 라이에 조금이라도 덜 놓여진 공이라면 발이나 골프채로 툭 툭 건드려 놓고 친다. 이렇게 공을 움직여 놓고 스윙을 하다보면 간혹 대회라고도 볼 수 없는 아마추어 대회라도 참가하게 되면 좀 더 점수를 내고자 쉴 새 없이 공을 치기 좋은 라이에 옮겨 놓고 치게 되는 반칙왕이 된다.

급기야는 대회 피로연 식사 도중에 말이 오간다. “아니 어느 선수는 툭 툭 발로 공을 친다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골프경기지 축구경기가 아니라고.” “누가 그래?” “누가 그러긴 자네가 그러지.” 하체가 약하거나 나이트 골퍼일수록 좋은 스윙을 하기위해 공을 좋은 라이에 가져다 놓는 습관이 붙는데 이는 자신이 없어서다. 이것이 습관이 된 골퍼는 나중에 조금만 공이 정상 라이를 벗어나는 경우일지라도 공을 잘 칠 수 있는 자신감이 떨어져 공을 좋은 라이에 옮겨놓고 쳐야 하는 반칙왕이 돼버린다.

이러한 반칙왕이 되지 않는 방법은 스윙을 느리게 할 수 있는 트러블 샷에서의 많은 스윙을 습득하고 터득해 나가야 한다.

글/임경
레슨서 내 몸을 알고 내 몸에 맞는
임박사 골프 발간



■ CHANGE UP

2010년, 그루브 제한하는 새 규정 시행

클럽 개발 경쟁으로 선수들 기량 판별력 측정 힘들어

〈기사제공 : 골프저널〉

스포츠가 과학과 접목해 기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과연 과학 기술을 이용한 스포츠 기록의 향상을 인정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고 있다. 이미 많은 스포츠 종목에서도 과학기술을 이용한 스포츠 기록을 인정하게 된다면 부유한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스포츠의 순수성이 변질될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골프에서도 2010년 새로운 그루브 규칙이 적용된다. 날로 최첨단화되어 가고 있는 골프 클럽 제조 기술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골프협회(USGA)가 다시 클럽 규제에 나섰다.

그루브(Groove)는 축음기관의 홈 등의 뜻하며 골프에서는 스윙의 옳은 궤도 또는 골프채 중에서도 아이언의 타면(클럽페이스)에 가로로 길게 새겨진 홈(일반적으로 스코어링이라고 한다)을 의미한다. 그루브는 볼에 스핀을 주는 결정적 요소인데, USGA가 드라이버 헤드 체적(460cc)과 반발계수(0.83) 규제에 이어 골프 클럽의 그루브 모양과 각도까지 규제하기로 한 것은 첨단 기술을 앞세운 클럽 개발 경쟁으로 인해 점점 더 선수들의 기량을 측정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선수들의 고유의 실력을 판별하기 위한 방안에서 비롯됐다.

USGA의 기술 개발 디렉터인 딕 러그는 “전통적인 V자형 그루브 외에 U자, 직각 모양의 그루브가 개발되면서 볼의 회전력이 높아져 백스핀을 더 쉽게 구사할 수 있게 되면서 그린 공략이 한층 쉬워졌다. 선수들의 기량을 구분할 수 있는 변별력이 사라져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2010년부터 영국, 미국골프협회를 통해 새롭게 적용될 그루브 룰을 보면 그루브의 단면적 사이즈를 줄이고 각도는 25도 이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스퀘어 그루브는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V자형 그루브만 허용하기로 했다. U자형 그루브도 홈의 깊이와 단면적, 가장자리 각 등이 기준에 맞아야 한다. 그루브 깊이는 0.508mm, 너비는 0.889mm를 넘을 수 없다. 새로운 규정 때문에 클럽메이커들은 새 규정에 맞는 클럽을 만드느라 바쁘고 선수들은 새 클럽과 볼로 교체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새 규정은 프로선수들에게는 당장 부담을 주는 변화다. 최근 추세는 정확성 못지않게 거리를 중요하게 여겼으나 그루브 규제 강화로 이전 정확성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PGA 챔피언십 우승자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도 “내년부터 새로운 그루브 규정이 적용되면서 러프나 딱딱한 그린에서 볼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새로운 규정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가 시즌 초반 성적의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분간 대회에 불참기로 한 타이거 우즈도 새 규정에 대비, 스핀이 잘 되는 더 부드러운 볼로 연습을 해왔다.

새로운 규칙은 미국PGA 및 LPGA투어, 유러피언투어, 일본 및 한국 남녀

투어 등 세계 주요 프로골프투어에서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선수들은 새 규정에 맞지 않는 클럽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각 동반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위반 클럽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실격이다. 순수 아마추어 골퍼들의 친선게임에는 2024년까지 적용치 않기로 했다. 이는 아마추어들은 러프에서 그린적중률이 평균 13%에 불과해 그루브와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클럽챔피언전이나 내셔널타이틀이 걸린 아마추어대회에 나가는 ‘로 핸디캐퍼’들은 2014년 이후 새 규정에 맞는 클럽을 사용해야 한다.

그 외에도 2010년부터 바뀌는 규칙이 있다. 몇 가지만 보면 올해부터 9홀 이하 라운드 개별 소비세 6천원만 부과한다. 현재 골프 라운드의 경우 중간에 경기중단 여부에 상관없이 1회당 1만2천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 해 골퍼들의 불만이 고조돼왔다.

앞으로는 호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9홀 이하만 플레이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50%를 경감해 6천원만 부과하게 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시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또 골프장 조세특례 제한법이 10월에 끝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골프장에 한해 세금감면을 위해 지난 2008년 10월에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이 10월에 끝난다. 지방골프장에만 제한됐던 특례법이 수도권으로 확대될지 아니면 전면 폐

지될지에 골프업계는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이 법의 실시로 30%에 달하는 해외 골프 관광객 감소 효과가 나타나 서비스수지 균형이 완화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를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조세특례법의 확대, 혹은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



■ CHANGE UP

골프공이 열 받게 하네

골프 요지경 세상을 찾아라

〈기사제공 : 골프저널〉

▶C급 골프공을 재생해서 사용?
최근 경기 침체를 틈타 값싼 재생골프공을 판매하는 틈새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싼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곤 하는 중고 재생 골프공인 일명 ‘리피니시볼’을 만든 것이다. “가격에 비교해 성능은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에 소비자들이 구입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오랜 시간 러프나 해저드에 빠져 있었던 공을 재처리한다고 이전과 같은 좋은 성능을 다시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또 외피를 벗겨 내고 색칠을 다시 하는 등 리피니시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공의 성능을 더 떨어뜨릴 위험도 크다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재생골프공은 정품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만큼 초보

자나 직장인 골퍼들이 즐겨 찾는다. 최근 폐기 직전의 중고 골프공을 사서 유명 상표를 붙인 뒤 비싼 값에 되판 판매업체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돼 골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손상이 심한 중고 골프공 40여 만개를 사들여 세척과 화학처리 과정 뒤 유명 상표를 붙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 되판 6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중고골프공 수집상으로부터 개당 250~400원에 구입했다. 그리고 공을 세척한 후 세척상태로 판매가 가능한 A, B급과 세척만으로 손상되어 연습장에만 납품 가능한 C급으로 분류한 뒤 C급만 재생해 판매했다. 이들은 C급 공을 화학 처리된 탈피액

에 넣고 60~80℃ 정도 유지하면서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 동안 숙성시킨 후 세탁기에 돌려 외피를 분리하고 공에 흰색 페인트로 도색해 유명 골프공의 상표 및 제품명을 인쇄해 코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07년 말부터 소비자가격 개당 2,000원(공급가 개당 700~1,050원)씩 약 40여만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야간에 전국을 돌며 골프장 연못에 빠진 골프공 2만여개를 훔친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6월 경기 안성의 모 골프장 연못에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 골프공 300개를 건져내는 등 밤을 이용해 1년동안 45차례에 걸쳐 전국 23곳의 골프장을 돌며 2만6,000여개의 골프공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훔친 골프공에 광을 내는 약품을 발라 새것처럼 만든 뒤 골프연습장에 1개당 평균 500원을 받고 팔아 넘겼다.

▶골프공이 환경 오명의 주범?
영국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에서 덴마크 골프조합(Danish Golf Union·DGU) 연구진이 골프볼이 자연 분해되는 데 100~



1,000년이 걸리며 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기사에 따르면 잃어버리거나 그냥 버리는 골프공이 미국에서만 매년 약 3억 개나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괴물의 존재를 살피기 위한 네스호 탐사도중 바닥에서 수많은 골프공이 발견되기도 했다. DGU는 실험을 통해 골프공이 분해되는 동안 다량의 중금속을 방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볼의 내부를 채우는 합성고무 충전물에 위험한 수준의 아연이 검출되기도 했다. 아연은 물에 가라앉아 침전물과 합쳐지면 주위의 식물이나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 좋은 골프만들기

스크린골프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기사제공 : 골프저널〉



스크린 골프를 자주 방문하는 골퍼들은 다들 알고 있겠지만, 스크린에서의 라운드는 실전 경험과는 많이 다르다. 구질이나 거리의 오차는 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프로치나 퍼팅은 실전과 많이 다른 것이 사실이고 오히려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편이 조금 더 빠르게 스크린 라운드를 즐겁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공 하나에 회로애락이 그대로 묻어 나오는 스크린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스코어는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실전 라운드를 자주 나가 그만큼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으로 인해 자신감이 붙어서 스코어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 결과의 피드백을 비교했을 경우에 실전 라운드보다 스크린 라운드가 그 효과가 더 빠르다는 것이다.

현재는 스크린도 라운드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어드레스 하는 타석 자체가 업힐, 다운힐 등으로 스윙 플레이트 자체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퍼팅 시에 컵이 열리고 퍼팅 플레이트 전체가 움직이며 라이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는 스크린의 난이도를 높이는 것 뿐 실전 라운드와는 단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스크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아직 실전 경험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그것은 실전 라운드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의 루틴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추어든 프로든 라운드 때 본 스윙에 들어가기 전 프리샷 루틴은 누구나 갖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통의 프로들은 그 루틴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공을 날려 보낼 라인 뒤에 공 뒤쪽에서 공이 날아갈 이미지를 머리에 그리고 빈 스윙을

2번 정도한 후에 머리 속에 공이 날아가는 이미지가 그려지면 본 스윙으로 들어간다. 이를 8~10초 안에 끝내면 만족스러운 스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는 프로가 자신이 없는 곳에 공이 있는 경우 긴장을 하게 되면 루틴이 흐트러져서 이미지를 만드는데 15초가 소요된다면 이는 100%에 가까운 미스 샷이 나온다. 이렇듯 프로는 본인의 루틴을 기본적으로 하여 자신에게 최상의 샷이 나오는 시간을 찾아내어 그 루틴을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면 미스는 최소한 줄어든다.

이를 기본으로 하여 어린이들에게 루틴을 만들어 주는 연습을 스크린에서 하는 것이다. 일단 화면을 보고 공이 날아갈 곳을 보면서 머리에 이미지를 넣고 빈스윙을 1~2회 하며 확신이 들 경우 본 스윙을 하라고 얘기를 해준다. 처음 경험하는 경우 너무 긴장하여 빈스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어드레스를 한 후에도 본스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서있는 경우도 있다. 이를 연습을 통해 라운드 때는 일단 공 뒤쪽으로 가서 머리 속에 상상하고 땅을 보며 빈스윙을 하고 그 스윙에 확신이 들면 바로 본 스윙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이때 끊임없이 “그렇지” “그거야” 하며 옆에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두번째는 라운드 경험이 거의 없는 골퍼들은 필드에서 집중력을 모으는 것도 힘이 드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실내에서 연습하는 것이 실외에서 연습한 골퍼들보다 좀 더 집중력 있게 연습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 주변에 방해 요소가 많아서라고 할 수 있다. 넓은 페어웨이, 러프 그리고 나무와 각종 해저드 연습하는 곳보다 당연히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집중을 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스크린 라운드 때, “왼쪽 두 번째 나무를 보고 쳐 봐” “오른쪽에 해저드는 피해서 쳐야지.” 라는 조언을 해주면 실전 라운드에 나갔을 때 에이밍에 대해서도 빨리 캐치하고 라운드하는 초보도 부담을 덜 느낀다.

그리고 마지막은 본인의 구질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이는 물론 실외연습장에서도 연습할 수 있기는 하나 실외 연습장은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여유 있게 연습하기에는 제한이 많다. 허나 스크린은 실제 공을 치지 않으면 시간제한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른 프리샷 루틴을 통한 본인의 구질 파악에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스크린골프방은 클럽 페이스의 열리고 닫히는 부분이 정확히 화면에 표시되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 얘기해 주고 바로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 골프口羅

의자 회장님과 삼천 캐디

700년 전통의 종합 레저 기업, 백제 그룹의 멸망기

〈기사제공 : 골프저널〉



700년 전통의 백제 그룹은 수도권을 거점으로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황해도 등에 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종합 레저 기업이다. 이 백제 그룹에 31번째 회장이 취임했다. 새롭게 취임한 의자 회장님. 그는 무 회장의 만아들로 용감하고 대담하며 결단력이 있기로 평가를 받았었다. 그는 재임 초기에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신라 그룹의 위협을 막아내고 고구려 그룹과 일본의 글로벌 기업인 왜 그룹과의 제휴를 통해 큰 성장을 했다. 하지만 의자 회장은 간신히말배 같은 이사들의 달콤한 말에 빠지게 되는데...

최근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 등 미국발 경제 위기가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700년 전통의 백제 그룹도 최근의 경제 상황을 경색되는 분위기이다. 한때 백제 그룹 제13대 회장이었던 근초고 회장 시절에는 중국의 요서 및 산둥 반도, 일본 큐슈 지역에 진출하는 등 국제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날렸었다.

국제적인 상황으로 전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국내적인 상황으로는 경쟁 업체인 신라 그룹과 중국계 글로벌 기업인 당 그룹이 연합 전선을 펼쳐 백제 그룹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제 그룹의 의자 회장은 재임 초기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이런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잘 넘기고 있었다. 의자 회장의 노력으로 국내 신라 그룹 계열사 40여개 이상을 흡수하는 등 부활의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지역의 정세 변화에 따라 무역 활동도 침체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과정에서 회장의 실권이 약화되고 이사진의 경영권이 강화되게 된다. 해구 전무를 중심으로 한 이사진들은 주주 총회를 개최하고 레저 파트 강화를 주장하며 국내에 많은 골프장을 건설해 기업 이미지를 상승시키자고 주장한다. 이 주주 총회에서 의자 회장의 아들인 부여풍과 복신 전무와 흑치상지 경영 이사, 도침 마케팅 이사 등 의자 회장과 오랜 시간 함께 했

던 이사진은 반대를 했지만 결국 표결을 통해 국내에 수 십 개의 골프장 건설을 건설하게 된다. 이것 때문에 백제 그룹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백제 그룹은 국내 요소마다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고 레저 거점으로 백촌강컨트리클럽 건설 입찰을 추진한다. 입찰에는 신라-당 그룹 연합과 백제-왜 그룹 연합의 2파전으로 흘러갔다. 이 입찰에서 백제 그룹이 떨어지게 되면서 의자 회장의 총명함이 점차 빛을 잃게 된다.

의자 회장은 사비성컨트리클럽 근처에 있는 회장 전용 별장을 화려하게 수리하고 각 골프장의 캐디를 선발하게 된다. 의자 회장의 까다로운 캐디 선발의 기준도 미인 대회를 방불케 하는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이곳 출신의 캐디들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흥청망청 방탕한 생활을 거듭하며 주색에 빠진 의자 회장에 의해 이 시기에 선발한 캐디의 숫자가 삼천 명이 넘게 된다. 또한 그들 역시 한탕주의에 빠져 의자 회장의 눈에 들기 위해 안 보이는 암투가 이어졌다.

캐디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 그들 사이에서도 안 보이는 권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중 캐디들의 우두머리인 군대부인이 의자 회장의 총애를 한 몸에 받

고 권력의 최고 상층부에 올라서며 캐디들을 괴롭혔다. 군대부인은 흔히 말하는 얼짱, 몸짱으로 언변까지 좋아 의자 회장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했다. 이미 그녀의 독에 마취가 된 의자 회장은 총언을 하는 좌평, 성층 이사를 해임하고 경영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는 사이 백제 그룹에 위기가 찾아온다. 내부적으로 캐디들끼리 권력 투쟁이 이어지면서 그룹 내부의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 그룹의 소정방 기획전략 이사는 금강 근처에 있는 백강컨트리클럽을 빼앗았으며, 신라 그룹은 김유신 기획 팀장을 필두로 충남 연산에 계백 팀장이 지키고 있는 황산컨트리클럽을 빼앗게 된다. 결국 백제 그룹의 핵심 사업장을 잃게 되면서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된다. 의자 회장은 그룹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 그룹 체계를 무너트린 군대부인을 포함한 많은 캐디들을 해고하게 된다. 또한 왜 그룹의 지원을 받아 마지막 남은 사비성컨트리클럽과 웅진성컨트리클럽으로 재기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신라 그룹과 당 그룹이 채권 어음을 돌리며 결국 백제 그룹은 의자 회장 재임 20년 만에 문을 닫게 되고 삼천 캐디는 비정규직 고용 안정을 외치며 과천종합청사 앞에서 농성 중이다.

■ 그림속으로 들어간 골프

〈기사제공 : 골프저널〉

모국은 시인을 묶어두는 감옥이다

골프장은 모든 해방된 공간



‘시인과 혁명가는 혁명을 추구하는 것은 같다. 하지만 혁명을 완성한 후에는 혁명가는 안주해버리지만 시인은 또 다른 혁명을 꿈꾼다는 것이 차이’라고 누군가가 설파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일찍이 플라톤은 이상국가에서 시인을 추방하기도 했다. 그것은 시인이 시대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추구하는 혁명의 정신을 견제했기 때문이다. 시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불의한 권력을 비판하고,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신의 진실을 전하는 자’라는 뜻도 갖고 있다고 시인을 평가한다. 한국의 모 시인은 국경 밖 중동으로 카메라를 들고 나갔다. 예술은 전쟁을 멈추게 할 힘은 없지만, 공포에 떠는 아이들과 함께 울고 놀아주겠다는 마음이었다. 근데 시로 표현해도 됐을 텐데 왜 사진일까? ‘언어의 국경을 넘지 못하면 내 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카메라는 다르다. 게다가 약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카메라였고, 강자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카메라였다’고 말하는 그 시인의 말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이말에 시인의 역할과 언어성에 체포(?) 당하고 말았다.

스페인에 어떤 시인과 화가는 예술적인 영감을 교류하고 있다. 성숙하면서 좀 더 넓은 세계를 꿈꾸며 세계성을 지향하고 있다. 화가는 시인에게 이 나라를 떠나서 프랑스로 가자고 종용하지만 시인은 프랑스어를 모른다고 거절한다. 화가는 배우라고 부탁하지만 시인은 배우지 않겠다고 말한다. 화가는 프랑스로 떠났지만 시인은 결코 모국을 떠날 수 없었다. 아니 모국어를 떠날 수 없었다. 모국어는 감옥(?)이었다. 그 팽팽한 창살에 갇혀산다. 자신을 장악하는 것에 대한 반발, 억압에 대해 무진장 저항한다. 시인은 모국의 잡다한 사건에 연류되어 스스로 발목을 묶어맨다. 언어를 다루는 사람은 그 모국에 갇혀 징역을 산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잡시의 리듬에 실어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시인은 그 모국어에 갇혀 모국의 피를 빨고 치열하게 산다. 대신 화가는 모국을 떠나 세계를 떠돌아다닌다. 사랑을 찾아 자유롭게 세계를 떠돈다. 영감을 주는 사고계 연상의 여자를 미친듯이 사랑한다. 그림은 자유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그림은 통한다. 언어가 필요없다. 하지만 그의 고뇌는 그대로 화폭에 담긴다. 시인과 화가는 학창시절 미묘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동성애에 빠져들면서 고뇌한다. 하지만 결국 시인과 한 여자와의 섹스현장을 목격하고서는 화가는 떠난다. 그 미증유

의 사건은 화가의 화폭에서 일그러진다. 하나의 육체가 잘려나가고 기형적으로 일그러지고 해체된다. 육체의 미묘한 욕망 속에서 인체는 기형적으로 일그러지고 시간 속에서도 녹아서 흐른다. 하지만 화가는 자신의 의지대로 모국을 떠날 수 있다. 세계 어디를 가도 그의 화폭은 매꾸어진다. 하지만 시인은 모국을 떠날 수 없었다. 모국어라는 감옥에서 천형을 살고 있다. 문자에 매달린 자는 모국에 남아 있어야 했고 표현을 추구하는 자는 훨훨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일까?

시인은 그 땅의 가장 중심에 뿌리박은 나무이고 화가는 그 가지에 날아와 날개를 접는 새인가? 결국 이른 나이에 어수선한 조국의 상황에서 신념을 언어로 뿔어냈던 시인은 모국에서 총살을 당하지만 자유분방하고 인간의 본성에 충실했던 화가는 스스로 자살한다. 이것은 최근 리틀애쉬라는 영화에서 다룬 내용이다. 스페인의 천재적인 화가 살바도르 달리와 젊은 날 학창시절 교우했던 시인 로르카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물론 스페인의 내부사정에 깊이 관여했던 시인은 총살당했고 모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던 화가가 그 소식을 듣고서는 그의 화폭엔 검은 물감만 쳐바르던 충격적인 장면이 나온다. 물론 화가는 자살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장수를 누리며 살

다갔다. 늙어서 죽을 때까지 화가는 침묵했다가 임종 무렵에야 둘의 관계를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화폭에선 그들의 사랑놀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왔고 시인의 시에도 그들의 애정이 담겨왔을 것이다. 시는 구체성을 띄어야하는 예술 작품이고 그림은 추상 속으로 뚝뚝뚝 걸어들어가는 엄청난 해석의 개연성을 가진 예술로 풀어져 나왔던 것이다. 스스로를 천재라 칭하고 세상을 뒤흔든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전기를 드러낸 한편의 영화 리틀애쉬(Little Ashes)라는 영화의 내용이다.

+++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해보면 골프장은 무엇일까? 삶의 일상에서 벗어나 있는 그림의 맥락이다. 골프가 세계인의 공용적인 스포츠로 세계 어디를 가도 함께 골프를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언어다. 그것은 물과 매너가 세계 어디서든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생의 풍요와 즐거움을 향유하는 놀이의 공간이지 삶의 치열한 투쟁현장에서, 부조리한 세계에 대한 모서리가 없는 곳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둘 다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룬다는 것에선 동일 하지만 세상의 생존현장에서 칼을 드는 것과 세상의 후미진 곳에서 클럽을 드는 것의 차이가 있다. 골프장은 인간의 감정과 일상의 쇄사슬에서 해방되는 공간이다.

글 / 정노현(시인) · 그림 / 황정옥(한국화가)

■ CHANGE UP

비만과 겨울철 건강 골프

편하게 하는 골프는 건강에 해롭다

최근 거리에 나가보면 비만체형의 사람이 많이 눈에 띈다. 백화점 등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매장까지 만들어 놓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은 비만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너무 살찌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이다. 골프와 비만의 관계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과연 비만의 체형을 가진 사람이 겨울에 골프로 체중감소를 할 수 있을까? 자신만 부지런하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 말이다.



대한민국의 식단이 서구화가 되면서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비만으로 인해 우리의 생명도 위협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비만이 왜 무서운가? 영국 육군에서 40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 중 비만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비만을 가진 사람에게는 고혈압증이 보통 사람의 3배나 많다는가 심장병이나 순환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보통 사람의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만인 경우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간염, 간경변, 신장병, 관절염, 각종 헤르니아 같은 병에 걸리기가 쉽다. 비만 여성의 80%가 월경이상이고 임신 중의 사고율도 높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살이 찌나? 결론적으로는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별로 먹지 않는 데도 살이 찐다. 체질일까? 운동 부족일까?”라고 말한다. 그러나 과식하지 않는데 살이 찐다는 것은 체

내에서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먹은 것의 칼로리 쪽이 많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먹지 않고 살을 빼면 건강에도 좋지 않으며 요요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그렇다면 먹으면서 여위는 방법은 없는가? 먹지 않으면 여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식욕이라는 본능을 이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먹으면서 살을 빼는 가장 빠른 길이 자 이치는 섭취한 칼로리 이상으로 운동해서 그것을 소모 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산보라든가, 체조라든가 하는 것이지 좋지만 이런 운동은 오래 지속되는 운동이 아니므로 골프를 이상적인 운동으로 추천한다. 그러면 겨울철에 골프로 다이어트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골프를 시작했다는 사람은 상당히 있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일까? 비만을 가진 사람이 1.5라운드 플레이를 한 경우 여름에는 1.5~2.0kg, 겨울에는 0.5~1.0kg 가량 체중이 줄

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겨울은 낮이 짧기 때문에 하루 1라운드 밖에 플레이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대신 체중의 감소도 0.2kg 전후이다. 결국 겨울동안 골프를 해도 다이어트 효과는 크지 않다. 겨울에 골프를 하면서 다이어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겨울은 춥기 때문에 1시간 이상 대기시간이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톱브에 둘러 앉아 움직이지 않는다. 그 귀중한 시간을 이용해서 연습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약 1시간동안 4상자의 연습볼을 친다고 가정하면 대강 0.5라운드를 플레이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며 겨울에도 약 1kg 정도 빠진다. 편안하게 하는 골프는 건강에 해롭다. 겨울철에도 지속적으로 움직일 것을 주문한다.

〈기사제공 : 골프저널〉

■ READING LEADER'S

사마천의 『사기』

사기 속에는 세상이 있다. 골프경기 안에도 세상이 있다.

사마천의 『사기』 130편은 상고 시대부터 사마천이 살던 한 무제 때까지의 중국 역사를 다룬 고전이다. 이 중에서도 〈열전〉 70권은 주나라 붕괴 후 등장한 50개 제후국 가운데 최후까지 살아남은 전국칠웅의 흥망성쇠를 주축으로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려냈다. 제왕과 제후를 위해 일했던 인물들의 전기를 주로 수록하고 있는데, 신분을 초월한 다양한 인물들을 만날 수 있다.

역사는 그 자체로 “사람을 알고 세상을 논한다.”는 ‘지인논세(知人論世)’의 가르침을 준다. 그 역사가 글로 남겨진 것이 바로 책이며, 시공을 뛰어넘는 사마천(B.C 145년~B.C 86년)의 ‘사기’는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다룬 중국 역사서다. 역사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삶에 대한 지혜를 다루고 있어, 현대인의 책략서로도 인생에 대한 지침서로서도 가치가 있다 할 수 있다. 헤쳐 나가기 어렵거나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닥칠 때, 국내외 많은 경영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고전에서 말하는 기본 덕목에서 해답을 찾고자 할 때가 많다. 그렇다면, 운동은 더 말할 것이 있을까?

당장의 이익과 효과에 목매지 말라

중국의 고전 및 전통 문화연구의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 민더는 책 “왼손에는 사기, 오른손에는 삼국지를 들어라.”를 통해 소탐대실의 교훈을 말하고 있다. 사기의 ‘진세가 제9’에서는 당장의 이익에 사로잡힌 춘추시대 우나라 우공을 이야기 한다. 진나라와 국경을 같이하고 있던 우나라는 꾀나라를 치기 위해 길을 터 달라는 진나라의 제안을 받는다. 갓은 보석을 가지고 온 진나라의 제안을 거절할 일 없던 우나라의 군왕 우공은 신하들의 전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길을 내준다. 꾀나라를 치고 돌아온 진나라는 사례의 의미로 함께 사냥을 즐기러 나갈 것을 권하는데 우공과 신하들이 사냥을 즐기고 있을 사이 진나라의 군사들은 애초에 쫓던 보물을 다시 가져가는 것은 물론 우나라의 성까지 함락시킨다.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우공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골프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장의 이익과 효과에 목매다면 실제 본인의 실력이 커질 수 있는 기본바탕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타이거 우즈는 골프천재라 불리우며, 골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양용은 프로는 어떤가? 골프천재 타이거 우즈와는 확연히 상반된 환경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필자는 그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세계 수많은 골프 팬들은 2009년 8월 ‘제주 촌놈’이 ‘미국 호랑이’를 잡는 사고를 쳤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제주 출신 양용은 프로가 8월 17일 미국 미네소타주 채스카의 헤이즐턴 내셔널 골프장에서 열렸던 미국 프로골프투어(PGA)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에서 최종 합계 8언더파 280타를 기록해 미국의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를 3타차로 따돌리고 아시아 선수 최초의 메이저 챔피언 등극이라는 쾌거를 일구어냈던 사건이다. 그 누가 이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했겠는가. ‘제주 촌놈’ 양용은 프로는 ‘없이’ 태어났고 ‘없이’ 살았다고 한다. 어깨 너머로 프로 선수들의 스윙을 익혀 나갔고 1996년 프로에 입문해 신인왕이 됐지만 2000년 초에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5만원짜리 방에 살아야 했을 정도로 가난했다고 한다. 또한, 2004년 일본프로골프(JGTO)에 진출하여 첫해 2승을 거두고 총 4승을 거두어 자신감 있게 미국 PGA 투어에 도전했다. 하지만 켈리파잉스쿨(Q스쿨)에서 탈락하는 고배를 수없이 마셨고 미국에서는 2006년 11월 HSBC 챔피언스에서 우승을 한 것이 전부였다. 그 당시, “그냥 일본에서 있었어야 해.”라고 뒤늦은 후회도 했지만 이를 악물고 연습에 매달렸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도전해 아시아 최초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로 기억되는 큰 대업을 이룬 것이다.

PGA투어 대회의 하나인 윌리엄스 월드 챔피언십 대회. 최종일 라운드에서 무려 8언더파를 몰아치며 타이거 우즈가 우승을 확정했다. 골프장갑을 벗을 때까지 승부를 알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타이거 우즈는 역전으로 우승을 성취한 것이다. 우즈는 힘이 좋아 드라이버 샷을 멀리 치는 ‘큰 골프’로 유명하다. 하지만 의외로 연습장에서는 ‘퍼트’ 연습에 매달린다고 한다. ‘큰 골프’뿐만 아니라 ‘작은 골프’에서도 완벽하게 해 내어야, 최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것이다. 본인의 장기가 드라이버 샷으로 멀리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도, 평생 최고의 골퍼로 남기 위해 하루 종일 그린 위에서 라인을 읽고 또 읽고, 공을 치고 또 치고 ‘아름답게’ 굴러 홀 안에서 멈출 때까지 기본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당장 우승만 쉽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기인 드라이브만 연습하고 유지한다면, 우나라 우공과 무슨 다를 바가 있을까.

〈기사제공 : 골프저널〉



화려하게 성공한 모습 속에는 그 사람의 피와 땀이 얼룩져 있다. 타이거 우즈와 양용은 프로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 모두 포기하지 않고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았다. 자신의 장기는 살리고 부족한 점은 메꾸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천재도 노력하는 둔재에게는 이길 수 없다.

골프 연습장에서 일반 아마추어들을 가르쳐 보면 하루라도 빨리 싱글 골퍼가 되고 싶어 한다. 당장의 결과를 얻기 위해 수없이 레슨 프로들을 바꾸고, 스윙을 수정한다. 골프스윙에서는 정답이 없다. 사람마다 신체적 특성과 연습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아마추어 골퍼에게는 프로의 스윙이 맞지 않는다. 골프 스윙에 정석이 있다면 전세계 모든 골퍼들은 세계랭킹 1위인 타이거 우즈의 스윙을 해야 한다. 본인의 체형에 적합하고 편안한 스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이외로 좋은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다.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묵묵히 연습하는 끈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기 속에는 세상이 있다. 골프경기 안에도 세상이 있다. 골프 경기라는 세상 속에 선수라는 하나 하나의 인간들의 모습은, 실제 인간사와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사기 속에 녹아 든 세상을 보는 넓은 시야와 세부적인 실천 방법은 현대 사회 구조 속에도 잘 어우러져 있듯이 골프라는 세상에도 잘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이다. 역사는 곧 인간사다. 인간사의 모습과 형태는 ‘사기’라는 역사책의 옷을 입고 운동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지금까지도 ‘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한다.

제5회 서울대 동문 골프대회

겨레의 대학에서 세계의 대학으로



사진으로 보는 제5회 서울대 동문골프대회



서울대 발전기금 전달



경품 대상 박炯烈 동문



제5회 서울대 동문골프대회



金信福 부총장 인사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서울대학교

일시 : 2009년 9월 7일(월) / 장소 : 렉스필드CC



■ 캐디를 통해본 골퍼

〈기사제공 : 골프저널〉

JS손님! 라운드 하실래요?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화산리 40-01번지. 여기가 내 직장이다. 2000년 12월 어느 겨울에 나는 교차로에 실린 정보만 보고, 산골 깊숙이 설레는 마음으로 오게 됐다. 내 나이 고작 23세. 대단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뻔 정말 코짤짤이 이등병이었다. 물론 지금은 내 나이 30세. 말년 병장이다. 지금까지 얘기만으론 내 직업이 군인인줄 착각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내 직업은 군인이 아니다. 그랜드컨트리클럽. 여기가 바로 내 직장이다. 그렇다. 내 직업은 캐디다.

여기서 잠깐. 캐디란, 어떤 직업일까 궁금해 하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캐디란, 사전적 의미론 ‘골프에서 클럽을 메고 골프를 치는 사람을 따라다니며 조언을 하거나 시중을 드는 사람’이라고 한다. 한 단어로 내 직업을 표현하라고 한다면 ‘그립자’라고 하겠다. 그립자 같은 존재. 골퍼들이 골프를 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존재. 나는 내 직업이 자랑스럽다. 물론 처음부터 자랑스럽게 생각하진 않았다. 부지기수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실망도 많이 했고 아픈 상처도 많았지만, 많은 경험을 해 본 오늘날 나는 내 직업이 자랑스러운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자랑스러웠던 내 직장생활을 몇 자 적어 보려 한다.

2002년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분 나쁜 날씨였다.

“아우, 더워. 후덥지근한 게 오늘 비 온다고 했어?”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나의 절친한 동료인 진형언니가 짜증이 가득 섞인 목소리로 대기실로 들어왔다.

“그러게 언니. 비올 것 같아. 무릎이 쑤신 게…”

하하하. 지긋지긋한 관절염. 그렇다. 우리의 직업병. 비가 올 때쯤엔 어김없이 우리 무릎에도 신호가 온다. 일기예보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이다. 오래된 언니일수록 정확하다. 날씨 탓이었을까? 일하기가 너무 싫었다. 바로 그때,

“첫 대기 언니 대기하세요.”

마스타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배치표를 건네받았고 뺑을 찾기 시작했다. 근무 준비를 마치고 남코스 티잉그라운드로 이동했다. 멀리서 걸어오는 남자 네 명. 육감적으로 내 손님인걸 알았다. 약간 샌님 냄새가 났다. 캐디생활 2년차였던 나는 대충 첫눈에 손님을 파악하려 했다. 오산이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도우미 김영숙입니다. 즐거운 라운드 되십시오.”

티잉그라운드에서 인사를 마친 후 오너가 준비하기 시작했다.

“짹”

드라이버소리다.

“굿 샷”

그렇게 첫출발은 순조로웠다. 고객님들의 티샷이 모두 끝나고 나는 세컨지점으로 이동했다. 신속하게… 그때만 해도 오토바이카라고해서 캐디만 뺑을 싣고 이동하는 카트였다. 시속 5km정도 되는 아주 느린 카트였다. 당연히 회원님들이 뛰어가기라도 한다면 나는 뒤에 한참 쳐져서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외쳐야 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 같다.

“언니 7번 아이언 갖고 와라.”

“네, 고객님의.”

나는 재빨리 네 번의 거리를 확인한 후에 아이언을 빼기 시작했다. ‘헉헉헉’ 가쁜 숨을 들이쉬며

“7번 아이언입니다.”

“아니다. 7번 말고 8번 아이언 갖고 와라.”

지금 내 위치에서 카트까지 거리는 100m… 정말 화가 너무 났다. 아직 1번홀인데 벌써 등줄기에 땀이 주르륵~주르륵~.나는 이가 빠질 만큼 악물고

“네, 고객님의.”

100m를 전력 질주했다. 다시 가쁜 숨을 들이 마쉬며

“여기 8번 아이언입니다.”하며, 채를 드렸다.

그리고 나선 재빨리 카트로 달려갔다. 그린으로 가기 위해서다. 바로 그때,

“야! 누가 볼 칠 때 움직이래?”

고객님의 호통소리가 옆 홀까지 울려 퍼진다. 순간 당황한 나는

“네, 고객님의. 죄송합니다. 카트가 느려서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그린에 늦게 도착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하며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니 어디서 말대꾸야?”

그때 눈치 챘다.

‘아 이분은 우리가 소회 말하는 JS. 즉, 진상손님이구나. 오늘 죽었다.’

날씨도 후덥지근해서 기분도 흐린데 손님까지… 정말 설상가상이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싶었다. 모든 서비스업이 다 그렇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손님들 비위맞추기가 너무 힘이 들었다. 손님들은 캐디라는 직업자체를 무시했고,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분들도 많았다. 인격적으로 무시하시는 분도 많았던 것 같다. 볼치는 분들의 직위, 학위가 높았던 때인 만큼 더 했던 것이다.

1번홀을 우여곡절 끝에 훌아웃하고 2번홀, 3번홀… 9번홀까지 순조롭게 마쳤다. 마치 폭풍전야를 연상케

하듯이 우리 팀은 너무나 고요히 플레이를 했다. 후반 인코스 1번홀, 2번홀… 6번홀까지도 너무나 조용히 그렇게 시간은 지나갔다.

드디어 7번홀. 해가 저물어 라이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우리 골프장은 오래된 골프장이라 라이트가 밝지 않았다.

“짹”

“굿 샷”

“짹”

“굿 샷”

네 번의 티샷이 끝난 후 바짝 긴장한 나는 세컨드 지점으로 이동했다.

‘샤~샷~’ 앞에서 얘기했던 JS손님이 세컨샷을 했다. 아니나 다를까? 볼을 못 봤다.

‘툭’ 오른쪽 러프지역이다.

“내 볼 어디로 갔어?”

“네… 저기… 볼이…”

우물쭈물대며 대답을 회피하고 재빨리 러프 쪽으로 뛰어갔다. 길이가 무릎까지 오는 깊은 러프다.

‘하필 이쪽으로 올게 뭐람.’

정말 열심히 풀들을 헤치며 찾아보았다. 희미한 라이트 불에 비치는 모든 게 볼 같았다. 1분… 3분… 5분… 거의 10분 쯤 찾고 있는 것 같다. ‘아… 어찌지? 분명 불호령이 떨어질텐데.’

“두근 두근”

“콩닥 콩닥”

“쿵쿵쿵쿵”

이내 마침… 올 것이 왔다.

“야! 이 xx같은 x야!”

‘주르륵~주르륵~’

참았던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다. 밀려오는 서러움을 참을 수가 없었다.

“툭, 툭, 뚜두둑…”

나의 서러움이 하늘에 닿았는지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야! 울긴 왜 울어? 이 xx야!”

계속되는 폭언과 욕설들… 세상에 태어나 처음 듣는 말들이었다. 분명 국어사전엔 나와 있지 않는 말들이다. 그 순간 머릿속은 새하얗게 됐고, 나는 아무런 말도 행동도 할 수 없었다.

“언니 괜찮아요? 미안해요!”

다른 손님께서 그 ‘JS’ 손님을 제재하며, 미안하며 사과하셨다. 너무 무서웠다. 극도의 공포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뻔 기분이 나쁘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그런 느낌도 없었다. 마치 휴대폰 진동이 울리듯이 몸이 부르르 떨려왔다. 〈21면 계속〉



〈20면 이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나에게 다른 손님들은 계속 괜 찮냐며 달랬다. 그리고 나선 남은 2홀은 어떻게 돌았 는지 기억조차 없다. 까마득히... 아주 오래된 옛날이 야기처럼...
그날 이후 며칠 동안 회사에 출근 할 수 없었다. 정신적, 육체적 아픔이 나를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이 다. 많은 선배들이 찾아와 위로해줬다. 본인들의 경 험담을 이야기해주며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 라고 했다. 그치만, 너무나 크나큰 충격에 휩싸였던 나는 뒤통에 걸린 짐승처럼 허우적대고 나오질 못했다. 그동안 재밌고 보람 있었던 기억들을 생각해 스스로 위로해 보려했다.
하루가 흘렀다. 이틀... 사흘... 나흘... ‘괴식’ 웃음 이 흘러 나왔다. 지금 바보같이 왜 누워있는 것일까? 그깟 일 갖구... 난 똥 밟은 거다. 그 손님은 인격결

함이다. 어딜 가나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다. 그치만 아니다. 내가 더 볼도 잘보고 유능한 캐디였다면 그런 욕 따윈 먹지 않았을 것이다. 갑자기 나약해진 내 모습이 한심스러웠다. 보다 전문적인 캐디가 되자. 그때 다짐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나는 성숙한 것이다. 최고의 캐디가 되어 어떤 손님 도 나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노력 했다.
그 후로 얼마나 보람차고 뿌듯했었던가! 머리 올리는 손님 이끌어갈 때 보람, 비기너 손님들이 나를 의 지하며 따를 때의 뿌듯함... 가끔 손님들의 농담에 배 곱이 도망가기도 한다. ‘푸하하’ 재밌었던 일들이 뇌 리를 스친다. 코스에 나가 배가 갑자기 아프다며 볼 타올을 들고 산속으로 들어가던 손님, 앞바람이 심하 다며 바지에 오줌무늬를 남겨온 손님, 유명한 연애인 들과 라운드 나가서 설렘었던 일, 싱글을 하는 게 꿈

이라던 손님에게 조언을 해줬던 일(그날 싱글을 하셔 서 너무나 좋아하셨다.), 시합 나간 선수가 우승을 해서 같이 기뻐했던 일...(캐디피를 많이 받아서가 아 니다. 히히히) 악몽의 날이 나에게겐 해몽이 된 셈이 다.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것 같다.
횃수로 8년차인 왕고참... 눈감고도 볼 떨어지는 소 리만 들어도 볼 위치를 알 수 있을 정도이다. 하하 하... 말년 병장이지만 뻥질 뻥질 게으름 피우지 않고 제대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짹짹 내리 쪼는 화려한 햇살 뒤에 감춰진 그림자처럼, 없어서 는 안 될 중요한 직업인으로서 말이다.
“뭘하고 계세요? JS손님! 같이 라운드 하실래요?”

글/김영숙 (○○컨트리클럽)

〈이 글은 현재 골프저널에서 필드의 메아리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대현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 HOLE IN ONE

홀인원 못하는 세상 골프 맛이 나나?

대한골프협회 집계 ‘2007~2009’ 홀인원 분석



요즘 개그콘서트를 보면 개그맨 최효정이 농담식으로 풍자를 던져준다. 골퍼들에게는 아마 이런 말이 어울릴 것이다. “왜 그러세요. 골프장가면 기본적으로 한 라운드 당 한 번씩 홀인원은 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좀 골프를 하는구나 하잖아 요. 그 이하로는 라운드를 하는 게 아니라 연습장에서 골프채 들고 까닥거리는 거잖아요.” 이 말처럼 요즘 주위를 살펴보 면 누가 홀인원 했느니 하는 이야기를 자주 접할 수 있다. 홀인원을 한 번이라도 기록하지 못하면 대화에 끼지 말라는 우 스갯소리가 나오니 말이다. 지난 3년간 홀인원 분석 기록을 공개하겠다.

2010년이 시작한지 이틀째인 날에 시범라운드 중인 경남 고성 노벨골프장에서 올해 ‘1호 홀인원’이 탄생 했다. 올해도 많은 골퍼들이 홀인원을 열망하면서 다 가오는 시즌을 꿈꾸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대한골프협회(KGA)에서 집 계한 홀인원 기록을 분석하겠다.
대한골프협회의 기록을 살펴보면 2007년에는 전국 8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홀인원을 기록한 골퍼들에 게 발급한 홀인원 기념 증서가 총 2,292개, 2008년에 는 87개 골프장에서 총 2,485개, 2009년에는 108개 골 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838개의 홀인원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회원제골프장이 약 200곳에 달하는 만큼 집계에서 누락된 골프장까지 포 함하면 실제로는 2배 이상의 홀인원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골프장에서 100개 이상의 홀인원이 쏜

아진 곳도 있는 반면 달랑 하나만 나온 골프장도 있 었다.
다음으로 2007년 최고의 명당은 경북 칠곡에 위치 한 파미힐스CC가 91개로 1위, 2008년에는 경기도 용 인의 프라자CC가 97개로 1위, 2009년에는 파미힐스 CC가 103개로 홀인원 명당 골프장으로 등극했다. 2009년 파미힐스CC에서 나온 홀인원을 분석하면 28 개가 동코스 8번홀에서 나왔으며 하루에 2개의 홀인 원이 나온 것도 네 차례가 있다. 파미힐스CC는 2006 년 86개, 2007년 91개, 2008년 95개에 이어 2009년에 는 103개로 홀인원 명당으로 주목받고 있다. 파미힐 스CC가 홀인원의 명당으로 불리게 된 이유를 살펴보 면 코스의 특징에서 살펴볼 수 있다. 파미힐스CC는 전장이 180야드밖에 되지 않은 동코스 8번홀에서 홀 인원이 가장 많이 기록됐다. 8번홀은 좌, 우 두 그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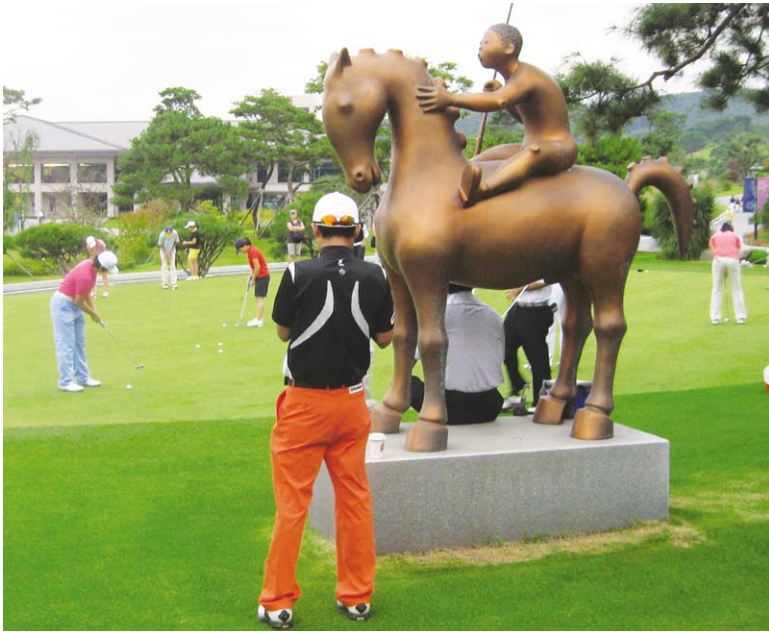
앞쪽으로 해저드가 자리하고 있지만 좌, 우 그린의 중앙을 공략하면 어렵지 않게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홀이다.
마지막으로 홀인원이 많이 나온 골프장 베스트 10 을 살펴보자 2007년을 보면 아시아나CC(80개), 경주 신라CC(77개), 골드CC(76개), 프라자CC(76개), 수원 CC(71개),레이크우드CC(68개), 동부산CC(64개), 코 리아CC(63개), 대구CC(63개) 등이 홀인원 명당에 이 름을 올렸다. 2008년에는 파미힐스CC(95개), 골드 CC(83개),레이크사이드CC(76개), 양평 TPC(65개), 엘리시안강촌리조트(64개), 중앙CC(63개), 코리아 CC(61개), 뉴서울CC(59개), 경주신라CC(59개)가 이름 을 올렸다. 2009년에는 중앙CC(95개),레이크사이드 CC(94개),아시아나CC(93개),골드CC(91개),경주신 라CC(68개),코리아CC(66개),세인트포CC(65개),소 피아그린CC(64개),대구CC(63개)로 순위가 나타났다.
반면 2009년에는 롯데 스카이힐 제주CC, 무안CC, 백제CC, 알펜시아CC, 중부CC, 태광CC 등은 1년 동안 1개의 홀인원씩이 나왔다. 이들 골프장 이외에 파인 스톤CC과 센추리21CC, 안양베네스트CC, 오션뷰CC, 이스트밸리CC, 나인브릿지CC,레이크힐스제주CC 등 도 1년 동안 10개 미만의 홀인원을 기록했다.

〈기사제공 : 골프저널〉



홀/인/원/기/록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1위	파미힐스CC(91개)	프라자CC(97개)	파미힐스CC(103개)
2위	아시아나CC(80개)	파미힐스CC(95개)	중앙CC(95개)
3위	경주신라CC(77개)	골드CC(83개)	레이크사이드CC(94개)
4위	골드CC(76개)	레이크사이드CC(76개)	아시아나CC(93개)
5위	프라자CC(76개)	양평 TPC(65개)	골드CC(91개)
6위	수원CC(71개)	엘리시안강촌리조트(64개)	경주신라CC(68개)
7위	레이크우드CC(68개)	중앙CC(63개)	코리아CC(66개)
8위	동부산CC(64개)	코리아CC(61개)	세인트포CC(65개)
9위	코리아CC(63개)	뉴서울CC(59개)	소피아그린CC(64개)
10위	대구CC(63개)	경주신라CC(59개)	대구CC(63개)

■ 비구선



골프가 건강과 사교에 다시없는 운동임에는 틀림없다. 한여름의 푸른 초원, 가을빛을 머금은 갈색 잔디의 온화함, 따사로운 가을햇살의 부서짐, 맑은 공기 속에서 백구를 치고 쫓다 보면 지칠 줄 모르는 보행, 어느 것 하나 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 친구들과의 친교는 물론 비즈니스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골프의 덕성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갈수록 마음의 고향인 골프장이 세속화되어가고 더불어 훼손과 오염이 돼가고 있는 현실을 보노라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골프장의 멋진 풍광과 더불어 플레이 때 지켜야할 질서와 양보, 예절과 겸손

으로 충만돼야 할 곳이 무질서로 난장판이 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자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모든 이는 평등하다. 모두가 평등하고 기분 좋게 골프를 즐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명심해야할 의무와 도리가 있다는 것쯤은 골프를 하는 사람들의 위치라면 다 알 것이라 본다.

그러나 최근 자기의 즐거움만 알고 골퍼로서의 의무를 망각한 골퍼가 늘어만 가고 있음을 보면 서글퍼진다. 골퍼의 매너로서 자격 유무는 잘 치고 못 치고와는 무관한 것이며 골프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시설들을 얼마나 아끼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우리를 위해 곱게 가꾸어진 잔디 위에는 담배꽂초나 쓰레기가 널려 있고,

즐거운 골프의 조건은?

구력이 붙을수록 어린애처럼 자꾸만 가고 싶고 필드에 나가서 즐기다 보면 지는 해가 원망스러울 정도다. 골프란 마력의 운동이다. 모두들 건강과 사교를 위해 즐기는 운동이라고 점잖게 변명을 늘어놓지만 실은 엄청나게 흥미와 스릴로 가득한 스포츠다. 광활한 초원을 향해 공을 후려치는 통쾌함이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자 골프장을 자주 찾게 되는 이유다.

벙커에는 무수한 발자국으로 얼룩져 있고 카펫이 무색할 만큼 잘 다듬어진 고운 그린 위에는 스파이크 상처로 얼룩져 있다. 이러한 훼손들은 누가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며 설마 우리 골퍼들은 아니겠지 하면서 자신을 의심해 보곤 한다.

내기에서 어긋났는지 고함소리가 터져 나오고 스탠스를 잡고 집중하는데도 잡담과 웃음소리가 연신 터져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전혀 골프장에서의 지켜야할 룰 매너를 모르는 사람같기도 하다. 정말 그럴 땐 독일 같이 실기와 이론을 마스트해서 면허를 따야 골프장에 입장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회원이 되면 쥔 먼저 회원가입자를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처럼 매너와 룰 교육부터 시키는 과정을 두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유유자적하고 한가로운 운치를 만끽하고 정적과 몰아의 경지에서 즐기자고 골프장을 찾았으며 내일도 모레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세파에 찌든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을 증진하며 페어플레이 정신과 의지를 길러 가는 유일한 골퍼들만의 천지이자 마음의

고향인 것이다.

어찌 이곳의 초목이나 시설물들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이것들은 골퍼들을 위해 묵묵히 자기 몫을 다하고 있다. 과연 우리 골퍼들은 이 자연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자문자답 해 볼 일이다. 골프장이란 우리 골퍼가 주인인 것이며 골퍼 외엔 어떠한 명분으로도 입장이 허용되지 못하는 골퍼만의 세상인 것이다.

다시한번 클럽을 잡고 골프장에 들어서기 전에 다짐을 해본다.

새로 늘어나는 후진 골퍼들에게 선배 골퍼들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플레이하자. 이어 골프는 공을 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우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겸손과 예절이 몸에 배여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본다. 또 골프장은 골프를 즐기는 골퍼들만의 천지이자 마음의 고향인 것이다. 항상 아끼고 가꿀 줄 아는 플레이어가 돼야 멋진 골퍼라고 할 수 있다.

〈기사제공 : 골퍼저널〉

박대명(영화평론가)

■ Happy Lesson

겨울철 실내연습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자

최고의 스윙을 하고 싶으면 좌우로 머리 위치를 이동하면 안 된다

겨울철이 와서 밖에 나서기가 힘들 때 집에서 공을 때리지 않으면서도 쉽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나는 사진(05.JPG)에서와 같이 머리를 고정해 둔 채 하프 스윙을 반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골퍼는 자신의 머리 움직임을 의식 못하는데 이 연습 방법으로 자신이 얼마나 편안하게 머리를 좌우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최고의 스윙을 하고 싶으면 좌우로 머리 위치를 이동하면 안 될 것이다.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연습 중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싶다.

클럽을 평상 시 더 짧게 잡고 엉덩이가 벽에서 닿을 듯 말 듯 서서(발 뒷축에서 약 10~15cm) 스윙을 하는데 클럽 헤드가 벽에 닿으면 이는 몸의 회전과는 상관없이 손만으로 백스

윙을 했다는 결과다.

손의 스윙은 항상 몸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모두 어떻게 하면 사진처럼 스윙을 하면서 클럽이 벽을 안 칠 수 있을지 가까운 프로한테 한번 물어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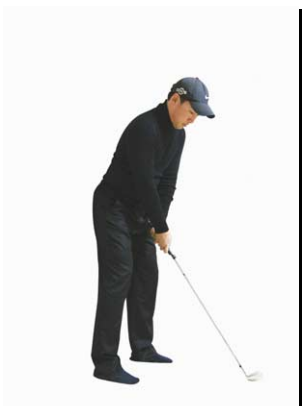
이 연습까지 할 정도의 열혈 골퍼라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여자의 눈

치를 봐야할 것이다.

당신이 집에서 하는 이 기가 막힌 연습 방법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사제공 : 골퍼저널〉

김성현 GAC 골프아카데미 헤드프로



■ 위험한 골프

- 멧돼지가 골퍼를 위협한다 -

골퍼들의 안전수칙이나 대처법 등 각별한 주의 필요

〈기사제공 : 골퍼저널〉

최근 인간을 위협하는 멧돼지의 역습이 농가와 민가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넘어서 골프장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 멧돼지는 원래 후각이 발달되어 사람이 접근을 하면 그 냄새를 맡고 일찌감치 장소를 이동해 숨어서 사람이 다 지나가도록 바라보는 습성이 있고 또한 겁이 많아 자기보다 큰 것이나 숫자가 많으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것이 통례인데 최근에는 자주 출몰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1~2년 전만 해도 멧돼지가 나타나 현상은 먹거리가 없는 요즘 같은 시기에 깊은 산악지형에 위치한 골프장에 국한됐었다. 하지만 지금은 구릉지대, 해안지대 골프장 할 것 없이 전국적, 전방위적으로 출몰하고 있다. 이렇듯 멧돼지들이 때를 지어 골프장에까지 출현하는 이유로 먹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멧돼지의 주식인 도토리들 사람들이 싹쓸이해감으로써 빚어진 결과라고 전하고 있다. 골프장에서의 가장 큰 피해는 페어웨이의 훼손이다. 멧돼지는 페어웨이 땅속에 서식하고 있는 지렁이와 굼벵이를 잡아먹기 위해 닥치는 대로 땅을 파헤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작업이 쉬운 벙커덕도 훼손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린 훼손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설 잔디 연구소 김호준 고문은 “2년 전만 해도 강원도, 경기 북부 등지의 산악지형 골프장 피해가 심각했는데 지금은 남부지방 해안 골프장에서도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골프장들의 친환경 잔디 관리 체계가 보편화되면서 페어웨이에 멧돼지들의 영양분으로 섭취하기에 좋은 지렁이와 굼벵이가 많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전했다.

골프장들의 대책도 다양하다. 경남의 한 골프장은 천적인 진돗개를 이용하고 있으며 경기도 포천의 한 골프장은 전문 수렵꾼들을 고용한 직접 퇴치 방법을 택하고 있다. 직접 퇴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렵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또한 약물과 장치를 활용한 방법도 선호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해 농작물 보호를 위해 농가에 보급된 전자센서 기능을 이용한 야생동물 퇴치장치, 물병에다 크레졸 원액을 담아 골프장 인접지에 놓는 것도 사용되고 있다. 모충사의 백산 스님이 처음 시작했다는 더덕을 이용한 퇴치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골프장에서 약간 떨어진 산에다 밤나무나 도토리나무를 심어 먹거리를 제공하는 적극적 방법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인명사고 우려가 존재한다. 흔치는 않지만 간혹

최근 인간을 위협하는 멧돼지의 역습이 농가와 민가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넘어서 골프장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 멧돼지가 골프장의 페어웨이 땅속에 파헤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인명사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야생멧돼지 교미 기간인 11월에서 2월 중에는 야생멧돼지가 성질이 더욱 난폭해지므로 골프장 입장객은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안전수칙이나 대처법 등을 마련해 골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대낮에도 코스에 나타나 플레이어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야생멧돼지 교미 기간인 11월에서 2월 중에는 야생멧돼지가 성질이 더욱 난폭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 큰 어미 멧돼지는 300kg이 넘는 놈도 있어 발을 가는 주둥이 송곳니로 한 번 공격하면 그 빠르기가 전광석화와 같아 사람이 도저히 이길 수는 없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가 있고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무

서운 짐승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안전수칙이나 대처법 등을 마련해 입장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행동요령에 따르면, 멧돼지가 나타났을 때는 침착하고 조용히 119에 신고하고 주위 나무나 바위 뒤로 피해야 한다. 우선 멧돼지를 만나게 되면 절대 당황해서 소리치거나 등을 보이며 달아나지 말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가만히 서있어야 한다. 움직이게 되면 자신을 공격하려는 것

으로 착각해 달려들 수가 있어서다. 특히 뛰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주변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 뒤에 숨어서 멧돼지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 요즘과 같은 시기에 카트에 음식물을 싣고 다니는 것도 피해야 한다. 이 시기에 예민한 멧돼지의 후각이 배고픔으로 더욱 발달해져 냄새를 맡고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볼을 찾기 위해 혼자서 러프로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다.



■ GOLF & GOLF

샤프트의 역할 및 선택요령

샤프트의 특성을 파악하고 선정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



샤프트는 클럽의 성능을 70% 이상 좌우하는 중요한 부품이다. 우선 샤프트의 강도에 따라 방향성과 공의 탄도각이 변화함을 알 수 있다. 골프 샤프트가 본인에게 너무 강하면 임팩트 시 헤드가 미쳐 따라 오지 못해 헤드가 열려 샷이 슬라이스 현상을 나타내고 헤드가 열려 공의 탄도각이 낮아짐을 볼 수 있다. 반대로 샤프트의 강도가 본인의 스윙에 비해 너무 약하면 샤프트의 휨이 목표(타깃) 방향으로 휘어져 헤드가 닫힌 형태가 되어 훅 현상을 나타내면 헤드가 닫혀 볼의 탄도각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샤프트의 올바른 강도의 선택은 볼의 탄도각과 방향성에 직결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올바른 샤프트의 선택은 비거리와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들어 저중량 샤프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이다. 클럽(CLUB)의 전체 무게가 가벼울수록 스윙 스피드가 증가하나 헤드의 무게는 가벼울수록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헤드의 무게를 낮추는 것은 무조건 비거리(飛距離)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저중량 샤프트는 전체 클럽 중량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헤드의 운동에너지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클럽 헤드 속도의 증가를 가져와 비거리를 향상 시킨다.

이처럼 샤프트의 역할은 공의 탄도와 방향성 및 비거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샤프트의 선택 시 특정회사의 샤프트를 무조건 선택하기

보다는 샤프트의 특성 즉 샤프트의 중량과 강도(CPM), 토크, 킥 포인트 등 일반적인 특성뿐 아니라 샤프트 모델별 설계자가 의도한 고유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샤프트를 선정 시 보다 즐거운 골프를 즐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때 킥 포인트(Kick point)란 임팩트(Impact) 시 샤프트의 휨이 샤프트의 어느 부위에서 휘는가를 말한다. 결과적으로 킥 포인트가 높으면 공의 탄도각(彈道角)은 낮게 되고 반대로 킥 포인트가 낮으면 공의 탄도각은 높아진다. 이는 샤프트가 동일한 거리만큼 휘어 졌을 때 샤프트의 휨이 헤드 부분에 가까운 즉 로우 킥 포인트(Low Kick point)의 경우 휨의 각도가 크기 때문에 공의 탄도각이 높아지고 반대로 하이 킥 포인트의 경우 휨의 각도가 적어져 공의 탄도각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골퍼들은 지나치게 킥 포인트에 예민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샤프트 설계자들은 샤프트 강도가 높고 중량이 많이 나가는 샤프트는 헤드 스피드가 빠른 골퍼들을 위하여 제작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설계 시 킥 포인트를 상단에 두어 제작을 했고 반대로 샤프트 강도가 낮고 중량이 가벼운 제품은 헤드 스피드가 느리거나 여성용 또는 시니어골퍼들을 대상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대부분 킥 포인트를 아래로 두어 더욱 공을 쉽게 띄울 수 있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



〈기사제공 : 골프저널〉



■ 골프센스업

이제는 용품이다

세계를 대표하는 골프선수는 많으나 한국 골프기업은 없다

한국 여자프로골프계의 해외 진출사를 살펴보면 지난 1983년 구옥희 선수가 최초로 JLPGA 투어 무대에 진출해 성공한 뒤 이에 힘입어 1986년에 미 LPGA 투어 무대에도 도전해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이 후 우리 여자프로골프계는 해외무대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했으나, 지난 1998년 박세리 선수가 US여자오픈 최종일 경기에서 맨발의 투혼으로 우승컵을 안으며 전 세계 골프계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 외에도 펄신, 김미현, 박지은, 고아라, 강수연, 김영, 강지민, 박희정, 여미선, 이정연, 안시현, 이지영, 최나연, 지은희, 신지애 등 수많은 여자 프로골퍼들이 미국 여자프로골프 무대에 진출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해외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여자프로골퍼들의 하드웨어는 거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다.

한편 지난해 8월 24일, 양용은 선수가 세계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PGA 챔피언십 최종일 경기에서 타이거 우즈를 누르고 정상에 오른 뒤 태극기가 새겨진 자신의 골프백을 번쩍 들어 올리며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다.

만일 그 때 그의 손에 한국 제품이 들려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끼게 했다.

골프용품산업 이대로 둘 것인가?

현재 국내골프인구는 약 27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출처 : 2009년 대한골프협회 발표자료) 이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6%로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 골프가 특정 계층만 즐기는 게 아니라 점점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이제 한국도 골프용품산업을 활성화 시킬 때가 되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8년 박세리 선수가 미 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삼성 브랜드 가치를 높인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2천1백억 원이나 된다. 나아가 삼성전자의 가전과 정보통신제품 등의 전 세계 판매에 미친 파급효과까지 더하면 연간 1조4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골프를 통해 한 개인이 대기업 매출과 맞먹는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그리고 지난번 제주도에서 열린 세계적인 골퍼인 아나기 소렌스탐과 타이거 우즈 등이 출전한 골프대회를 관람한 갤러리 수는 무려 7만5천명(2만5천명+5만명)이나 되며, 중계된 국가수도 190개국(50개국 : ESPN, 140개국 : NBC)이나 된다.

그러나 국내 골프용품시장은 어떠한



가? 국내 골프용품(클럽, 볼, 신발, 의류 등)시장은 총 2조원 규모이다. 이 가운데 90%가 외국브랜드이다. 국내 골프공 시장만 놓고 보면 한 때 30%를 넘었던 국내 브랜드의 점유율이 점차 하락해 현재 10%대를 맴돌고 있다. 특히 외국 브랜드 중 타이틀리스트는 전체 국내 골프공 시장의 56%나 차지하며 지존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대한민국 골퍼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약리학적으로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다. 이는 골프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낡은 클럽을 교체하면 볼이 잘 맞을 거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볼이 잘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 효과는 볼이 안맞기 시작하면 바로 없어진다.

그러므로 심리적인 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므로 골프공도 굳이 비싼 외국 브랜드만을 고집할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국산 골프공은 기능, 디자인이 떨어지고 외국산 골프공은 무조건 뛰어나다는 막연한 편견이 국내 골퍼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국내 골프산업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대한민국 골프산업 누군가가 나서야 할 때다

국내 영화배우나 가수가 최근 일본이나 중국 등 외국에 나가 한류 문화를 전파하며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있는 것처럼 골프산업에서도 한류의 열풍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은 전 세계 골프시장 가운데 빅3에 들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골프산업을 국가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골프공은 외국 브랜드에 비해 전혀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 국산 골프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외국 브랜드인 T사의 골프공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처럼 국내 골프산업을 보호해야 할 한국의 국가 대표가 무조건 외국 브랜드를 써야 한다는 아이러니

한 현실 속에 국내 골프브랜드들은 점차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내 골프공 시장 규모만 해도 약 1천억 원이다. 그 중 최고급 볼의 수요는 700억 원이나 되지만 국내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미미하다.

〈기사제공 : 골퍼저널〉

